



11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11호

(루계 제781호)

차례

조선의 붉은 당기(시)	박 근 원(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잇었습니다(시)	송 명 근(4)
8월의 조선에서...(시)	김 형 준(5)
미쾌의 문을 여시다 외 1편(시)	백 하(6)
정이 넘치시는분(가사)	홍 민 식(7)
주체문학의 대강	(8)
불멸의 씨앗	리 명 근(8)
불러만 보아도	장 혜 명(9)
시 애국의 열풍	김 석 주(9)
CNC 그 부름은	곽 명 철(27)
영원한 메아리	김 길 성(10)
단편소설 영생의 품	윤 민 종(12)
《나의 어머니》를 부르신 사연(혁명일화)	(11)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인민관에 대한 찬가(평론)	박 덕 남(21)
군중문학창작사업에 깃든 위인의 손길을 더듬어	최 명 길(28)
백두산을 안고살자(2)(편시)	최정용, 주명옥, 조광철 황성하, 리영일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소식)	(37)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김 정 은

보석은 땅속깊이(실화문학)	한 철 순(30)
단 편 이삭은 여문다	변 월 녀(42)
소 설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로 정 법(54)
칼도마소리	안 흥 윤(66)

○ 수 필 ○

나는 바다를 본다	김 흥 균(38)
어머니로 사는 기쁨	전 이 련(64)

~~~~~ 시 ~~~~~

|                        |           |
|------------------------|-----------|
|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노래          | 김 재 원(65) |
| 가을날의 속삭임               | 성 연 일(27) |
| 비료와 애국                 | 최 명 길(29) |
| 마음이 이팔어                | 박 정 애(50) |
| 청춘시절의 랑만               | 변 해 영(53) |
| 내 환생의 수업종소리(시초)        | 최 향 실(72) |
| 검은머리 백발이 된 오늘에도(단시 묶음) | 김 경 남(80) |

|                           |           |
|---------------------------|-----------|
| ○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 리 창 유(51) |
| ○ 역사물주제소설에서 예술적환상과 허구의 리용 | 김 선 일(74) |

|                                   |           |
|-----------------------------------|-----------|
| 시인 손승태와 시 《나에게는 병사시절의 배낭이 있다》(소개) | 오 철 학(78) |
|-----------------------------------|-----------|

|    |      |
|----|------|
| 상식 | (50) |
|----|------|

표지2면: 《불라는 소원》(노래)

3면: 《뿌리가 되자》(노래)

# 조선의 붉은 당기

—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들으며 —

박 근 원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울려퍼지는 이  
아침

푸르른 하늘가에 존엄높이 휘날리는  
당중앙청사의 붉은 당기를 우러러  
내 숭엄한 마음 안고 경례를 드리노라

때로는 광풍에 못이겨 쓰러질가봐  
때로는 성과에 만족하여 걸음 멈출가봐  
힘을 주고 타일러주며  
인생길을 손잡아 이끌어준 붉은 당기

출근길 아침에도  
퇴근길 저녁에도  
우러러바라보는 기발  
우리의 저 붉은 당기는  
력사에 하얗았던 그런 기발이 아니여라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넘고  
선군의 천만리 전선길 헤치시며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혁명의 붉은 신념으로 물들이시고  
심장의 박동으로 날려주신 기발

정녕 우리의 붉은 당기는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며  
마치와 낫과 붓을 기폭에 새겨  
조국의 하늘가에 휘날려주신  
절세위인들의 한평생이 어린 기발

머나먼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온 세상 보란듯이 날리시는 기발

조선의 붉은 당기는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애민의 심장의 불길

하여 저 붉은기는  
세월의 눈비에도  
그 어떤 광풍에도  
변색없어라  
끄떡없어라

성스러운 저 기발아래서  
일심으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  
백승의 군력을 펼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최후승리의 그날 향해 달리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 기발의 빛발에 피줄을 잇고  
혼연일체의 한 생명체로 살고있거니  
정녕 붉은 당기는  
우리의 운명  
우리 삶의 전부이기에

우리 결사로 지키며  
일편단심 자기를 바친다  
바쳐서 새긴다 붉은 기폭에  
한생의 땀땀한 애국자의 모습을

세찬 펄럭임으로 폭풍쳐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누리에 펼치고  
광휘로운 자주의 빛발로  
인류의 앞길에 정의의 등대로 빛을 뿌리는  
우리의 붉은 당기

오,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동지 추켜드시어  
세대를 이어 세월의 끝까지 빛발치리라  
더 높이 휘날리리라  
조선의 붉은 당기  
조선로동당기발이여!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애만을 가지고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것으로 될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즐기치게 관통한 녀은 애국이였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수 있는 육친적권리마저 희생시켰다.》

## 잊 었 습 니 다

송 명 근

27마력 작은 목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목선은  
섬을 떠나  
방어대 섬을 떠나 멀어져가고...

바다물이  
무릎을 가슴을 넘는줄도 모르고  
병사들 군인가족들  
두손높이 만세를 웨치며  
끌리듯 따라서고...

그만 돌아들 서라고  
옷이 젖는다고  
손을 저으시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를 모시고 가는 배는  
정에 칭칭 감기여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멀어지는것이 아쉬워  
정녕 떨어지는것이 안타까워  
걸음걸음은 그리움이 당기여  
밋을줄을 모릅니다

잔파도에도 흔들리는  
작은 목선에 의자도 없이

소탈하게 앉으신 그이  
최전방초소 찾아  
적진을 단숨에 눌러딘는  
그 용맹만도 눈곱 뜨거운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선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고  
앵두볼을 쏘여주시니  
섬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도 울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따라울고

정에 끌리어  
사랑에 끌리어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품에 안겼습니다  
최고사령관과 천만군민이  
거창한 하나되는 순간입니다

잊었습니다 전사들은  
바다물에 뛰어들다는것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천길바다도  
세찬 풍랑도  
걸어차며 나아갈 조선의 의지를  
세계앞에 펼쳐보인 순간입니다

## 8월의 조선에서...

김 형 준

온 나라를  
조국통일성전으로 부르신  
그날  
그 순간  
그이의 품엔  
태어나 여섯달된 아기가 안겨 웃고있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날 그이께서 계신 곳은  
제국주의떼무리들과 마주한 최대열점지역  
그이의 발밑엔  
어제날 격전의 파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조국앞에 닥쳐온  
전쟁의 검은구름  
자주적살이나 노예적굴종이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고  
파도를 헤치며 달리는 한척의 작은 목선  
그앞에는 바다를 뒤덮은 적함선 대집단

입빠른 군사예평가들  
예상기사도 써놓았다더라  
...전쟁은 이미 시작된것  
인류는 이제 목격하게 되리라  
불과 불이 오가는 격전을  
8월의 조선에서...

8월의 조선에서...  
세계는 보았다  
전쟁이란  
불과 불의 대결인가?  
전쟁이란  
사랑과 증오로 원썩을 이기는것!

8월의 조선에서...  
인류는 들었다  
전쟁이란  
총포성의 메아리 죽음의 비명인가  
전쟁이란  
신념의 강자들의 웃음소리!

천만대적 안중에도 없이  
그이는 따뜻한 품에 아기를 안으시고  
아기에게 심장으로 속삭이신다  
—아가야 너는 이제 살게 되리라  
대원수님들의 유훈 통일된 조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그이의 품은 아기의 온 세계  
그이의 품에 안긴 아기가  
아기가 말 못한다 말하지 말자  
아기들은 웃음과 숨결로 말을 한다  
—원수님 나는 통일된 그날에 삽니다  
원수님 품은 통일된 조선입니다

그날 아기를 품에 안으신 그이는  
통일된 조선의 모습  
그날 그이의 품에 안긴 아기는  
통일된 조선의 미래  
그날 그이께서 아기를 안으신 그 모습은  
필승의 승리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었거니

8월의 조선에서...  
세계는 보게 되리라  
그이의 품에 안겨 웃는 아기의 눈동자에  
둘로 된 조선이 비끼지 않을 그날을  
그 아기가 배울 말과 글에  
분렬민족이라는 말과 글이 없는 그날을

오, 세계는 보았다  
원수님 품에 안긴 아기의 밝은 웃음  
오, 세계는 경탄했다  
아기의 불을 쓰다듬어주시는 원수님 모습  
세계군력사에 있었더냐  
아기를 안으시고 성전으로 부르신 명령!

온 나라를  
조국통일성전으로 부르신  
그날  
그 순간  
그이의 품엔  
태어나 여섯달된 아기가 안겨 웃고있었다



# 미래의 문을 여시다 외 1편

백 하

새로 꾸린 경상유치원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아담한 음악실들과 황홀한 놀이장들  
희한하고 동심이 넘치는 방과 강당만을  
보아주시려만 오시지 않았다

비오는 날 찾아오시어  
귀여운 아이들의 볼도 만져주시고  
다정히 품어안아주시는  
그이의 걸음걸음 따르며  
원장과 교양원들은 깨달았다  
새로 꾸린 방들과 놀이장  
그것만을 보시려 오지 않으시었음을

경애하는 원수님  
의사놀이하며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시고 너무도 기특해  
자신의 팔을 걷어올리고 말씀하셔라  
—나도 한번 진찰해주시오

너무도 뜻밖의 일에 원장도 교양원들도  
어쩔줄 몰라 가슴 울렁이는데  
쫄마의사 너무 좋아서  
원수님의 팔에 손가락을 얹고  
제법 맥박을 짚어보아라

—그래 어쨌소 무슨 병입니까  
헌데 어이하랴 그이의 말씀에  
쫄마의사 그만 대답을 못 찾고 웃기만 하는데  
그 모습 귀엽스레 보시던 원수님  
—그러니 내가 건강하단 말이지

그러자 온 방안에 넘치는 웃음소리  
자기도 따라웃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  
생글생글 웃는 쫄마의사  
이보다 더 친근한 화폭 어디에 있으랴  
이보다 더 따사로운 품 어디에 있으랴

원장도 교양원들도 수행원들도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  
아,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시었어라

그 언제 이런 일 있어봤던가  
그 어느 다심한 일군도 유치원에 오면  
귀여움에 겨워 만족해할뿐  
그 누구도 열지 못했다  
아이들의 동심의 문 미래의 문

경애하는 원수님  
력기하는 아이들 모습 보시며  
장수같다고 호탕히 웃으시며  
음악신동들의 피아노연주도 들어주시며  
조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시었어라

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국의 미래가 그리도 귀중하시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한껏 여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시며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더 가까이 가까이 당겨오시었어라

## 한 모 습

어버이장군님 다녀가신 공장에서  
어버이장군님 보내주신 새 양말기계로  
《철쭉》상표 양말들이 쏟아져나올 때  
창고마다 양말들이 가득가득 쌓일 때

우리 얼마나 목메여 불러 찾았던가  
보고싶은 어버이장군님  
어서빨리 양말직장을 일떠세워  
인민들의 양말문제를 풀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아버지장군님

계시였으면 벌써 그 몇번을  
그리도 기쁘시여 찾아오시었을  
아, 우리 아버지장군님 정녕 오시였는가  
해빛같은 미소 지으시고  
공장구내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의 그리움 다 아시였는가  
쌍이고쌍인 우리의 소원 풀어주시려  
아버지장군님 찾아오신듯  
아버지장군님의 그 모습 다시 뵈옵는듯

녀자양말직장과 나란히  
새 모습으로 일떠선 남자양말직장  
양말기계사이를 걸으시며  
이제는 양말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장군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  
가고  
그리움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

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현지도하시는 기록영화를 보다가

장군님 생각이 나서 왔다고  
아버지장군님의 로고를 잊지 말고 동무들은  
양말이 더 많이 쏟아지게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던 사랑의 당부

아, 가슴후더이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여  
그리도 장군님께 충직하고  
그리도 장군님 뜻을 빛나게 꽃피우시려  
장군님의 그 자욱을 이어  
공장을 찾아주신 끝없는 충정이여

장군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꽃피우시려는  
숭고한 그 모습  
아버지장군님을 뵈고싶어  
우리 그 품을 찾으면  
장군님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김정은**원수님

오직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위업으로  
이 땅에 영원히 영원히 흐르리라

## 가 사

# 정이 넘치시는분

홍 민 식

웅심깊은 아버지사랑이던가  
다심하신 어머니의 그 정이던가  
천만군민 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아 그토록 정이 넘치시는분  
그이는 그이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원아들의 찬 손도 잡아주시고  
병사들과 팔을 끼고 사진도 찍네  
천만사랑 천만믿음 안겨주시는

아 그토록 정이 넘치시는분  
목메여 목메여 부르네 **김정은**동지

그 사랑은 인민사랑 그이의 천품  
만경대 백두산가문의 혈통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 그토록 정이 넘치시는분  
심장으로 심장으로 받들리 **김정은**동지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것은 문학창작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것은 단순히 창작상의 실무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 문학을 명실공히 주체가 선 혁명적인 문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문학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은 결코 서로 배제하는 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학에서 사상성이 없으면 예술성도 없고 예술성이 없으면 사상성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는것이 바로 문학분야에서 좌우경기 회주의를 배격하는 투쟁의 한 고리로 되며 주체문학의 풍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과제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불멸의 씨앗

리 명 근

이 강산에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높은 씨앗이 뿌려졌는지  
우리 다는 알수 없으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주시려  
이 땅에 뿌려주신  
사랑의 씨앗  
행복의 씨앗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된 이 땅  
자기의 힘과 지혜로 강국이 된 이 땅  
이제 강성부흥의 열매가  
그 씨앗에서 주렁지려니  
그날을 벌써 안고사는 이 땅

어렵던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 조국의 북변땅에  
너무도 조용히 심으신  
CNC의 첫 씨앗이  
지금은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의 열매로 주렁지지 않았던가

드넓은 대지에 심은  
키낮은사과나무가  
오늘은 얼마나 크나큰 과원의 바다가 되어  
행복의 열매를 주렁지우는가

이렇게 뿌리시였다

사회주의청춘대지로 펼쳐진 새땅에  
서해의 날바다를 밀어낸  
간석지의 드넓은 새땅에  
세세년년 오품백과 설레일 만풍의 씨앗

이렇게 뿌리시였다  
숨죽었던 공장도 다시 일떠세워  
인민의 옷감이 폭포로 쏟아질 그 씨앗도  
곳곳마다에 일떠선 새집들에  
행복의 웃음이 열매로 맺힐 그 씨앗도

인민의 행복이 열매로 주렁질  
천만씨앗을 온 강산에  
끝없이 뿌려주신 우리 아버지  
강성부흥할 조국의 만년미래를  
튼튼히 담보해주는 만복의 씨앗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따라  
끝없이 움터나고 꽃피나  
만복의 열매가 주렁질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인민은 환희에 넘쳐있거니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불멸의 씨앗은  
영원한 조국의 재부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리라  
만복의 열매를 끝없이 끝없이  
이 강산에 주렁지게 하리라!

# 불러만 보아도

장 혜 명

불러만 보아도  
한없는 정이 북받쳐오르는  
조국이며 무엇때문이더냐  
그대의 산기슭의 조약돌마저  
가슴뜨거이 안아보는것은

이 땅의 막바지골 한끝에도  
파도넘어 외진 섬 그 먼곳에도  
장군님 애국헌신의 자욱 어려있어  
스치는 바람결조차  
숨엄해지는 이 마음

아, 조국이며 그대에게 바친  
장군님사랑 너무도 눈물겹구나  
강산도 변하는 10년세월 넘도록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력사의 폭풍을 헤쳐오신 장군님

자신을 위해 남긴것 하나도 없이  
오로지 조국을 위해 고동친 거룩한 심장  
얹어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을 불태우셨나니

그 뜨거운 조국애 앞에서  
고난의 눈보라는 녹아내리고  
대지는 사회주의옥담으로 전변되었어라

산과 들은 더 푸르러 무성해지고  
땅우에는 기적같이 솟아난 공장과 거리들...

나의 할아버지세대가 살던  
100년전  
총대가 약해 국권을 빼앗겨야 했던  
그 치욕을 벗어던지고  
오늘은 천하무적을 떨치는 이 군력...

세상사람 누군들  
자기 조국을 자랑하지 않으랴만  
그대보다 정다운 곳 나는 몰라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장군님 애국의 숨결 후덥게 흐르는 땅

장군님 정답아 부르시던  
푸른 산 푸른 들  
자자손손 대를 이어 누려가라고  
장군님 뿌리신 행복의 씨앗들이  
가득차넘치는 강산

불러만 보아도 뜨거운 정 사무치는  
조국이며 그대는  
우리 장군님 한평생의 사랑  
천년이고 만년이고  
**김정일**애국주의로 빛을 뿌릴  
아, 위대한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품이여라

# 애국의 열풍

김 석 주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들을 지나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거리와 거리 마을과 마을들을 휩쓸며  
선군시대의 열풍이 일어번진다  
너 애국의 열풍이여  
창조의 노래이나 기적의 힘이나 비약의 나래  
이나  
진주보석같은 량심이나 구슬땀 쏟아붓는 헌신  
이나  
내가 지닌것 기세차도다 열렬하도다 아름답도다  
너 나래로 정다아 쓰다듬으면  
빈땅에 주단같은 풀판 푸른 숲 설레이고

드넓은 대지에 포기포기 알찬 이삭이 영글  
더라  
가없는 백과락원에 알알이 향기로운 단즙이 고  
이고  
흥겨운 노래마냥 높아가는 기계바다의 동음  
쇠물폭포의 불보라 황홀경을 펼치더라  
너 애국의 뜨거운 마음이여  
너 정신력의 거대한 분출이여  
천만의 심장심장을 불붙여  
정답고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이 땅의 모든것  
더 정답게 귀중하게 사랑스럽게 하나니  
가장 험난하고 이름없던 곳에 시대의 기념비

들을 세우고  
가장 간고한데서 영웅의 위훈을 남겨 하더라  
너 주저를 모르고 동요를 모르고 불가능을 모르  
는것이어  
애국의 열풍이어 너만이  
강하고 세찰수록 유족하고 문명한 세계를 남  
나니  
네가 스쳐가는 곳 사랑의 손길마냥 생명의 단비  
마냥  
장엄한 언제들이 솟고 장쾌한 물길이 뻗어  
가더라  
꽃들이 피고 푸른 숲 무성하고 새들은 노래하더라  
들끓으며 내달으며 솟구쳐오르며 온 나라를 휩  
쓰는  
너로 하여 세계를 향한 발걸음 더 힘차게 울리  
나니  
우리 조국을 더 빨리 더 높이  
리상과 념원이 꽃핀 승리의 언덕에 떠올리는  
열풍  
애국의 열풍이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다 품어안고 가꾸어

오신  
**김정일** 애국주의를 불씨로  
**김정은** 장군님 지펴주신 부강조국건설의 불길  
이어  
최대의 애국도 고귀한 헌신도 영생의 삶도 있  
는것  
우리는 모른다 이처럼 위대하고 숭고한 애국을  
우리는 모른다 이처럼 강대하고 무진한 사랑의  
힘을  
이 힘으로 어머니라 부르며 우리 안겨사는 조국  
의 품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정다운 옷자락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수를 놓아드리듯  
조국의 산과 들 수천줄기 강들을 가꾸어가리  
주렁진 백과 무르익는 황금산  
오곡이 물결치는 풍년대지  
행복의 노래 흐르는 락원의 강으로!  
그리하여 세계에 빛내리 백두산대국을!  
나래쳐가자 휘황한 래일로 폭풍쳐가자 애국  
의 열풍이어

## 영 원 한 메 아 리

### 김 길 성

그이의 분노에 찬 총탄은  
일본순사부장놈의 숨통을 꺾고  
침략자의 가슴에서 쏟아지는 검은 피는  
쌍이고쌍인 조선의 원한을 안고  
흘러내린다

그렇게도 포악하고 잔인하여  
오빠시로 불리우던 왜놈에게  
원한에 찬 인민들의 분노를 재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의  
조국해방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짓밟힌 겨레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며  
조국에로 나오신 김형권동지

얼마나 가슴아프셨던가  
살길을 찾아 조국을 떠나는 인민들의 모습  
얼마나 분노에 끓게 하였던가

황수원등판의 나무와 들쭉마저  
모조리 락탈해가는 일제놈들

그렇게 애국엔 불는 불이 되시고  
그렇게 원쑤에겐 무서운 철퇴가 되신 그이  
어찌 이 정상 보고만 있을수 있으랴  
감옥으로 변한 3천리강토  
철퇴에 묶인 2천만 겨레

한몫 그대로 조국땅에 활활 타번질  
반일항전의 불씨가 되고  
원쑤향해 불을 뿜는 권총은  
반일항전으로 인민들을 부르는 신호총되어  
조국땅에 첫 총성 울리였거니

오, 원쑤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날의 총성은 메아리친다  
백년속적 일제놈들 박멸전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주는  
김형권동지 울리신 그날의 총성이여!

## 《나의 어머니》를 부르신 사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12월 17일 한 예술단의 창작가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요 《나의 어머니》는 자신께서 해돋이를 보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노래이라고,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잘 몰랐지만 차차 나이들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고 귀중한것인가 하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숭엄한 감정에 잠기시어 노래 《나의 어머니》를 짓던 때를 돌이켜보시었다.

창작가들은 노래 《나의 어머니》에 깃들 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남다른 추억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눈굽이 뜨거워짐을 금할수가 없었다.

…주체49(1960)년 7월 15일 평양남산고급중학교(당시)에서는 졸업생들의 야회가 있었는데 졸업을 축하하여 그들의 어머니들도 모두 찾아왔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한동안 기쁨에 넘친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창가에 다가가시어 밤하늘을 바라보시었다. 금시라도 달려오시어 그 어느 어머니보다도 더 뜨겁게 축하해주시며 어버이수령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을 김정숙어머님.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졸업생축하모임이 시작되였다.

모임에서 졸업생들은 자기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아뢰었다.

순간 모두는 숨을 죽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노래를 부르실가 하고 그이를 우러렸다.

잠시후 조용한 야회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맑고 부드러운 음성이 울리었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학생들은 서로 마주보며 무척 귀에 익은 선률에 뜻이 깊은 가사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해전부터 자주 부르시던 노래 《나의 어머니》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하루수업이 끝난 교실의 창문가에 홀로 서서 여 저녁노을 비낀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락엽저가는 학교정원을 거니시면서 장군님 조용히 부르시던 그 노래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울려퍼졌다.

학생들모두가 그 잊지 못할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숭고한 감정에 잠겨있는데 노래는 이어졌다.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이날부터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교원, 학생들뿐아니라 전체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뜻깊은 노래로 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참으로 인상깊은 노래라고 생각하며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 어느 한순간도 잊지 못하시는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워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며 어머니의 념원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었다.

# 영생의 품

윤 민 중

1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주영림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며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밤은 퍼그나 깊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소담한 눈송이들은 며칠밤 자료실에서 밤을 지새운 이 중키의 몸매 다부진 일군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려는듯 사정없이 눈세례를 안겼다. 하지만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지 못한 주영림은 지금 얼굴에 날아와닿는 눈송이들의 부드럽고 신선한 촉감도, 은세계로 뒤덮인 거리의 새로운 모습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새 과업을 받아안은것은 한달전 일이었다. 그간 주영림이 책임진 당력사연구소의 한개 집단은 이미 오래전에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한 자료를 확보할데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새로운 자료탐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영림이가 이 문제를 안고 직접 먼 출장길을 다녀온것만 해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신통치 못했던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청사앞에서 차를 내린 주영림은 옷깃을 바로잡으며 그닥 높지 않은 층계를 단숨에 뛰어올랐다.

그가 정중한 자세로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건을 보고계시다가 주영림을 반갑게 맞아들이셨다.

《주동무, 그사이 얼굴이 몹시 축간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는것이 아닙니까?》

주영림은 자애에 넘친 그이의 음성이 한순간에 온몸에 차분히 스며드는것을 느끼며 그동안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렸다.

《집단이 사상적으로 동원되어 사업을 즐기치게 별려나간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각

상을 만드는 동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예, 렬사들의 투쟁사적에 꼭 본인의 초상을 첨부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자료보충사업을 철저히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주영림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출판물들을 통하여 몇사람의 실물자료를 새로 확보한데 대해서와 미술가들을 동원하여 투사들과의 면담도 수차 조직한데 대해서 그이께 말씀드렸다.

《그런데 무엇이 걸렸습니까?》

그이께서는 주영림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계시다가 그 어떤 문제점을 포착하신듯 조용히 물으시었다.

《다른 투사동지들의 자료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보충되었지만 아직 장천록동지만은...》

주영림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은 나도 오늘 그 문제때문에 주동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시었다.

《지금까지 고증된 모든 자료나 실기들은 혁명 투사 장천록에 대한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밖에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순간 주영림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이의 집무탁에 무드기 쌓여있는 각이한 모양과 부피의 문건들에 가 멎었다. 그것이 희생된 한 혁명가의 사적자료와 관련된 기록들과 참고서들이라는것을 알게 된 주영림은 새롭게 가슴을 치는 충격이 컸다.

《수령님께서 방금전에도 전화로 투사들의 반신상이 어떻게 되었는가고 물어오시면서 오래전에 희생된 렬사들의 반신상이 제일 걱정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뭇 무거운 걸음으로 방안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창문가에 이르시어 눈내리는 수도의 야경을 한동안 바라보시었다. 주영림은 또다시 가슴이 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혁명투사 장천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간고한 우리 혁명의 초석을 쌓아가시던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그이의 사상을 받들고 싸워온 열렬한 청년공산주의자였다. 일찌기 돈화의 어느 한 화전민부락에서 교편을 잡고 문화계몽사업을 하던 장천록은 암담하던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수령님의 사상을 접한 때부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도란에 빠진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위인은 오직 수령님 한분밖에 없다는것을 확신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관철을 위해서는 물과 불속이라도 뛰어들곤 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이런 남다른 혁명정신과 두려움을 모르는 무비의 용감성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언젠가 수령님께서서는 학교시절에 웬 녀동무와 같이 찍은 장천록의 사진을 보시다가 가볍게 웃으시며 누구인가고 물으신적이 있으셨다. 그때 장천록은 그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중학때 하숙을 정하였던 마음씨고운 주인집딸이라고 얼버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젠 남자나이 그쯤 되었으면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너그럽게 물으시었다. 그러자 장천록은 장가를 가면 혁명투쟁은 언제 하고 나라는 언제 찾겠는가, 가정이란 혁명에 백해무익한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펄쩍 뛰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크게 웃으시고나서 이름난 혁명가인 장동무가 가정문제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것이 정말 놀랍다고, 장가를 가면 혁명을 못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진정한 혁명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따듯이 일깨워주시었다.

이처럼 혁명 하나밖에 모르던 장천록은 1932년 여름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예로 확대할데 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고 두만강연안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도중 일제군경놈들과 불의에 조우하는 바람에 인적도 없는 수림속에서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들으시고 며칠간 침식을 잊으신채 못내 비통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장천록의 시신이라도 고이 물어주자고 몇사람을 그쪽에 파견하시었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그 지방 인민들에 의해 장천록의 시신이 안장된 뒤였다. 동지들은 원쑤들의 눈을 피해 남

몰래 혁명가의 시신을 감장해준 고마운 사람을 찾아 인사의 말이라도 전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의 종적은 바이 알길이 없었다. 놈들의 탄압을 피하여 그길로 급히 자리를 뜬것이 분명하였다....

혁명투사 장천록에 대하여 세상이 알고있는 자료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10년전도 20년전도 아닌 거의 반세기전의 일이었다. 그런만큼 그의 생김새를 기억하고있는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그는 가까운 친척도, 대를 이을 후대도 한명 남기지 못한채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청춘의 짧은 피를 바쳤다.

《장천록의 고향에는 사람을 띄워보았습니까?》

《예, 그의 반신상을 담당한 조각가와 함께 제가 직접 내려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를 알만 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럴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한 혁명가의 수난에 찬 과거를 두고 통분함을 금할수 없으신듯 잠시 말쑤이 없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주영림에게 그윽하고도 정깊은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결심입니까?》

주영림은 그이의 기대어린 물으심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일없습니다. 그래도 일을 맡아하는 사람에게야 무슨 궁냥이 있을게 아닙니까.》

주영림은 그이께서 조용히 힘을 주시어서야 자기의 속심을 말씀드렸다.

《저희들도 이젠 다른 출로가 없는것만큼 상상화라도 그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완성한단 말입니까?》

그이께서는 주영림의 대답이 뜻밖이신듯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시었다.

《물론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사 장천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아시고 얼굴모습도 잘 기억하실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수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것을 암시받은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령님앞에 미완성조각품을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수령님께 충직했던 장천록동지의 반신상을 잘 만들어 그이께 기쁨을 드리고 그의 영생하는 산 모습을 우리 인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이의 안팎에는 일순 근엄한 빛이 흘렀다.

주영림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수그렸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보니 자기가 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있었다는것이 통절히 느껴졌던것이다. 그는 깊은 자책에 잠겨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간이 바쁘다는 생각에 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한 자료들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천록이 국내공작을 한 경력도 있으니만큼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꼭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심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이나 살아있는 투사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 사업에 인입할 생각도 해보시오. 필요하다면 전국을 불러일으킬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주영림은 새로운 사업육과 신심에 넘쳐 그이의 집무실을 나섰다.

눈은 여전히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올해의 풍년을 예고해주는 이 겨울의 마지막눈이 아닌가싶다....

## 2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침묵이 드리운 정원의 못가를 천천히 거닐고계시였다. 그이의 무거운 발자국소리만이 아침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호수가의 숙연한 정적을 깨치였다.

주영림은 아까부터 피로운 마음으로 그이께서 자욱을 찍으시는 정원의 나무의자옆에 그린듯이 서있었다.

...그간 주영림은 자료확인사업에 보다 많은 군중을 인입할데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전국적인 판도에서 새롭게 일을 포치하고 진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나갔다. 그러던 그는 며칠전에 한가지 단서로 될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조직을 통해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량강도의 어느 한 산간마을에 해방직후부터 산림보호원(당시)으로 일해온 한 고령의 로인이 살고있는데 그가 해방전 어느해엔가 국경대안에서 일제군경놈들과 총격전을 벌리다가 희생된 한 이름모를 혁명가의 시신을 안장시켜준 일이 있다는것이였다. 주영림은 처음 그 말을 선뜻 믿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에 사람을 띄워 직접 확인한데 의하면 2년전까지 그런 경력을 가진 로인이 살고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는 년로보장을 받고

더는 일을 할수 없게 되자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따라 어느 바다가마울로 이사를 갔다는것이였다.

주영림은 모든것으로 미루어 그 로인이 혁명렬사 장천록의 시신을 감장해주고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던 그 행처미명의 로인이 아닐가 생각했다.

주영림이 이 사실을 전화로 보고드렸을 때 그이께서는 무척 기뻐하시였다.

《그것 보시오. 우리가 모르고있던 문제를 인민들이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 로인이 장천록동지의 시신을 묻어준 사람이 틀림없다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뭔가 기쁜 소식이 있을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빨리 알아보시오.》

주영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고계시는 장천록의 문제가 이제야 비로소 해결되는듯싶은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을 들먹였다. 그는 곧 자기 방에서 시외전화를 부탁하였다. 현지로 떠나기에 앞서 로인의 정확한 행처를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주영림은 전화기만 지켜보며 초조한 마음으로 응답신호를 기다렸다. 이윽고 방울을 굴리는듯 한 맑고 청정한 교환수처녀의 귀에 익은 목소리에 뒤이어 먼 고장 리당비서의 웅글은 목소리가 진동판을 흔들며 들려왔다.

《그곳에서 오래동안 산림보호원으로 있다가... 손녀를 따라 ... 옵니다. 방로인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단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리당비서 동무, 내가 이제 곧 그 로인을 만나려 동무네 고장에 내려가겠습니다.》

가슴부푼 흥분과 기쁨으로 하여 주영림의 얼굴은 일시에 활짝 밝아졌다.

《만나보다니요?... 그 로인은 지난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요?!》

주영림은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그만 아연해졌다. 그의 리력문건에 무슨 특기할만 한것이 없었는가고 몇마디 더 묻고난 주영림은 그만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그었다. 너무도 상심한 그의 기색이 눈앞에 보이리라도 하는듯 리당비서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 일이라면 그 로인의 손녀라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성희라구 2년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을 하는데 아직 처녀지요.》

《그럼 그 동무를 지금 가면 만나볼수 있습니까?》



《당장은 힘들것 같습니다. 요즘 방학이다보니 학생들을 데리고 사적지견학을 떠났습니다. 기념식수할 나무모까지 준비해가지고 갔으니 좀 늦어질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주영림은 팽팽하게 조였던 마음의 탕개가 일시에 풀린듯 맥없이 송수화기를 놓았다. 방로인의 소식을 안타까이 기다리고계실 그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마음은 더없이 무겁고 피로왔다. 하지만 팽철한 현실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사실대로 보고드리고 다른 방도를 탐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죄지은 사람처럼 어깨가 처진 걸음으로 그이앞에 나서게 된 주영림이였다.

《그래서 더는 아무도 찾아보지 못했던 말이지요?》

눈부신 아침해살이 전나무아지사이로 비쳐들었다. 정원을 천천히 거니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영림의 앞에 걸음을 멈추시였다.

《예, 아들며느리는 조국해방전쟁때 다 희생되고 지금은 그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손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출생한 스물네살의 처녀입니다.》

《그러니 그쪽에도 기대되는것이 더는 없단 말이지요. ...》

혼자소리처럼 외우신 그이께서는 또다시 생각깊은 걸음을 천천히 옮기시였다.

안개를 말끔히 걷어버린 아침해살이 정원이득 령통한 빛을 뿌렸지만 그이의 안색에 비낀 무겁고 침중한 빛까지는 가서내지 못하였다.

《그럼 그 처녀동무가 지금 혼자 있겠소?》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리에서 장만해주었던 살림집마저 갓 결혼한 프락또르운전수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합숙에서 생활하고있답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푸르른 전나무가지에서 새벽까치가 울고 참새떼들이 제세상을 만난듯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앉으며 지저귀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자연의 이 류다른 아침풍경도 안중에 없으신듯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고 조용하나 무게가 느껴지는 그이의 음성이 청신한 대기를 가르며 정원에 울려퍼졌다.

《주동무, 이왕 수고스러운 걸음을 하던바 하고는 그곳에 내려가 처녀라도 한번 만나보고 올걸 그랬습니다.》

주영림은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잠시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서있었다.

《물론 그 처녀동무는 해방후에 태어났다니까 우리 일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장천록동지의 시신을 묻어준 사람이 틀림없다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해들은것이라도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이의 절절하고도 간곡한 음성이 귀전을 울리는 순간 주영림은 금시에 머리가 핑 도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돌이킬수 없는 실책을 범하였다는 때늦은 뉘우침이 가슴을 찔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그만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차로 곧 떠나겠습니다.》

주영림은 자기의 결심을 간신히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한껏 밝아지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주동무, 그럴것없이 매일 나하고 같이 내려갑시다. 그러지 않아도 그쪽 수산사업소들에 한번 내려가보자던 참인데 마침 잘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처녀동무도 함께 만나봅시다.》

말씀은 높지 않았으나 주영림은 이미 그이께서 내리신 결심이 드팀이 없으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한채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 3

3월이라고는 하지만 북방의 날씨는 여전히 맵고 차거웠다. 음달진 계곡들에는 아직도 잔설들이 무독무독 쌓여있고 새잎을 틔우지 못한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불어오는 초저녁바람에 가볍게 상체를 흔들고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밤색봄외투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지르시고 나지막한 둔덕우에 자리잡은 리당위원회사무실 프락을 명상에 잠겨 거니시였다. 점점 심해지는 바다바람에 그이의 외투자락이 가볍게 펄럭이고 앞쪽으로 휩히 트인 바다가쪽에서는 모래불을 적시는 밤파도소리가 그칠새없이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지금 방로인의 손녀성희를 기다리시는중이였다.

자기가 일을 실천것때문에 그이께서 멀고먼 현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곤도 푸실 사이없이 이 외진 바다가마을에서 찬바람을 맞으시며 여러 시간 기다리시게 되었다는 깊은 자책으로 하여 주영림은 지금 흘러가는 한초한초가 얼마나 더디게 느

꺼지는지 몰랐다. 그럴수록 저녁무렵에 행처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떠나갔다는 처녀교원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철이 없게만 생각되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얼마후 주영림이 전화로 만났던 이곳 리당비서가 달려왔다. 주영림은 얼른 그쪽으로 몇걸음 다가가다. 성희교원의 행처를 알아보러 합숙으로 뛰어갔던 리당비서의 숨소리는 높았다.

《교편물때문에 군엘 갔단 말이지요?》

주영림이 어쭙은 목소리로 리당비서가 가지고온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이께서는 약간 놀라신 표정으로 물으시었다.

《예, 매일수업에 필요한 교육기재가 군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떠났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군에 알아보니 무거운 배낭을 지고 방금 돌아섰다고 합니다.》

리당비서가 두손을 모아잡고 송구한 마음으로 말쑤올렸다.

《방금 돌아섰다!... 여기서 읍이 몇리나 됩니까?》

《30리 잘됩니다.》

《30리라...》

그이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외우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러니 매일수업때문에 이밤에 왕복 60리를 걷는다... 그것도 처녀 혼자 몸으로... 안되겠소. 읍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소?》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결심하신듯 급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질러가는 길이 하나 있기는 한데 밤에는 대체로...》

《그럼 여기서 시간을 보낼것없이 그 동무를 마중갑시다. 리당비서동무도 타오.》

승용차는 전조등빛을 이리저리 휘둘러대며 구배심한 바다가의 험한 길을 달리였다. 앞떨어진 과일나무들이 들성들성 서있는 나지막한 등성을 몇개 넘은 차는 깎아지른듯 한 벼랑우의 외통길에 들어섰다. 벼랑밀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바다물이 출렁이고있었다.

주영림은 아니아니한 마음을 어찌지 못하며 자주 운전사쪽을 결눈질해보았다. 젊은 운전사의 코잔등에도 긴장때문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내뿜쳐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계시었다. 그이의 사색을 이어가듯 승용차는 소리없이 달리였다.

《가만, 차를 좀 천천히 모오.》

승용차가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벗어나 평퍼짐한 둔덕우에 올라섰을 때 그이께서 나직한 음성으로 이르시었다.

《주동무, 저 바다를 좀 보시오. 정말 불만 합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하시는 그이의 음성은 기쁨에 젖어있었다. 주영림은 영문을 모른채 바다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과 바다가 일직선을 이룬 희묘한 수평선 한끝에서 밤고기잡이를 하는 어선들의 불빛이 가물가물 보였다. 하늘가에도 그수를 헤아릴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우주의 성좌가 그대로 내려앉은듯 검푸른 수면우에도 별빛이 수놓아졌다. 바다... 끝간데 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가 이밤은 온통 불빛과 별의 세계로 되어버린듯싶었다!

《정말 생각많은 밤이요. 물결우에 무수히 내려앉은 저 별들을 보니 문득 지난 일이 되새겨집니다.》

그이께서는 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신채 깊은 추억에 잠기시었다....

해방된 이듬해 초가을 어느 일요일이였다. 그날 김정숙녀사께서 계시는 저택으로는 항일의 녀투사들이 많이 찾아왔다.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바쁘게 일하던 그들은 일요일 저녁의 한때나마 녀사와 함께 즐기고싶었던것이다. 뜨락에 놓여있는 수수한 나무의자우에 녀사를 모시고 나란히 앉은 녀투사들은 잊을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가지가지 회고담과 희망찬 앞날에 대한 가슴부푼 이야기로 시간이 가는줄 몰랐다.

녀사께서도 이날만은 녀투사들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시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들과 자리를 같이할 때면 곱절로 생각이 많아지곤 하시는 그이이시였다.

《아니, 저 별들을 좀 봐요!》

한 녀투사가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을 손들어 가리키자 모두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 그쪽으로 쏠렸다. 녀사께서도 조용히 눈길을 드시여 하늘가의 별을 바라보시었다.

《정말 아름다와요. 밤하늘에 온통 은모래를 뿌려놓은것 같구만요!》

녀사께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장군님께서도 며칠전에도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밤이면 산에서 싸우다 회

생된 동지들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도 저 별들을 무심히 볼수가 없구만요.»

너투사들은 조용히 울리는 너사의 생각깊은 말씀에 몽클 가슴이 젖어들어 묵묵히 하늘가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사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오지 못했나요. 이밤도 이름없는 이역의 산중에 홀로 누워있을 동지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들이 모두 생전의 뜻대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디마디 그리움에 젖은 음성은 가뜩이나 생각이 깊었던 너투사들속에서 끝내 흐느낌소리를 불러왔다. 너사께서도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시었다.

《저 별들을 바라보느라면 별들 하나하나가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각이한 잊지 못할 전우들의 모습같이만 여겨져요.》

너투사들속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다 새겨듣고계시던 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왜서인지 자신께서도 마음이 한껏 송엄해지시고 설음이 북받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물으시었다.

《어머니, 그분들의 사진은 없나요?》

《없다. 불길속을 헤치며 왜놈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다보니 기념으로 찍었던 몇장 안되는 사진들마저 이렇게저렇게 거의다 없어졌단다. 그래서 우린 전우들의 얼굴이 그리울 때면 이렇게 저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곤 한단다.》

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각깊으신 눈길로 다시금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시었다. 그럴수록 끝간데없이 펼쳐진 저 무수한 별들의 세계, 그 하나하나가 결코 무심히 볼수 없는 크고 웅대한 그 무엇으로 느껴지시었다.

(아버님께서 못 잊어하시는 저분들을 가까이에서 보실수 있게 저 하늘의 별들을 몽땅 이 땅위에 내려올수는 없을까....)

...

잊을수 없는 그날 그밤의 편속인듯 출렁이는 바다우에는 별빛이 흐르고있다. 철썹 철썹... 기슭을 치는 물소리만이 이곳이 그날의 조용한 마당가가 아니라 바람세찬 바다가라는것을 상기시켜주려는듯 가락맞게 들려왔다.

《나는 그때 그것을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동심이라는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지 만 어찌 보면 그때 바라던것이 오늘 성취되는듯

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

《주동무, 생각해보시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혁명의 시련에 찬 길우에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쳤습니까. 간고했던 항일전의 그날로부터 해방후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 우리 혁명은 이처럼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열혈청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서는 진정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야 합니다!》

순간 주영림은 가슴이 몽클 젖어들고 마음이 한껏 송엄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엇인가 말로는 다 형언할수 없는 환희롭고 벅찬 감정이 가슴을 짝 채우는것을 느꼈다.

#### 4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밤의 적막을 흔들며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성희와 마주앉아계시었다.

처녀의 작은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흥분과 감격으로 한없이 뒤설레었다. 한갓 이름도 없는 산골 녀교원에 불과한 자기를 위하여 험한 길에 마중까지 나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합숙방을 찾으시여 방안의 온기까지 가늠해보시며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겠다고 각근히 물어주셨을 때 처녀는 진정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다.

《동무는 할아버지가 어떤분이신지 잘 아오?》

마침내 처녀가 마음을 진정했을 때 그이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어린 절절한 눈길로 처녀의 기색을 눈여겨살피시었다. 처녀가 영문을 몰라 인차 대답을 못 드리자 그이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하시었다.

《동무 할아버지는 참 좋은분이였지. 해방전엔 의로운 일을 하시고도 왜놈들의 눈을 피해다니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안 그렇소?》

순간 처녀의 크고 순진한 눈이 놀라움과 환희로 밝게 빛났다.

《저의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알지. ... 그런데 늦게야 알았소. 그래서 생전에 한번 찾았어야 하는걸 이렇게 늦었소.》

그이의 인정깊은 안광에는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빛이 짙게 어러있었다.

《어서 말을 하라구. 사실은 내가 성희동무도 만나보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소.》

처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울음이 터질것만 같아서였다. 어느덧 창문쪽을 여겨보며 기억의 실마리를 헤쳐가는 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차랑차랑 고이였다.

몇분후에 성희는 지금껏 그 누구도 물어준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 혼자의 작은 가슴속에만 소중한 물어두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자정이 넘어서부터 울리기 시작한 총소리는 동터오는 새벽이 되어서야 멎었다. 처음에는 강저쪽에서, 총성이 멎을 림박에는 이쪽대안을 거쳐 수림속 깊은 곳에서 울리었다.

방로인은(그때는 물론 50안팎의 나이였다.) 그 총성으로 하여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때아닌 그 총성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다가 몇해전에 자리잡은 이 움막집마저 휩쓸어버릴것 같은 위구때문만이 아니였다. 누구인지 모를 또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 왜놈들에 의해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있다는 그 가슴쓰린 생각때문이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뜻있는 사람들이 놈들의 학정밧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있는가. 생때같은 아들 둘과 안해마저 놈들의 《토벌》에 잃고 지금 철없는 셋째자식 하나밖에 남은것이 없는 방로인은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리기만 하여도 가슴이 떨리고 온몸이 울분으로 저려들곤 하였다.

총소리가 멎은 다음에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종시 눈을 붙이지 못하던 그는 날이 휘뽀히 밝아오자 나무지계를 지고 울바자를 나섰다. 어제 아침에 사냥을 떠난 아들걱정때문인지 산에 가보지 않고는 좀처럼 불안을 가실수 없었다.

로인은 총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린 뒤산 막바지로 올랐다. 울창한 수림을 헤치며 산중깊이 들어갈수록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력연하였다. 부러진 잡관목들과 총알이 스친 바위부리, 가끔 골통이 박살난 보기만 해도 가증스러운 왜놈경찰의 시체... 통쾌한 마음으로 걸음을 다그치던 방로인은 가슴이 섹해지는 느낌과 함께 온몸이 돌처럼 굳

어져 그 자리에 못박혀버렸다. 산중턱 바위밑에 짚신감발을 한 낫모를 청년이 쓰러져있었던것이다.

로인은 창황중에 지계를 벗어놓고 청년에게로 다가갔다. 선혈이 내배인 가슴에는 아직도 온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소생할 가망은 없었다.

방로인은 절통한 심정을 금할수 없어 주먹으로 나무등걸을 내려치며 통탄했다. 얼마후에야 눈물을 거둔 방로인은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며 자기가 해야 할바를 생각했다. 비록 청년의 목숨은 건지지 못했어도 그의 시신만은 욱되게 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여 혁명투사 장천록의 시신은 양지바른 산언덕, 조국의 산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고이 안치되였다.

그때 방로인은 청년의 품속에서 나온 한장의 사진을 깊이 간수하였다. 학창시절에 웬 처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처음에는 시신과 함께 물어줄 생각이였으나 그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후에라도 청년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사진 한장도 없이 어떻게 하랴. 그에게도 혈육이 있고 일가친척들이 있을진대 누구이든 그를 찾는 사람이 나지리라. ...

조국은 해방되였다. 이 나라 유명무명의 투사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방로인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집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거라. 항일의 투사들이 피흘려 찾은 조국을 피로써 지켜야 한다.》

아들은 락동강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이듬해 봄에 손녀 성희가 유복녀로 태어났다. 폭격에 어머니마저 잃은 성희는 할아버지에게서 조국해방을 위해 청춘을 바친 항일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라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원대학으로 떠나는 성희에게 방로인은 장농속에 깊이 간수했던 한장의 사진을 내보이며 꼭진한 심정으로 당부했다.

《...이제부터 네가 이 사진을 간수해두어라. 그리고 선렬들이 흘린 피를 욱되게 하지 않겠거들랑 공부를 잘하고 나라위한 일에 자기 한몫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처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방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성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뜨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고맙소, 성희동무. 난 오늘 동무 할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고 동무를 이렇게 만나보게 된것이 무엇보다도 기쁘오!》

성희는 또다시 가슴속 걱정을 이기지 못하여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물결치는 처녀의 작은 어깨를 한동안 어루쓸어주시었다.

《그럼 성희동무가 가지고있다는 사진을 내가 좀 볼가?》

성희는 소중히 간수했던 사진을 그이께 조심스럽게 드리었다. 그이께서는 누렇게 퇴색한 한장의 자그마한 사진에서 오래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성희에게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할아버지가 물어주었다는 이 투사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고있소?》

《모릅니다.》

그이께서는 십분 그럴것이라 믿으신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무슨 예감에서인지 급히 사진의 뒤면을 번지시었다. 그러시던 **김정일**동지께서 갑자기 기쁨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주동무, 이것 좀 보시오. 장천록동지의 사진이 틀림없소! 〈1931년 돈화에서〉 이렇게 찍여있소. 수령님께서도 장천록동무가 돈화를 떠난 것이 31년이라고 하셨소. 언젠가 수령님께서 보셨다는 그 사진이 틀림없소!》

주영림은 순간 그이를 우러르며 목구멍으로 연신 뜨거운것을 삼켰을뿐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 5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높고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풍요한 가을바람에 나무잎들이 설레이고 옅고 짙은 산과 들에는 자연의 온갖 감미로운 향취가 넘치도록 풍겼다. 조국은 또 한해 자기의 값있는 노력으로 풍성한 계절을 마련한것이였다.

…해빛에 검은 차체를 번쩍이며 승용차들이 평양의 중심거리를 벗어나 대성산쪽으로 달리고있었다. 한시간전에 현지에 나와 영접준비를 모두 끝낸 주영림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려사릉초입에 서있었다. 완공된 혁명렬사릉을 오늘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보여드리게 되었다는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사뭇 들레

이기만 하였다.

승용차들이 산중턱에 멎어서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차에서 내리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수수한 회색제깃깃양복에 채양이 넓은 여름모자를 쓰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먼저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얼마동안 주위를 관망하시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려사릉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주작봉마루에는 한동안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바람도 차고 설레이던 나무들도 잊지 못할 전우들을 찾으시는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앞에 숙연히 머리를 숙인듯싶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려사들의 반신상앞에 이르시여 한동안 근엄한 표정으로 서계시었다.

간고했던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조국광복의 마지막적전을 치르던 그 나날 그리고 불비 쏟아지던 조국해방전쟁… 그 멀고 험난했던 조선혁명의 진군길위에 오로지 그이를 위해 살고 그이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잊을수 없는 전사들이 지금 생전의 그 모습으로 그이앞에 엄숙한 자세로 서있었다.

《렬사릉을 잘 세웠습니다. 반신상들이 아주 생동합니다. 하나와 같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진정 감회가 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동행한 일군들과 혁명투사들, 유가족들이 숙연한 자세로 그이의 뒤를 따랐다.

김혁, 공영, 최효일, 차광수, 리광…

수령님께서서는 대돌우에 정교하게 다듬어세운 매투사들의 반신상앞에 한참씩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들중 어느 한 사람도 무심히 지나칠수 없으신듯 가까이에서 생김새를 눈여겨 살피기도 하시고 멀리서 전반적인 인상을 보기도 하시었다.

《오중화동무구만!》

문득 그이께서 한 반신상앞에 이르시여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 동무에게는 확실히 군복보다 사복이 더 어울립니다. 큼직한 저고리를 입혀놓으니 정말 오중화답습니다. 지하투쟁도 잘하고 가정혁명화도 잘한 아까운 동무를 우리가 잃었습니다.》 하고 지난 일을 뜻깊게 회고하시었다.

마침내 그이께서는 혁명렬사 장천록의 반신상앞에 이르시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장천록이가 아니요?!》

감개무량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반신상앞

으로 성큼 다가서시었다.

《웁구만. 장천록이 웁소. 이렇게 보니 정말 장천록이 싄통하구만!》

그이께서는 진정 기쁨을 숨길수 없으신듯 환하싄 안색으로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한걸음 앞으로 나서시었다.

《이번에 찾은 장천록동지의 사진을 보고 만드싄 있습니다.》

《잘했소, 정말 잘했소.》

수령님께서는 자못 격동하싄 안색으로 반싄상앞을 몇걸음 거니시었다.

《나는 장천록의 반싄상을 제일 우려했드소.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얼굴모습을 기억해줄 친척들이라도 있는데 장천록동무는 가까운 일가친척도 없드소. 다른 사람들은 드래도 우리가 돌봐줄 후대들이라도 한둘씩 남기고 갔는데 장천록이만은 드러지 못드소! 이런 동무를 함께 데리고오지 못한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숨쉬는것 같은 장천록의 모습을 대하니 내 마음이 10년은 젊어지는것 같소.》

만시름을 잊으싄드 수령님의 안광에는 해빛같은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장천록의 사진을 지금껏 가지고있었다는 그 처녀동무는 지금 어디 있드소?》

《수령님, 성희동무를 드제 평양에 불러올렸드습니다. 저 유가족들속에...》

《그럼 내가 좀 만나봅시다.》

성희가 산뜻한 회색양복에 까만 구두를 받쳐싄고 수령님앞에 나드다. 처녀는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도 앓고 어버이수령님앞에 곹게 허리를 곹혀 인사를 올리드다.

《동무가 나를 대신해서 장천록의 시싄을 물어준 그 고마운 로인의 손녀란 말이지... 반갑소, 반갑소!》

수령님께서는 물결치는 처녀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드다. 드러시는 그이의 안광에도 드느덧 번쩍이는 물기가 보이드다.

《드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싄 후로 지금은 혼자 생활한다지. 드러면서도 투사들의 녂을 이어 맡은 일을 아주 착싄하게 하구...》

그이께서는 생각할수록 처녀가 대견하싄드 다시 곹 어깨를 다독여주시드다.

수령님께서는 친첄히 장천록의 반싄상앞으로 다

가가시드다.

《동무들, 내 오늘 이 기쁜 날에 사진 한장 찍드소. 생전의 모습드래로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보고있는 전우들을 보니 함께 사진 한장 남기고싶구만. 자, 처녀동무도 오라구.》

췌... 바람이 일드다.

투사들의 불멸의 뜻이 어리고 승엄한 사랑의 력사가 깃든 주작봉마루에 나무잎들이 설레드다. 자연도 이 감격스런 순간에 침묵을 지켜내기 드러운드...

이윽고 눈물에 젖은 사람들의 시야에는 한옆에 잇을수 없는 혁명전사를 나란히 세우고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불멸의 화폭으로 새겨드다.

주영림은 이 순간 자신도 알수 없는 크나큰 행복감에 가슴이 터질듯 부풀어오르는것을 느끼며 한옆에 조용히 서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우려드다.

두손을 가볍게 앞으로 모으시고 수령님의 모습을 우려르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정녕 이 름할수 없는 환희의 미소가 물결치고있드다.

순간 주영림은 저도 모르게 눈곱이 확 젖어드고 가슴속에서 말 못할 걱정이 불췌 솟구치는것을 드쩔수 없드다. 뿌영게 흐려지는 망막속에는 그이께서 이날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쳐오싄 로고와 은정깊은 사랑의 력사가 삼삼히 드새겨드다.

투사들의 사적자료를 밤밝혀 한장한장 번져가싄던 눈내리던 그밤의 집무실, 바람세찬 드촌마을의 그 작은 드락, 아아한 벼랑길, 파도 설레이던 바다, 별무리...

정녕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어 조국을 위해 생을 바친 투사들의 녂과 위훈은 한층한층 덧쌓이는 세월의 두께와 망각속에서도 빛을 잃지 앓고 영원한 모습으로 높이높이 솟아오르게 된것이 아닌가!

그렇다,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그이의 품은 투사들과 우리 인민모두의 영원한 삶의 품이다. 그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은 드제날의 투사들이 드러했던것처럼 오늘도 가장 빛나는 삶, 영생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여가고있는것이다! 별처럼, 우주에 영원한 별처럼!...

또다시 신선한 가을바람이 그윽한 향기를 싄고 불어왔다.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과 풍요한 들판의 온갖 훈향이 다 숨배인 드런 바람이드다....

주체74(1985).

##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인민관에 대한 찬가

—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을 읽고 —

박 덕 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예술적화폭으로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의무이다.

《조선문학》잡지 주체101(2012)년 4,5호에 실린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허문길 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단편소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초 어버이수령님께서 평양시 사창시장을 돌아보시고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토대를 위하여 지하시장을 건설하도록 하신 역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다. 작품은 이 역사적사실을 중심에 놓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의 화폭을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의 필연성을 밝히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하려면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품모,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평양시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안을 제출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시장들을 돌아본 내각부수상 홍명희의 가슴속에서는 시장에까지 달려들어 폭탄을 마구 던져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살륙하는 미제야만들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오른다. 또한 시장이 싸우는 조선의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준엄한 전쟁시기에 시장에서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고사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생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홍명희는 아래일군들의 의견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폐쇄할데 대한 안을 작성하여 수령님께 보고드린다.

문건을 보신 어버이수령님의 생각은 깊으시었

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전쟁을 이기느라 고생많은 사랑하는 인민들에 대한 생각, 인민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 진정, 깊은 내면세계는 보지 못하는 홍명희에 대한 허전한 심정...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을 직접 만나 시장형편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적기의 공습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시장으로 나가신다.

시장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물건을 팔고사는 사람들이 자기 리속만을 생각하는 장사꾼들로가 아니라 간고분투하는 이 나라 인민의 성스러운 대오에서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제 몫을 나름으로 다하고있는 사람들로 안겨온다.

꾸겨박힌 미군비행기도 찾아내고 놈들이 도망치며 쫓겨버린 철물도 수집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철제품들을 만들어 팔며 부모잃은 조카애들과 옆집아이들까지 키우는 철물가게주인도, 한팔을 잃은 몸이지만 전쟁이라고 해서 평양성사람들이 대동강송어맛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며 물고기를 잡아 팔며 번 돈을 모두 조국보위후원회에 바치고 있는 송어집로인도, 아들과 두 며느리를 미제놈들에게 다 잃었지만 나라에 부담을 끼칠수 없다며 손자애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키워가고있는 떡장사할머니도...

전쟁은 가렬했지만 인민은 언제나 우리 수령님의 곁에, 조국을 위한 길에 굳건히 서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수령님에 대한 신뢰와 충정의 마음으로 불타고있었다. 이러한 인민을 마음속에 굳게 안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랑과 증오로 압축된 두 극단의 감정》을 쇠물처럼 끓이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장에서 만나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며 전쟁승리를 위해 일떠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사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였고 《평시에는 비단 결갈다가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꺼이 자기를 바쳐 억척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민, 우리 민족... 저 슬기로운 인민의 충직한 아들로 평생을 살아가실 신성한 맹약》을 더욱 굳게 다지시며 사랑하는 인민을 위한 결정과 법령들을 구상하신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원썬들을 철저히 격멸하고 한시바빠 전쟁승리를 앞당겨오시리라 마음다지신다.

시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은 훌륭한 인민이라고, 《마땅히 위대하다는 말로 불리워져야》 할 인민이라고 하시며 홍명희에게 시장을 안전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신다.

시장을 시외로 옮기자는 안, 밤에만 시장을 운영하자는 안, 대피호를 여러개 파주자는 안 등 여러가지 안이 나왔으나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하여 결심을 못 내리고있었다.

이러한 실패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장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긴급과제》이라고 하시며 《땅속에 굴을 널직이 파서》 《어떤 공습에도 끄떡없는 시장을 지하에 만들어》 주자고 단호히 말씀하신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단이었다. 준엄한 전시환경에서 지하시장을 건설한다는것은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 인민의 생명과 생활터전을 지켜주는 일》이었고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조선사람의 넋을 지켜주는 문제》였기에 이런 담대한 결심을 내리시었던것이다.

진정 우리 수령님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길속에서도 우리 인민을 숭고한 인간으로 높뛰는 위대한 심장에 품어안아 지켜주신 인민의 친아버지,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단편소설에서는 《력사의 기슭에서 수난받던 인민을 넓으신 한품에 안아 피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기를 돋구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음을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우리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격이 높게 창조하고있다.

인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세계에 따라서지 못하는 홍명희를 두고 깊은 사색을 펼쳐가시는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가 그러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폐쇄할데 대한 안을 수령님께 보고드리는 홍명희.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데는 적기의 공습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전쟁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리속만을 생각하는 한갓 장사군들로

만 보는 관점이 깔려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책안에 깔려있는 홍명희의 마음속 생각을 헤아려보시고 전쟁으로 상처입은 인민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민의 심장속에서 끓고있는 진정을 보지 못하는 그를 두고 허전한 마음을 느끼신다.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나라와 민족, 인민을 사랑하면서도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 력사는 인민에 의해 창조된다는 의식이 부족하기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 언제나 《장군님을 따르자, 생각도 실천도 장군님을 닮자.》는 생각을 생활의 좌우명으로 안고살면서도 실천행동에서는 수령님을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홍명희에게 바로 이것을 깨우쳐주시기 위하여 시장으로 나가신다.

홍명희는 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에서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크나큰 심장,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더욱 깊이 깨닫는다. 또한 자기가 전쟁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자기 리속만을 차리는 장사군들로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운 마음, 숭고한 넋을 지닌 사람들인가를 느낀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 보았으며 자기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며 《자기라는 인간의 키가 시장에서 보낸 몇 시간동안에 무척 커졌다는》 생각을 한다.

이처럼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심장, 조국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인데 이 소설의 성과가 있다.

작품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적인 관계를 감동깊게 펼쳐보이고 있다.

보잘것없지만 자기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철제품들을 만들어 팔며 부모없는 조카애들과 옆집아이들까지 키우는 철물가게주인, 이 전쟁에서 너도나도 한몫을 하는데 자기도 자기 몫을 해야 한다며 한팔을 잃은 불구의 몸이지만 물고기를 잡아 팔며 집에서는 일절 물고기도 쌀밥도 못 먹게 하고 아굴타굴 모은 돈을 다달이 조국보위위원회에 바치며 그제 우리 아들딸들이 쓰는 총알이 되고 수류탄이 된다고 궁지와 자부를 느끼는 승어집주인, 그들은 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아들딸들과 심장의 고통을 같이하면서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이 나라 인민들중의 한사람인것이다.

떡장사할머니의 형상은 더욱 가슴을 뚫게 한다. 두 머느리를 폭격에 잃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전선에서 희생된 아픔을 가슴에 안고있는 할머니,

하지만 조카애들을 잘 키워달라는, 《김장군백성들은 불속에서도 무럭무럭 번성해야 한다》는 영웅아들의 부탁을 지켜 늙은 몸이지만 나라의 부담을 덜려고 손자애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키워가는 할머니.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우리 수령님 계시어 승리의 그날, 전쟁전보다 더 잘사는 좋은 날이 꼭 오고야만다는 신심이 드팀없이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떡까지 사주신분이 바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알고는 《구첩스러운 늙은이 힘한 손으로 만든 장마당음식을 어이 장군님께 올린단 말》인가고, 백성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그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아 정성껏 알알이 고른 찹쌀과 팥을 수령님께 드려달라고 하는 할머니의 고결한 마음.

바로 이런 인민이, 이런 불굴의 정신력과 고결한 녀를 지닌 인민이 우리 수령님의 곁에, 그이의 위대한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런 《훌륭한 인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최고사령관이구 부수상이겠》는가하고 하시며 인민들을 위해 전쟁의 불길속에서 지하시장과 지하극장을 건설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줄 그날을 구상하시고 원썩 미제를 쳐부실 전법을 무르익히시는 우리 수령님.

이처럼 작품은 뜨거운 정과 의리로 맺어진 우리 수령님과 인민들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진실하고도 감명깊게 그려냄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작품은 또한 구성조직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잘 보여줄수 있도록 짜나가고있다.

작품에는 시장문제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을 건설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을듯 한 두 선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모를 보여주는가. 여기에 이 소설의 구성의 특성이 있다.

홍명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좁고 습기가 찬 방에서 집무를 보시는것이 안타까와 속을 썩인다. 정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국가군대들을 대상하여 혁명전쟁을 령도하시는 령장을 모시기에는 너무도 수수한 방》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집무실을 따로 꾸리기 위해 사창시장 맞은편등성이에 자리를 잡고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령님께서 《지금 전선에서는 한그람의 폭약, 한명의 폭파수도 귀》하다고 하시며 단번에 엄하게 눌러놓으신다.

하여 홍명희는 민족보위상과 함께 수령님께서

모르게 공사를 추진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하시장건설위치로 홍명희가 생각하고있던 사창시장 맞은편등성이를 잡아주신다.

홍명희가 놀라며 시장위치를 따로 잡아보겠다고 하자 수령님께서 《우리 평양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뭘 아끼고 꺼릴게 있》는가하고 하시며 시장위치를 그곳에 확정해주시다.

자신의 집무실을 위해서는 자그마한것도 허용치 않으시면서도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이였다.

시장위치를 확정하시고 《이 새벽에 우린 또 한가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의논을 하였》다고 기뻐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홍명희는 이렇게 마음속 격정을 터친다.

《참으로 이분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반만년 이 나라 력사에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곳에서 이처럼 결출한 영걸을 보았더냐.》

작품에서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문제와 시장문제를 하나로 결합시켜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에서는 또한 자그마한 세부 하나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데로 집중시켜 형상의 폭을 넓히고있다.

자신께서는 지하의 습기찬 방에서 집무를 보시면서도 나이많은 홍명희의 건강을 녀려하시며 바깥에도 홍명희가 거처할 방을 한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세부, 평양을 떠나 딸네 집으로 간 떡장사할머니를 찾아 자신께서 직접 차를 타고 떠나시는 세부 등이 그러하다. 작품에서는 이 모든 세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지관, 인민관을 보여주는데로 집중되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묘사에서도 철학적이면서도 민족적인 맛이 나는 어휘를 적극 살려쓰고있다.

이처럼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들의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혁명총진군대오의 진군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련 시

## 백두산을 안고살자(2)

### 장군님 탄생하신 고향산천

최 정 용

그리움에  
나날이 더해지는 간절한 그리움에  
마음 앞세우며 달려온  
장군님 탄생하신 고향산천

정겨워라  
천고의 밀림에서 풍겨오는 청신한 숲향기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장군님  
어서 오라 반기시는 따뜻한 정인듯

정렬한 열병대오의 서슬푸른 총검마냥  
백두의 하늘을 떠받든  
이깔이며 가문비 청신한 숲 마주하니  
북받쳐오르는 숭엄한 격정

총포성 울리던 항일의 옛 전장  
여기서 혁명의 숭고한 뜻을 키우신  
불세출의령장 **김정일** 장군님  
우리 혁명을 이끄시어  
선군조선의 기상 누리에 펼치셨거니

하많은 사연 전해주는 소백수 맑은 물은  
이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고  
거연한 소백산 간백산 사자봉...  
내 눈길 잡고 놓을줄 몰라라

우리 장군님  
한생토록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리도 자주 오르신 백두산  
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나는 맞이했노라

붉은 노을 기폭처럼 펼치며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영원한 태양 우리 장군님  
숭엄한 모습처럼 안겨오는  
장쾌한 백두산의 해돋이를

거세찬 백두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백두산정에서 이 몸의 피는 끓는다  
받아다오 혁명의 성지  
백두령장의 고향산천이여  
또 한분의 천출명장 **김정은** 장군님을 받들어  
한생 변함없이 걸어갈 전사의 맹세를

떠나 순간도 못살  
백두령장의 고향산천  
주체의 혁명위업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후회없이 곧바로 걸어갈 혁명전사의  
엄숙한 맹세를 아, 받아다오  
장군님 탄생하신 고향산천이여!

### 고향집 뜨락에 서

주 명 옥

소백수물소리 들려오는 뜨락에 서니  
생각은 깊어깊어

방안에 깔린 노전을 보아도  
내 사는 따스한 보금자리 어려오는

책상우에 놓인 쌍안경을 보아도  
강성할 오늘을 바라보신 장군님모습 어려오는

고향집 고향집은

내 조국에 높이 솟은 집

투사들 깎아드린 권총을 보아도  
조국수호의 준엄한 최전연의 산발 떠오르는

어린시절 입으셨던 옷을 그려만 보아도  
선군세월의 그 땀젖은 야전복 어려오는

고향집 고향집은  
인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은 집

쭉무이 작은 나무지도를 보아도  
눈비속을 헤쳐오신 그 강행군길 한눈에 안겨  
오는

기다림에 단길줄 모르는 저 문을 보아도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들려오는

고향집 고향집은  
영생의 세월속에 높이 솟은 집

이갈숲 짙은 향기 호홉해도  
맑고 정갈한 박우물을 보아도

우리 집 우리 삶 우리 미래 위해 바쳐오신  
현신의 한평생 끝없이 끝없이 젖어오는

아 아, 고향집 백두밀영고향집은  
그리움이 끝없는 내 나라의 영원한 집

## 백두산은 어디에나 있다

### 조 광 철

나는 보았다 백두산에서  
마치 그 무슨 진귀한 보물을 찾듯  
주먹만 한 부석을 소중히 집어들던  
나어린 중학생의 기쁨넘친 그 모습을

천지호반에 출렁이는 물을  
두손에 담아 마시고마시며  
군용물통에 가득 채운 최전연병사  
그길로 단숨에 남해까지 달려나갈  
용맹스런 기상이 어린 구리빛얼굴을

동해지구 공업도시에서 왔다는  
꽃을 사랑하는 비날론치녀  
그는 한떨기 만병초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누나  
물어보지 않은들 누가 모르랴  
비날론 천필에 수놓고싶어하는 그 마음인줄을

이렇게 그들이 안고 가는것은  
다만 돌과 물과 꽃만이던가  
아니다 그들이 가슴에 품고가는것은  
백두산 백두산

그렇다 백두산이다  
이 나라 조종의 산이 혁명의 성산이

그들의 심장속에 떠받들려 가거니  
혁명가요가 대렬합창으로 울리는 교정에  
백두산총대가 숲을 이룬 전호가에  
함남의 불길 드높은 공장들에  
또한 나의 달아오른 시속에

맑은 공기 세찬 바람  
녹지 않은 흰눈  
이글거리며 솟는 아침해돋이  
소백수의 물소리 구호나무 글발  
좌 설레이는 태고의 밀림과 모닥불자리...

어디든 그 어디든 안고 가라  
새삶이 약동하는 전투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갈  
신념이라면 백두산악같은 굳셈을  
량심이라면 천지의 물과 같은 깨끗함  
열정이라면 해돋이같은 뜨거움을

오, 백두산 백두산  
그래서 우리가 내 조국을 말할 때  
백두산대국이라고 긍지높이 웨치는것 아니라  
백두산은 어디에나 있다!...

## 우리는 기발을 들었다

### 황 성 하

한낮에 숨소리 높던 백두밀림이  
밤이슬 머금고 잠자는 새벽 3시  
대오앞에 붉은기를 날리며  
백두산을 향하여 우리는 떠났다

숨소리 높던 밀림이 끝나는 산정  
백두의 거센 바람에 나무조차 없구나  
산자락 부석을 밟으며 오르는 대오앞에  
동천하늘이 들리자

어둠을 짓태워버리며 피어오르는 노을의 바다

순간 그 노을의 바다위에 솟아오르는 불덩이  
삼라만상이 어둠에 덮인 천하를 밝히며  
솟아오르는 해돋이  
강토3천리를 거대한 붉은 기폭으로 덮는  
백두의 해돋이여

장엄하여라  
성스러운 백두의 해돋이여  
여기서 련련히 뻗어간 산들과 수림들  
붉은 기폭으로 휩싸안으며 밝아오는 새날이여  
우리의 기발도 그 기폭의 한 부분처럼 불타는가

아, 혁명의 성산 백두의 해돋이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가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장군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걱정이며  
그이 뿌리시는 눈부신 광채에  
몸과 마음을 다 맡긴 한없는 행운이여

구름조차 붉게 물들어 흘러가는  
백두의 산정 장군봉에 올라  
붉은기의 대오에 주시는  
태양의 축복을 우리 한가슴에 안노라  
백두의 해돋이가 빛내가는  
이 세상 한끝까지 바라보는 가슴벅찬 환희여!

우리 그 해돋이아래  
기발을 더 높이 들었다  
절세의 위인들이 물려준 백두산대국을  
세계의 한복판으로 당당히 이끌어가시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모셔갈 신념의 기발을  
우리는 백두산에서 더 높이 들었다

## 나는 백두산에서 새날을 맞는다

### 리 영 일

날마다 들판에 밝아오던 새날  
포전에서 이슬차며 맞던 그 아침을  
내 지금 답사대오 기발을 펴려이며  
여기 백두산에서 맞이하노니

하늘에 닿은 메부리들엔 려명이 불타고  
천지의 푸른 물도 노을을 담고 일렁이는데  
누리에 밝은 해살 뿌리며 솟아오르는  
아, 백두의 태양

고향별을 찾아오시고 또 오시던  
우리 수령님을 뵈옵는듯  
아버이장군님 뵈옵는듯  
가슴은 걱정으로 벅차올라라

내 고향 포전길에 새기신 불멸의 자욱들은  
이 백두산을 내려 찍으신것 아닌가  
무릎을 마주하고 가르쳐주시던 주체농법도  
이 백두산에서 안고오신것 아니던가

파도쳐설레이는 저 이깎숲에서 보여온다  
수령님 아지수 세여보시던 푸른 벼바다가  
천지의 쉬임없는 출렁임에서 들려온다

장군님 열어주신 새 물길의 물소리가

답사배낭 메워주며 마음들을 따라세우던  
고향별 정든 사람들 있는 그곳은  
수령님의 산 장군님의 산 이 백두산에서  
제일 가깝구나 한없이 귀중하구나

감격과 환희에 젖는 백두산의 이 아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활짝 꽃피울  
이 나라 농민의 신념이 더욱 억세여진다

내 가꾸는 포전의 이랑이랑을 백두산에 이으며  
해마다 로적가리 높이 쌓아 백두산을 받들리라  
한생을 들과 함께 애국의 넋을 불태우며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가리라

온몸에 가득 뿌려지는 백두산의 해빛을  
아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으로 받아안  
으며

우리의 **김정은**동지 쌀로 받들 굳은 맹세 안고  
아, 나는 백두산에서 새날을 맞는다

# CNC 그 부름은

곽 명 철

CNC!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너의 이름 부를 때면  
아버이장군님의 모습 먼저 떠오른다

CNC!

우리 식 기계로 우리의 국력을 키워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세월을 앞당겨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체공업의 만년재부

얼마나 간고했더냐  
이 땅에 겹쳐드는 자연의 횡포  
때를 만난듯 달려드는 원썩들의 고립책동  
그때 우리 장군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내리신 대용단

우리 다 몰랐어라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 들으시며

우리 장군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 그 노래의 경쾌한 선율에  
행복한 삶의 운명을 싣고  
강성국가 그날 봄들판을 가듯  
얼마나 흥겨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던가

CNC!

나날이 비약하는 내 나라  
기계소리 노래의 선율이 되고  
로동이 흥겨운 춤이 된 우리의 일터  
내 조국땅 그 어디나 펼쳐져  
우리의 국력은 얼마나 강대해졌고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굳건해졌던가

오, CNC!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못 잊어 추억하시는  
우리 장군님 어렵고 간고한 나날에  
사랑의 한품에 안아 애지중지 가꾸어오신  
애국 애족 애민의 꽃이라 부르고싶구나

## 가을날의 속삭임

성 연 일

해는 벌써 기울어  
저녁노을은 타는듯 붉은데  
노을빛속에 굶니는 벼바다가 좋아  
나는 너의 복판에 취한듯 서있다

탐스런 이삭들을  
무겁게 띄우고  
황금웃자락을 훨훨 날리는 들  
오늘도 한껏 쏟아진 가을별에  
탐스럽게 낱알을 익혀낸 너

종구나

높이 솟은 로적가리 눈앞에 그려주며  
네 이렇듯 알찬 낱알을 떠올리고있는것이  
너를 한껏 살찌운 호숫함에 겨워  
내 이렇듯 어린애마냥 웃고 선것이

아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첫해의 농사여서  
우리 얼마나 류다른 큰 정을 너에게 쏟았더냐  
빈포기 있을세라 모를 쫓으며  
돌피 한대 있을세라 김을 잡으며

좌좌 설레이는 벼이삭들아  
새벽별 이고 모내기하던 처녀들의 노래  
지금도 너희들이 읊조리는것 같구나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도 제초기 밀며  
모진 폭우도 이겨내던 그 마음  
지금도 벼이삭우에 실려있는것 같구나

아, 이 땅에 바치는 우리 마음을 알아  
포전마다 탐스런 이삭을 펼친 들이여  
너는 나에게 있어 정든 살붙이  
더운 땀 바쳐 진함 없을 애국의 포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우리 농장의 농사작황을 보고드릴  
그날을 그려만 봐도 그려만 봐도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이 가슴

씩씩 흥에 겨워  
논두렁에 앉아 낫날을 갈며  
알차게 영근 이삭 바라보니  
조국앞에 비취보일 나의 모습이  
너의 이삭 너의 포전에 어려있어  
아, 마음속에 너를 쓰다듬는다

## 군중문학창작사업에 깃든 위인의 손길을 더듬어

오늘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온 나라에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심장으로 칭송하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왕성하게 창작되고있다.

우리 문학사에는 작가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문학창작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군중문학창작의 전환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도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문학창작의 새로운 고조기를 마련하는 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군중문학소조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적열정을 비상히 앙양시키는것이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중등의무교육을 받은 새 세대들이 생산현장에 많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문학작품창작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군중문학작품도 많이 창작되였다.

군중문학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해마다 수많은 군중문학작품들이 투고되고있었으나 작품들을 지도할수 있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지 못했기때문에 대중의 창작의욕을 높여주지 못하였고 재능있는 문학통신원들을 찾아내어 키워주는 사업도 옹골치게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군중문학창작사업의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6(1977)년 6월 4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군중문학창작지도체계를 새롭게 세워주시였으며 문학창작사업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우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 있던 신인지도부를 군중문학창작지도부로 이름을 고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작가동맹 각 도위원회안에 군중문학작품을 지도하는 기구를 새로 내오고 여기에 능력있는 작가, 시인들을 망라시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설을 어떻게 쓰며 시, 가사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문학작품창작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책들을 많이 출판하여 문학작품창작을 지향하는 청소년학

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과 창작강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할데 대한 문제, 《청년문학》잡지와 《아동문학》잡지의 폐지수를 늘이고 《평양신문》을 비롯한 각 도일보들에서 군중문학작품을 자주 특집하여 내보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군중문학창작지도체계를 세워주시고 군중문학창작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주체66(1977)년 6월 4일은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군중문학에 대한 새로운 지도체계가 세워지고 근로자들의 작품창작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됨으로써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더 많이 창작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중문학창작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들에 대하여서는 평가도 잘하고 널리 발표하도록 하시여 근로자들의 창작적열의를 더욱 높여주도록 하시였다.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6월4일 문학상은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믿음의 표시였다.

이 6월4일문학상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세세년년 전하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첫 6월4일문학상금메달을 수여받은 문학통신원들 가운데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깨끗한 충정을 지니고 한자한자 다듬어쓴 시초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를 남겨놓은채 23살의 꽃나이로 생을 마친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처녀선반공 주옥양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옥양이 쓴 시초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를 보시고 높은 사상예술



# 비료와 애국

최명길

돌이라면  
모래라면  
집이 되고 탑이 되어  
이 땅우에 우뚝 솟아 길이 남으련만

옥이라면  
구슬이라면  
세월의 눈비에도 녹지 않고  
길이 남아 빛을 뿌리련만

땅에 묻혀  
백옥같은 빛을 잃고  
그 모습 녹고녹아  
그 자취마저 없어지는 너 비료

나는  
그 비료를 위해

기빠서 웃고웃는  
비료공장 로동계급

비료여  
너보다 귀한것 그 어디 있으랴  
옥같은 모습 땅에 묻혀  
그 모습마저 없어지건만

비료여 너는  
비료는 곧 쌀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 마음속에  
애국의 씨앗으로 빛나고있거니

비료여 너는  
홍남의 로동계급이  
땀으로 빛내는 애국의 백옥  
나는 그 백옥을 위해 사는 홍남의 로동계급

성과 시적감정의 진실성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평범한 로동자의 이름으로 출판된 시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는 시에 담겨진 주인공의 고결한 충정과 시대적지향, 청신한 향기와 질은 정서로 하여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옥양의 생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지녔던 고결한 녀은 시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와 함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빛내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었으며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었다.

이밖에도 6월4일문학상을 수여받은 많은 작품들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을 노래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지향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는 성과작들이다.

진정 군중문학창작사업에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는 년대를 이어오며 더욱 심화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왕성하게 창작되어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

있게 추동하고있는 군중문학통신원들의 작품들과 그 생활력을 높이 평가하시여 주체71(1982)년 11월 15일에는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이때로부터 군중문학창작사업은 더 높은 단계에 오르게 되었으며 찬란한 전성기를 펼쳐가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인 군중문학예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년대기들마다에 기울여오신 끊임없는 령도는 주체문학예술발전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오늘도 군중문학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군중문학예술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최명길



《훌륭한 인간입니다. 이 동무의 영웅적소행을 잊지 말며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삶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희생된 동무의 뒤편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합시다.

2012. 2. 1

김정은》

주체101(2012)년 1월 15일 아침.

박태선은 소대에 갓 배치되어온 제대군인 지동규와 함께 막장으로 올라갔다. 압축기의 첫 바람을 쓰자면 먼저 올라가 준비작업을 해야 하였다.

막장에 도착해보니 전교대에서 발파한 천공구멍들이 듬성듬성 보이고 은빛을 뿌리는 수십톤의 광석이 보기 좋게 내려앉은것이 보였다. 천반을 눈여겨보니 금이 간 광석이 몇개 붙어있었다.

《자, 락석처리를 하오, 감시는 내가 할테니.》

발파에 올린 돌들을 깨갓이 떨구고 착암기를 돌리는것은 막장작업에서 어길수 없는 규정이다. 이때는 신입생이 지레대로 락석을 떼내고 기능공이 불을 비쳐주면서 감시한다. 그래야 사고를 막을수 있기때문이다. 락석을 말끔히 제거했다고 생각하며 둘러보던 박태선은 마지막으로 우에 매달린 망작만 한 돌이 금이 간 상태로 붙어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이것만 떨구면 되겠소. 자, 찌르라구.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래...그래... 가만!》

순간 박태선은 등골로 서늘한것이 쭉 내뻗치는 감각을 느끼며 굳어졌다. 지레대를 막아넣은 반대편에서 이슬질을 하기 시작한것이다. 천반이 움직

이는 서슬에 잔돌들이 떨어져내리는 이슬질은 봉락을 예고하고있었다.

그가 안전등을 바싹 들이대는 순간 커다란 돌이 아가리를 째 벌리고있는것이 보였다. 순간!... 그야말로 1~2초의 순간!

박태선은 《동규! 피하라—》하고 웨치며 지동규를 힘껏 밀쳐버렸다.

그 찰나 쿵—하는 웅골은 소리를 내며 석톤이상되는 큰 돌이 바닥에 떨어져 경사진쪽으로 미끄러져내려갔다. 박태선이 밀치는 바람에 저쪽으로 허공 나가넘어졌던 지동규가 정신을 차리고 박태선을 찾았다.

《태선동지! 태선동지!》

바닥에 나딩구는 안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쓰러진 박태선이 보였다. 그러로 엉금엉금 기여간 지동규는 박태선을 불안고 마구 흔들며 목메여 불렀다.

《태선동지! 정신차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태선동지!— 아!—》

피타는 울부짓음이 막장벽을 즈렁즈렁 울리었다.

박태선은 이렇게 잤다.

너성미가 은근히 풍기는 가름한 얼굴, 약간 두드러진 광대뼈와 작을사 한 두눈에는 인정미와 착한 마음이 깃들어보인다. 빠른 하판과 뽕족한 턱은 예민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지긋은 고집이 엿보였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잠든듯이 누워있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그리도 평범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영웅적인 행동을 하였다.

영웅적인 사나이 박태선—그는 이 나라의 평범한 광부들중의 한사람이었다.

## 참된 사랑은 심장속에

밤교대인차는 경쾌한 속도로 막장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금골광산 영광쟁 채광공인 박태선은 아까부터 흔들리는 인차에 몸을 맡긴채 먹물같이 진한 어둠속을 지그시 쏘아보고있었다. 전차수전기에서 뿌지직—하고 타는 눈부신 섬광에 들쭉날쭉한 바위들과 배관들, 까뻬선들이 주마등처럼 언뜻언뜻 지나쳐보인다.

인차는 벌써 30분동안이나 달리고있었지만 그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졸곤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해있었다. 그 동무의 부모들은 나의 진정을 왜 그리도 몰라줄까?... 부모들은 그렇다쳐도 정순동무 본인은 또 왜 날 못미더워하는가...

인차가 7.1광산역을 떠날즈음에 누군가 열어놓은 문으로 휙—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정신을 차린 박태선은 그를 돌아보았다.

《아이, 겨우 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처녀가 아닌가. 제대되어 광산에 배치된지 얼마 안되던 박태선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허, 꽤 날쌔구만.》

태선이 자리를 내어주며 말하자 처녀가 생긋 웃었다.

처녀는 마치 날렵한 동작의 비결이 단단한 두다리에도 있는듯 자그마한 손으로 무르팍을 톱톱 두드려보였다. 그것을 보는 태선의 눈앞에 한쪽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한 처녀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이름은 김정순, 직업은 금골피복공장 재봉공, 나이는 28살... 어릴 때 원인모르게 앓은 병으로 하여 한쪽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처녀... 더불어 낮에 처녀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태선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정순의 어머니 림옥련이 나왔다.

《임자, 또 왔나?》

《어머니! 전 제대군인입니다. 목표가 일단 정해지면 오직 점령만 하는것이 병사의 기질입니다.》

《응... 그래.》

림옥련은 미심쩍은 눈길로 박태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열흘전부터 박태선은 이 집에 두번씩이나 찾아왔다가 문전거절을 당했었다.

박태선이 김정순이라는 처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광산에 배치받아온 제대군인들과 함께 합숙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직후였다.

그날 낮교대작업을 위해 인차장에 가는데 우승환소대장이 배낭을 손에 들고 뒤에서 찾았다.

《같이 가지요.》

얼굴이 퉁퉁무례한 소대장이 정이 가는 웃음을 띄우며 다가왔다.

태선은 배낭을 같이 들며 물었다.

《이건 뭘니까?》

《저 처녀가 또 우리 소대에 지원물자를 가져왔구만.》

소대장이 가리키는쪽을 돌아보니 3선광장으로 가는 벨트콘베아옆에 웬 처녀가 오도카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누굽니까?》

《음, 나도 잘 모르는 처녀요. 무슨 병을 앓았는지 한쪽다리를 잘 쓰지 못하더군. 쉽지 않은 처녀요.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지원물자를 만들어가지고 오다니... 전번에 왔다가 다음에 저 처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본다는게 일이 바쁘다구 종내 짬을 못냈구만.》

소대장의 말을 들으며 박태선은 그 처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보통키에 가름한 얼굴, 약간 도드라진 눈두덩 밑의 영민하게 반짝이는 작을사 한 두 눈에 착실한 마음이 엿보였다. 그러면서도 꼭 다문 도톰한 입술과 좁은 하판에는 은근한 고집이 비껴있었다.

박태선은 그후 인차에 오르면서도 왜서인지 자꾸만 그 처녀쪽을 돌아보게 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이틀후 박태선은 휴식날이라 동무네 집으로 가고있었다. 금골3동쪽으로 꺾어드는 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급한 걸음을 옮기는데 앞에서 웬 처녀가 다리를 절며 몹시 부자연스럽게 걸어가는것이 보였다. 그를 지나치며 앞서던 태선은 너리를 때리는 예감에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아!—》하는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처녀가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는것이 보이었다. 그는 급히 다가갔다.

《동무! 어데 다친데 없소?》

처녀를 부축하던 태선은 놀랐다. 그는 다름아닌 지원물자를 가지고왔던 그 처녀가 아닌가...

《처녀동무! 일없소? 집이 어딘지 함께 갑시다.

자, 일어나오.》

박태선은 처녀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도리머리를 젖는 처녀의 가름한 얼굴에 그 어떤 경계심이 비쳤다. 처녀의 깔끔한 눈빛에 박태선은 일순 당황해지기도 했다. 처녀는 폐절을 지키면서 그에게 가볍게 머리숙여보이고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태선은 더 따라갈념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길에는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는데 처녀는 또 미끄러졌는지 약간 비칠거리며 조심조심 걸어갔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박태선은 처녀가 무안해할까봐 다시 찾지는 못하고 그의 뒤를 따르면서 집에 무사히 들어가는것을 보고서야 돌아섰다.

목적으로 천천히 걸음 옮기는 박태선의 눈앞에는 자꾸만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심조심 옮기던 불편한 다리, 넘어져서 아픈 다리를 주무르던 고통스러운 얼굴... 남의 일같지 않았다. 이젠 시집갈 나이도 된것 같은데 저 몸으로 어떻게?... 저또래의 처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달콤한 행복을 누리겠는데... 저 처녀도 해빛밝은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데 얼굴에 그늘이 저서야... 아니야, 그럴수 없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박태선은 끝없는 생각속에 헤매이느라 동무네 집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섰다.

다음날 그는 결심품고 김정순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어머니인 림옥련의 태도는 예상외로 쌀쌀했다.

《자네의 마음은 고마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구. 결혼이라는게 아이들 장난이 아닐세. 또 생활이라는건 화려한 꽃밭만 아니구... 임자두 부모형제들이 있겠는데 토론을 해봐야지?》

박태선이 가슴속을 터놓으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등을 떠밀어 대문밖으로 내보냈다...

인차는 드디어 막장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량심의 목소리와 자문자답하고있었다.

(태선이! 솔직하게 말해보라. 네가 김정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어떤 사심도 없는가?)

(그렇다. 진정이다. 나는 그의 가슴속 깊이애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사랑의 감정을 보았다. 우리 광산에 대한 사랑, 동지들과 집단에 대한 헌신... 불편한 몸인 그에게 막장지원물자를 마련하라고 누구도 파업을 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랑을 가식없이 바치고있다. 바다물이 짠

가, 싱거운가는 한모금이면 알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처녀는 불편한 몸이다. 영예군인도 아니다. 앞으로의 고생은 모두 너에게 실리게 된다. 즉흥적인 감정에 뜨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라.)

(그렇다. 나는 그 처녀가 평범한 처녀이기때문에 더 원심이 간다. 나는 그를 심장으로 사랑한다는것을 뗫뗫이 말한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느라니 새로운 결심이 굳어져서 일어섰다.

다음날 그는 합숙에서 제대배낭을 찾아메고 김정순의 집에 들어섰다. 여느때와는 다른 박태선의 차림새에 림옥련이 두눈을 크게 떴다.

《아니? 이견...》

《어머니! 전 아예 합숙에서 나왔습니다. 집을 다 싸가지고왔으니 이젠 절 내쫓든가 들어놓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사람...》

림옥련은 그만에야 박태선을 외락 끌어안았다. 한참후에야 그는 얼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방안에 대고 소리쳤다.

《애야! 뭘 하느냐? 어서 집을 받지 않고?》

방안에서 김정순이 나오더니 태선에게 다소곳이 인사하고 배낭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되어 그해 마가울의 어느 하루 박태선과 김정순의 소박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새생활이 시작되었다.

## 훌륭한 인간의 이모저모

방금 한발파를 때리고 잠시 대피호에서 쉬고난 박태선은 최국철을 데리고 막장에 올라갔다.

발파에 수십톤의 광석이 보기 좋게 내려앉은것이 보였다. 호뭇한 마음으로 둘러보는 그들의 눈에 두툼은 실히 잘될 큰 돌밀에 깔린 착암기가 안겨왔다.

《차 이런, 야단났군. 이놈을 어떻게 치운다?》

최국철이가 난감한 표정으로 투덜거리는데 박태선은 아무 대꾸도 없이 바위밀을 파내기 시작하였다. 돌을 굴리자는 의도를 알아차린 국철이 말하였다.

《야, 그걸 언제 다 파겠습니까? 떡발파 한방이면 알아보겠는데.》

《최동무, 내 몇번이나 말했소? 꼭 착암기를 자기 장소에 은폐시키라구. 그런데두 뭐 발파까지 하자구? 자, 좀 힘들어도 돌을 굴리자구.》

박태선의 말에 최국철이 고집을 쓰러 했다. 그러자 박태선의 얼굴이 엄해졌다.

《착암기는 우리의 무기와 같은데… 최동무도 군사복무할 때에는 자기의 무기를 노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했는지?》

최국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였다. 착암기를 작업공구로만 생각하였지 무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것이다.

《최동무! 착암기도 그렇지만 발파를 하면 아까운 화약이 낭비되지 않소? 우리가 좀 땀을 흘리면 되겠는데…》

최국철은 감동된 눈길로 박태선을 바라보았다.

《제가 그만… 교대장동지, 인주십시오. 제가 파겠습니다.》

잠시후 다 파낸 돌 밑에 지레대를 넣고 움푹 힘을 주자 큰 돌이 서서히 밑으로 굴러내렸다. 그러자 그 밑에 깔렸던 착암기가 불빛에 환히 드러났다. 그것을 열른 안아든 태선은 착암기 머리부터 공기조절변, 정대물리개, 받침대 등 구석구석을 손으로 쓸어만지며 손상입은데가 없는가를 확인해보고서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피워올렸다.

그를 보는 최국철의 가슴속에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의 고결한 마음에서 미쳐오는 후더운것이 서서히 차올랐다.

어느날 박태선은 낮교대작업을 마치고 소대휴계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소대장 우승환의 얼굴에 난감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전야근교대인원들이 작업준비를 하고있는중인데 소대 막명이인 한국성이가 출근하지 못했던것이다.

며칠전 손바닥에 생긴 상처가 독을 쓰며 끓는데다 감기까지 겹쳐 심하게 앓고있다는것이였다. 교차생산으로 바람이 오는 단위시간에 능률을 높이려면 착암기를 만부하로 돌려야 하는데 한명이라도 빠지면 착암기 한대를 죽여야 한다. 이 실태를 잘 알고있는 박태선은 소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소대장동지! 제가 국성동무를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박태선의 말에 우승환소대장이 만류하였다. 사실 자기 교대작업을 마치고 남을 대신해서 막장에 다시 들어간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출근하지 못한 동무들을 대신해서 박태선이 막장에 들어간적은 이루 셀수없이 많다.

소대가 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날이였다.

방금 작업을 마친 박태선은 대원들과 함께 소대휴계실에 들어섰다. 맛있는 음식냄새가 풍겨왔다.

《영? 고기국냄새가 풍긴다. 오늘 새로 배치된 은경동무가 푸짐히 차리는가?》

소대의 익살군인 채민호가 코를 벌름거리며 머리를 기웃했다. 우습강스러운 그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식탁우에는 영양제쌀밥과 기름이 등등 뜨는 고기국, 닭알부침과 물고기, 산나물, 남새반찬들이 한가득 올랐다.

우승환소대장이 웃음어린 어조로 식탁에 나앉으며 말하였다.

《오늘 동무들이 계획을 다했다고 차린거요. 그런데 은경동무나 내가 아니라 우리의 미더운 녀맹원들이 성의를 보인거요.》

《그래요? 역시 광부를 생각하는건 광부안해 이상 없어. 우리 선혁이 엄마가 최고라니까.》

채민호가 또 빠기듯 한마디 하였다. 그러자 김영선이 빈정거렸다.

《아니? 녀맹원들이 보냈다는데 선혁이 엄마라는건 또 뭐요?》

《왜? 우리 집사람은 검덕녀맹원이 아니요? 그것도 금골의 전투력있는 녀맹초급단체위원장이란 말이요.》

《야— 그것 참 쟈데?…》

한국성의 말에 모두가 와—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랑만과 웃음은 자연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싸우는 광부들의 본태의 한 측면이다. 무슨 일에서나 우물쭈물하지 않으며 통이 크게 생각하고 시원시원하게 일자리를 제끼고 랑만적으로 웃으며 생활하는것이 광부들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태선이 조용히 은경을 찾았다.

《은경동무! 가마치밥 있지? 난 그걸 좀 주오.》

《아니, 가마치밥은 왜요?》

변은경의 오목눈이 동그래졌다.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태선을 바라보았다.

《오, 실은 소화가 잘 안돼서 그러오. 배가 무척한게… 가마치밥이 소화가 잘되거든.》

은경은 미심쩍은 눈길로 박태선을 바라보며 가마치밥을 가져다주었다. 가끔 속탈로 애를 먹고있는 태선을 잘 아는 대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승환소대장의 눈만은 속이지 못하였다. 수십년의 막장생활속에서 자연과의 싸움을 해오는 과정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예민한

감각을 터득한 그는 생각깊은 눈길로 박태선을 바라보았다. 두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치며 무언의 대사가 오고갔다.

(태선이, 은경이를 생각해서겠지?)

(예, 은경이가 자기 밥을 우리들에게 던놓아 주고 가마치로 끼니를 예울 때가 많습시다. 이게 바로 우리 녀성들의 마음이지요. ...)

(사람두 참...)

제먼저 눈길을 돌린 우승환은 오늘은 자기도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박태선의 가마치밥을 억지다짐으로 절반 덜고 자기의 밥을 넘겨주었다.

오가는 따뜻한 정은 금시 모든 소대원들의 마음을 덥혀주었다.

생활의 작은 계기에서도 동지를 자기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박태선의 따뜻한 인정미를 다시한번 느끼며 승환소대장은 기쁘게 밥술을 들었다.

그날도 박태선은 교대인원들과 함께 막장으로 가고있었다.

그들이 경사급한 올리굴사다리를 타고 조구통가 사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걷던 김영선이 《앗!》하고 외마디비명을 질렀다. 커다란 광석이 조구통을 메웠는데 그것을 깨려고 떡발파심지에 불을 달아놓은 것이다.

아마 발파감시공이 교대인원들이 이쪽으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쪽인도에 가있는 모양인데 도화선은 빠른 속도로 타들어가고있었다.

발파심지를 보니 대피하기에는 때가 늦었다. 만약 되돌아서서 철수한다면 여러명이 좁은 인도에 몰려 행동이 껄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폭발된 돌에 사람들이 상할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 누가 어쩔새없이 번개같이 몸을 날린 박태선은 발파심지를 외락 잡아당겼다. 심지와 퇴판이 분리되자 위험은 가셔졌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소대원들이 달려가 그를 에워쌌을 때 태선의 가름한 얼굴엔 식은땀이 내배있었다.

《큰일날뻔 했군. 이런 일이 두번다시 없어야 하겠는데... 우리 명심하기요.》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고 막장으로 향하였다. 위기를 치르고난 박태선의 낯빛은 범상하였다.

순간이 모여 한생을 이루고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 보여지는 성격의 이모저모가 그 인간의 전모를 규정한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평범한 나날들의 셀수없이 많은 이런 사랑과 헌신이 쌓이고쌓여 후날 박태선의 영웅적인 행위가 이루어진것이다.

## 사랑중에 가장 큰 사랑

주체100(2011)년 12월 19일 낮 12시!

중대방송으로 어버이장군님께서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에 겹쌓인 너무도 파종한 정신육체적파괴로 하여 달리는 렬차안에서 순직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그 순간부터 금골광산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아버지장군님! 이게 정녕 사실입니까?》

《하늘땅이 무너졌다면 몰라도 이 사실만은 믿지 못해! 아!—》

《장군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됩니다.》

피를 토하는듯 한 처절한 부르짖음들이 막장안을 드렁드렁 울렸다.

모두가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었다. 허탈상태에 빠진것 같았다.

몸부림치는 광부들을 둘러보며 김성철초급당비서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군중앞에 나섰다.

주체98(2009)년 5월 금골광산을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셨던 그로서는 슬픔이 그 누구에 비할바없이 더 컸으나 맥을 놓고 주저앉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동무들! 우리모두 슬픔을 이겨내고 힘과 용기를 냅시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더 많은 광석을 캐는것이 어버이장군님을 잊지 않는것이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렬차의 집무실에 계신 장군님의 유혼을 관철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십니다.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자, 동무들! 막장으로 갑시다!》

아픈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앞장서 걷는 당비서의 뒤를 전체 광부들이 따라섰다.

일시 숨을 죽였던 600미터, 800미터의 수직갱막장들에서 또다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막장에 돌아와 착암기를 역세게 틀어쥐고 천공작업을 하는 박태선의 눈앞에는 강행군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안겨와 두볼로 눈물이 하염

없이 흘러내렸다.

아! 우린 너무도 불효자식이였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며 온 나라를 주름잡는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을 텔레비전과 방송에서 매일같이 듣고 그이의 영상을 보으면서 기뻐하고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도 장군님께서 그토록 과로하실줄은 너무도 몰랐으니 이런 자식들 천이면 될하고 만이면 될하랴. 하루계획, 한달계획이나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이의 어깨에 짊어지신 과중한 짐을 하나라도 덜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한 우리가 무슨 장군님의 전사고 장군님의 아들딸들인가.

아!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셨을 때 일을 더 많이 해서 기뻐드렸더라면... 아!...

박태선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채찍을 안기며 착암기를 더 으스스리게 틀어잡았다.

뜻밖에도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그 어느때보다 광물증산에서 양양을 울리며 2011년을 보내고 새해 2012년을 맞는 광산로동계급의 충정의 열의는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아침이면 녀맹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의 노래소리, 북소리가 금꿀골안을 찌렁찌렁 울리었고 막장마다는 발파소리, 착암기소리, 전차소리 등의 동음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광산에서는 새해 첫달계획을 보름이나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우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1월 13일 저녁 퇴근해온 박태선은 어느때없이 부엌에 들어섰다.

안해와 어머니가 놀란 눈길로 그를 맞아주었다.

《자,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사람하고 광명이 생일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보입니다.》

두팔을 걷어올리며 두부망에 다가앉은 박태선을 장모가 만류했다.

《그만두라구. 막장일이 오죽 힘든가. 매일 또 일찍 출근해야겠는데...》

안해 정순이도 밋지 않게 눈을 흘겼다.

《아니, 당신 오늘 새삼스레 어떻게 된 일이에요?》

《허허, 이거 어찌다 우리 아들 생일상에 뭔가 기여를 좀 해볼가 하니 다들 색다른 눈으로 본다?! 자, 이리 주오.》

태선의 말에 좌중에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김정순은 남편을 정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돌이켜보면 몸이 불편한 자기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부엌일을 도맡아하다보니 남편에게 살뜰한 정을 일

마 기울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살며시 깃들었다.

정순의 이런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선이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우리 광명이가 벌써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다니? 참, 세월두 빠르구만. 저 애가 이제 크면 뭘 시킬가? 응... 군사복무부터 시켜야지? 그다음엔 광산대학을 졸업하고 최첨단기술로 광석을 캐게 해야지? 어땡소?》

남편의 말에 정순은 행복에 잠긴 목소리로 대꾸했다.

《여보! 우리가 가정을 이룬지 12년이 되었군요. 그동안 당신이 나때문에...》

《또또... 괜한 소리.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약속했지? 미안하다는 말 안하기루...》

두사람은 마주앉아 음식도 만들고 끝모를 정담도 나누며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밥상에 모두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박태선은 아들에게 수첩과 원주필을 생일기념으로 주면서 말하였다.

《광명아, 앞으로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더 잘 받들어 모시자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집단에 의거하고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잠시후 박태선은 일을 나갈 차비를 하고 밖을 나섰다. 안해가 대문까지 따라서며 말하였다.

《여보! 오늘은 쉬라고 했었는데 하루 쉬는것이 어때요? 요즘 당신 몸이 몹시 축났어요.》

《허허, 내 걱정은 마오.》

《저... 올해엔 광명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담임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요?》

박태선은 돌아서서 안해의 자그마한 어깨우에 손을 올려놓았다.

《여보! 우린 지난 12월에 어버이장군님을 잃었지? 피눈물을 흘리며 다진 맹세를 벌써 잊은건 아니겠지?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모시자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오. 내 월계획을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테니 그때 광명이랑 함께 사진두 찍구 선생님도 만나보지요. 어땡소? 좋지?》

그리고는 안해의 볼을 가볍게 튕겨주고나서 빙그레 웃었다. 그때 아들 광명이가 따라나와 간청하였다.

《아버지! 저녁엔 들어오셔야 해요.》

《응, 그래.》

김정순은 마을길로 씨엣씨엣 걸어가는 남편의 뒤모습을 오래동안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것이 세상에서 단 한사람, 오빠처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해온 남편의 마지막모습이었다.

2월초 어느날 박태선의 안해 김정순은 먼저간 남편의 묘를 하는 심정으로 집에서 막장에 올려보낼 장갑이며 화약배낭이랑 만들고있었다.

그때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찾는다는 기별이 왔다.

그가 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방에 들어서니 이미 금골광산 초급당비서와 광산 일꾼들이 와있었고 우에서 내려온듯 한 낯선 일꾼들의 얼굴도 보였다.

책임비서가 들어서는 김정순의 손을 잡아주며 흥분에 떠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주머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박태선동무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예?》

김정순은 깜짝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정순은 걱정으로 떨리는 가슴을 불안고 정중한 자세로 섰다.

이윽고 한 일꾼이 경건히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영광쟁 채광공이였던 박태선동무의 영웅적소행을 료해하시고 다음과 같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습니다.》

친필서한전달이 끝났으나 김정순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듯 굳어진 자세로 멍하니 서있었다.

그 일꾼이 계속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박태선동무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게 되었으며 태선동무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선동무가 일하던 채광5소대를 〈박태선영웅소대〉로 명명하고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김정순은 그만에야 가슴속의 오열을 터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남편이 희생되었을 때도 동지들에게 가슴아픔을 덧쌓아줄가봐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중에 가장 크나큰 사랑에 목이 메여 마음속의 물목을 터친듯 어깨를 떨

며 오열을 터뜨리고있었다.

샘솟듯 하냥 흘러나오는 눈물속에 정순은 생각하였다.

남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큰 위훈을 세웠는가?

너무도 평범히, 너무도 조용히 살면서 수직수직 맡겨진 일만 하였다. 광산에는 박태선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평범한 광부가 위험한 순간에 자기 할바를 하였을뿐이다. 그런데 이토록 가슴벅찬 사랑을 안겨주시다니...

사랑! 이는 정녕 크나큰 사랑이었다.

이 나라의 천만군민을 진정으로 자신의 혁명동지로, 전우로 생각하시며 한명의 전사의 희생도 커다란 상실로 마음아프게 받아들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베풀실수 있는 이 세상 사랑중의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이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김정순의 귀가에 남편이 생전에 읊던 시의 한구절이 뜨겁게 울려왔다.

...

조국은 우릴 지켜보고있다

이 한몸 쓰러진대도

영원히 잃지 않는

지하의 은빛광석으로

신념의 보석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내 한생 빛나게 살리라!

공화국영웅 박태선동무는 가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금골의 광부들과 함께 있다.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소대에 함께 있다.

언제나 마음속에 평양을 안고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걸고 나아가는 전우, 혁명동지로서의 충직한 도리를 광물증산으로 다해가려는 지하막장의 영웅적인 광부사나이들의 투쟁의 서사시에 그의 이름도 있다.

덩지큰 산봉우리들이 우중충하게 치솟아있는 마천령산줄기밑에 웅장한 자태를 시위하며 거연히 서있는 굴지의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구름에 닿아 눈썹리 아찔한 산봉우리들도 거연하지만 땅속 깊은 곳으로 뻗어간 지하금골은 또 얼마나 거대한가!

그 끝모를 수천길 땅속 깊은 곳에 은빛금빛의 무진장한 보석들이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기념

##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우리는 주체102(2013)년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과 민족, 우리 작가들의 운명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펼쳐진 역사적사변이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격려하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우리의 문학작품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불씨로 되게 하여야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전국문학축전을 조직한다.

### △축전기간

주체101(2012)년 9월부터 주체102(2013)년 8월까지

### △참가대상

조선작가동맹의 전체 맹원(후보맹원 포함)들과 문학창작기관의 작가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 △작품의 종류

—소설문학부문

단편소설, 단편과학환상소설, 단편실화문학, 수필

—시문학부문

서정시, 가사, 장시, 시초, 서정서사시, 서사시

—아동문학부문

단편소설, 동화, 우화, 동요, 동시, 서정서사

시, 서사시

—극문학부문

단막희곡, 중막희곡

—평론, 단평, 사화, 전설

### △작품의 주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숭고한 위인상을 형상한 작품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과 최첨단돌파전에서 승리를 떨치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현실주제의 작품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모습과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미풍, 청소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 력사주제의 작품 등

### △작품을 보낼 곳

전국문학축전작품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며 우편통신으로 발송하는 경우 겹봉에 《전국문학축전작품》이라고 밝혀야 한다.

### △총화사업

전국문학축전작품심사결과는 주체102(2013)년 9월에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와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선자들에게는 해당한 시상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 나는 바다를 본다

김 홍 군

## 처음 본 바다

내가 바다를 처음 본것은 소학교 1학년때였다. 아버지네 탐사대가 이동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어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바다를 실지 내 눈으로 보게 된것이였다.

해발고높은 탐사대마을에서 살던 나는 이사를 간다는 소식에 며칠동안 울적해 다녔다. 다른 애들은 이사를 간다고 좋아들 했지만 나는 정 반대였다. 집앞을 흐르는 실개울이며 넓적넓적 큰 돌이 깔린 분교길, 가보지 않고도 뜬금으로 셀수 있는 골짜기마다의 돌배나무며 다래넝쿨, 잣나무에 이르기까지 정들대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된것이 서운해서였다.

《음 그래, 서운할테지. 태어난 고향이 아니냐. 또 산천이 아름답고 살기가 좋은 곳이기도 하지. 이 소중한 고향을 가슴에 영원히 새기고가자. 이제 가서 살게 될 바다가마을도 여기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이란다.》

정든 땅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느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였다. 서글픈 맘속에 바다를 볼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였다.

그날 수백리를 달려 목적지를 가까이하였을 때에는 동틀무렵이였다.

기분 좋게 들춰대는 차안에서 피곤에 몰려 머리를 건들거리며 졸던 나는 제동기의 마찰음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 내려라. 잠깐 바다구경을 하고 가자.》

차는 바다가를 따라 뻗은 도로에 멎어섰다.

나는 그만 눈앞의 현실에 기가 질렸다. 끝모르게 펼쳐진 검푸른 바다는 파도를 일으키며 설레이고있었다. 처음 바다를 보는 나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내가 지금껏 상상해온 바다는 큰 호수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다리도 놓을수 있고 헤엄쳐 건널수도 있다고 생각한 나의 작은 바다에 비하면 눈앞의 바다는 너무

도 어마어마했다. 흰 파도가 당장 내가 선 해안도로까지 덮칠듯 물머리를 쳐들고 밀려와서는 백사장 모래불을 쓸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넓은 바다! 깊은 바다!

까닭없이 삭정이가 지나 겨우 떠가던 고향 개천이 생각났다.

...얼마나 작은 개천이었던지. 어느날 우리는 오래 묵은 로송의 밑등에서 두꺼운 보곳을 떼내어 배를 만들어 개천에 띄웠다. 제법 추진력을 얻는다고 꼬리부에 송진덩이까지 큼직한걸 붙여놓았다.

바다로! 우리 산골아이들의 꿈을 넘쳐나게 실은 배는 천천히 대양을 향해 떠갔다.

야! 우리 아이들은 장한듯이 환성을 올리고 우쭐했다. 며칠이면 이 배가 바다에 가닿을가. 하루? 아니, 이틀? 아니야, 며칠 걸려야 할거야. 그런데 며칠후 물장난을 하며 개울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던 우리는 풀덤불에 걸린 작은 배를 보고 크게 실망했었다. 지금쯤 바다에 떠다니리라 생각했는데...

난생처음 보는 바다를 놓고 어이하여 고향마을의 실개천이 떠오른것인지...

나는 푸르러 출렁이는 바다를 두렵게 바라보았다.

수평선어름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해돋이시간이였다.

나는 해돋이장판에 그에 넋을 빼앗겼다. 이제 그만 떠나보자는 아버지의 말도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를 대고 그은듯 한 수평선이 주홍빛으로 물들어가는것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신비의 세계였다.

나는 불타는 태양과 그 빛으로 물든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세상이라는것을 처음 둘러보는듯한 새삼스러운 심경에 싸여있었다. 모래등을 쌓은 산골개울물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철부지소년이 대번 어른이 되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는것보다 모르는게 더 많은

철부지아이였다. 나의 천진한 눈으로 그 바다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 코면서 본 바다

나에겐 크면서 모든것을 바다에 비기는 류다운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말대로 정말 바다에 정이 폭 들면서 성장해온것이기때문일것이다.

거세찬 격랑을 일으키는 넓고 푸른 바다, 고요함과 사랑을 안고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는 언제나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 추억은 바로 날마다 자고깨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새라새로운 아름다운 미풍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오는 따뜻한 감정이거늘.

정녕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미덕이 바로 우리 사회, 출렁이는 사랑의 바다를 이루고있었다.

...소학교 4학년 여름방학때였다.

도래굽이 십파기와 해수욕을 즐겼던 나는 축제장을 덮기 바쁘게 바다가로 달려나갔다.

한차례 미역을 감고 꽤 높은 바위우로 게바라올랐다. 푸른 바다를 발밑에 딛고서서 멀리 창창한 수평선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빠근한 감정을 한시바빠 맛보고싶은 욕심이 나를 떠밀어서였다.

그러다 아차, 잘못 붙인 발이 미끄러져 어쩔사이없이 아래로 허공 떨어져내렸다. 악!— 모래 한알 없는 돌서덜에 돌맹이처럼 떨어져내렸으니 내 몸이 성할리 만무하였다.

《사람 살려요!》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놀라 새된 소리를 질러대며 달음박질쳐갔다.

제일먼저 달려온것이 가까운 바위에 앉아 책을 읽던 처녀대학생이었다.

《어마나!》

내 모양을 보고 대학생누나의 얼굴이 대번 하얗게 질렸다. 그래도 용케 자기를 다잡고 나에게 다가왔다.

《조금만 참아.》

누나는 얼른 흰 손수건을 쪽쪽 찢어 나의 상처를 닦고 출혈이 심한데는 비끄러냈다. 그런 뒤에 피칠갑이 된 나를 주저없이 들쳐업고 내달렸다. 단박 누나의 하얀 셔츠에 피얼룩이 찍혀졌다. 성가신 우리 방해군들을 피해 멀찌감치에서 낚시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전에 누나는 벌써 나를 업고 떨기떨기 해당화가 숲을 이룬 모래불을 지나 도로에 나섰다.

《누나!》

《조금만 참아!》

아픔에 모대기는 나를 위로하며 누나는 한번도 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누나는 나를 입원시키고나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때 나는 어째서 그 누나의 이름도 주소도 물어보지 못했던가.

역시 나는 철없는 아이였다. 자기의 실수를 골백번 후회하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작은 실수로 나는 오늘까지 그 누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종종 그 누나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면 저절로 가슴이 그들떡해진다. 그런 누나를 어찌 열백으로만 헤아릴수 있으랴. 지난 세대들에 이어 오늘날에도 신문과 방송으로 소개되어 선군시대를 풍미하는 하많은 미덕의 주인공들을 우리 일일이 다 꼽을수는 없다.

아, 가슴후더워라. 사랑이 공기처럼, 물처럼 흐르는 사회주의 내 나라!

그 사랑은 배움의 창가에도 스며있고 환자의 아픔을 정깊이 아물겨주는 인민병원의 현판에도 새겨져있다. 그것은 어느 작은 급양봉사망의 식사안내표에도, 우리 레사롭게 오가는 도로의 건늬길표식에도 깃들어있다. 그런가하면 사랑은 탁아소로, 유치원으로, 학교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콩우유차에도, 노을이 불타는 강가유보도에서 패일을 약속하는 청춘남녀들이 짙고선 란간에도 숨배여 있다.

바로 이 인간사랑의 풍토를 두고 남녀로소 누구나 할것없이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너도나도 친형제로 행복한 우리 사회의 이 사랑의 화원을 꽃피우시고 가꾸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며 우리 인민은 이렇게 노래한다.

...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이 노래를 부르며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었다.

사랑으로 인민모두가 행복한 사회주의 내 조국! 그래서 사회주의를 우리의 생명이라 하는것이다.

하거늘 사회주의 자양분—사랑으로 성장한 우리

인민모두가 아름답지 않을수가 있을까!

아, 나는 시인이 아니건만 마음속 걱정을 그대로 시로 읊조리고픈 마음이다.

오, 사랑의 바다

내 나라는 정녕 어델 가나 사랑의 바다!

## 나는 오늘도 바다를 본다

**김일성**상제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보고난 뒤 나는 오래도록 대동강유보도를 거닐었다. 충격이 커서였다. 벌써 몇번째 다시 보는 연극이다. 그러나 불적마다 감흥이 새로와 생각이 많아지는 나였다.

물론 연극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도 더 이룰데 없지만 사람마다 연극을 감동깊이 본데는 거기에 바로 자기들의 지나온 생활이 그대로 재현되어있기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의 가슴엔들, 그 어느 가정엔들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입은 상처의 흔적이 없으랴. 그 나날에 입은 상처의 아픔을 묵묵히 이겨내며 오로지 애국의 한뜻으로 어머니조국의 번영을 위해 달음쳐온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 바로 **김일성**상제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 그대로 담겨져있는것이다.

승리자의 추억은 긍지롭다.

우리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만난을 이겨내며 그려본 찬란한 미래가 오늘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천만심장을 격동시키며 강성국가의 불보라가 날리고 **김정일**애국주의 열풍속에 최첨단돌파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고난의 그 나날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는 얼마나 준엄한 시기가 닥쳐왔던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경제봉쇄는 갈수록 악랄해지고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공장들은 멎어서고 사람들은 허리띠를 조여매야만 하는 눈물겹고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한몸보다 먼저 집단을 생각했고 가정보다 조국을 생각했다. 그렇게 공장들을 살려냈고 전야에 오탁을 무르익혔다. 그야말로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벌린 판가리결전이였다.

그때 우리가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이겨내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 승리할수 있었던것은 무엇때문이었던가.

그것은 우리의 하늘에 선군태양이 창창히 빛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의 하

늘에 21세기의 태양이 빛나고있었다.

백전백승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우리는 과감한 공격전을 벌렸다. 이렇게 시련과 난관을 헤쳐 전진해온 우리 인민이여서 새 세기의 문어구에 승리자로 들어설 때 추억은 그토록 눈물겹고 긍지롭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지금도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군중시위를 잊을수 없다. 그것은 간고했던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가진 승리자들의 대경축행사였다.

그때 영광스럽게도 나도 그 시위에 참가했는데 우리 대오는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행진하였다.

대오가 주석단앞을 지날 때였다. 대오의 중간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펄럭이는 기폭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주석단을 열심히 우러르는 나에겐 어쩔수 없는 위구와 조바심이 갈마들었다.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지 못할가봐서였다.

그러나 아니할 걱정이였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 태양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이라고.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며 송엄하신 영상이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호를 울리며 지나는 우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보내시는것이다.

저도 모르게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감격의 분출이였다.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 누리를 진감하는 환호성, 태양을 우러러 **김일성**광장이 뜨겁게 설레이고있었다. 그것은 바다였다.

그 바다너머로 우리 걸어온 세월이 감회새로이 안겨왔다. 력사를 거스른 세기의 역풍, 사회주의 요람에 덮쳐든 무서운 한류— 지금은 옛말같이 레사롭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과연 어떻게 그 모든 난국을 헤칠수 있었던가.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선군태양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 주저하고 동요할 땐 억센 기둥이 되어 힘을 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를 받들어 하나로 뭉친 인민의 모습이 바다로 펼쳐졌다.

승리의 광장에 노래가 울리고있었다.

내 나라는 인구많아 큰 나라더냐

일심단결 위력으로 빛나는 나라

...

이것이 천만대적이 무서워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었다.

우리는 이 일심단결을 핵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서슴없이 단언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어떤것인가를 하늘의 육탄영웅 길영조가, 무재봉의 17명 불사조영웅들이, 애 어린 소녀 유항림이 그리고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수많은 영웅들이 다 말해주지 않았던가!

나는 오늘도 바다를 본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일심단결의 바다를.

## 슬픔의 눈물속에 다시 본 바다

돌이켜보기조차 처절한 지난해 12월 나는 현실체험지인 단천항건설장에서 민족의 대국상에 대한 보도에 접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건설장에 모시였던 10월의 감격이 아직도 가슴에 그대로 뜨거운데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온 건설장이 크나큰 슬픔에 눌러 숨막힐듯 한 정적에 잠겨버렸다. 천만뜻밖의 비보에 놀라 정치일군이 쓰러지고 줄지에 물앉아버린 지휘관들의 얼굴에 고통을 파며 눈물이 줄지어내렸다. 온 건설장이 울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열어가시느라 한순간의 휴식도 잊으신 우리 아버지! 그 길에서 겪으신 온갖 로고를 락으로 여기시며 한생을 인민행렬차를 타고 달리고달리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이를 그리며 사는 인민인데 다시는 그이를 뵈울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어서 더 눈물이 쏟아졌다.

여러차례 단천항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자기의 면모를 드러낸 항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이제 항이 완공되면 자신께서 다시 꼭 오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기다려 그리움의 노래를 안고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총공격전을 벌려온 돌격대원들이였다.

자기들은 그 무엇도 바라는데 없다고, 그저 완공된 항에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것이 최대의 소원이라고 그 소박한 꿈을 안고서 앞당겨오

던 완공의 날이였다. 그런데 그 불타는 그리움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꿈꾸어온 소원을 이제는 영영 이룰수 없단 말인가!

그때 쓰러졌던 정치일군이 다시 일어섰다.

《동무들, 우리 힘을 뽐시다.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십니다. 장군님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하루빨리 이 건설을 끝내고 완공된 단천항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십니다.》

돌격대원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슬픔을 이겨내며 일손을 다시 잡았다. 추위에 빨강계 언 처녀들의 두볼로는 눈물이 소리없이 내리고내렸다. 사나이들은 눈물을 씹어삼키며 일했다.

준첩선들이 뿔어대는 모래가 물과 함께 송사판을 타고 더 세차게 쏟아지고 새 송사판을 조립하는 전투원들의 일손도 더욱 빨라졌다. 하선장에서도 종합청사건설장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하루빨리 완공된 항에 모시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그대로 그리움의 바다, 충정의 바다가 되어 건설장에 굽이쳤다.

그 나날 온 나라 천체 인민이 그렇게 살았다. 피눈물의 12월에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지키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섰다.

온 세상에 자기의 령도자를 어떻게 따르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보여준 참모습이였다. 정녕 령도자를 모시는데서 그 어떤 변심도 모르는 우리 인민이였다. 그 하나같은 마음이 온 나라에 바다가 되어 출렁이였다.

바다! 변할줄 모르는 바다였다.

나는 그 바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래일—무궁토록 번영해갈 내 조국의 앞날을 보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바다를 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신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장에 흐르던 티없이 맑고 순진한 소년단원들의 눈물의 바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오직 당만을 따라갈 결의 파도치던 청년전위들의 화불의 바다에서 나는 무진막강한 내 조국의 변함없는 바다를 본다.

바다는 영원한것이어늘, 영원은 곧 승리가 아니겠는가.

나는 영광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바다를 본다.



# 이삭은 여문다



변 월 너

옛날부터 이 산을 미라산으로 불려온것은 그 모양이 사람의 눈썹아래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였다.

단풍이 화려한 미라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운곡마을은 새벽고요속에 잠자고있었다.

산기슭에서 피어난 파르스름한 안개도 고즈넉한 정적을 깨칠가 저어하며 숨을 죽이고 마을을 감도는데 청아한 노래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새벽하늘의 별들이 오종종 내려앉은 미라산샘물에 목을 추기고 날아며며 우짖는 새들의 지저귀이런가....

노래소리는 안개발에 실려 과일들이 주렁진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지나 새벽이슬에 함초름히 젖은 운곡벌에 스며들어였다.

약수터 박우물집의 외동딸인 정순아가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효능높기로 소문이 난 미라산의 박우물을 마시며 자라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유별나게 고왔다.

그는 유치원시절에 벌써 전국적인 축전에서 조윤경과 2중창을 하여 1등상을 받아 《운곡벌의 피꽃새》로 널리 소문을 냈다.

운곡협동농장의 청년분조원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오늘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 지역별예선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기타3병창이다. 중학교동창생들인 조윤경과 강수범이 순아와 함께 출연한다. 그들의 경연심사를 휴식일인 오늘 농장문화회관에서 만사람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하게 된것이다.

《라... 랄라라...》

목청을 내어 굴리는 그 아름다운 선물에 실려오듯 사뿐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아를 어머니가 마중했다.

《자, 어서 마셔라.》

어머니는 손에 든 꿀물사발을 내밀며 애뜻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윤경이 온 다음에 함께 마실래요.》

순아는 어머니의 자애깊은 눈길이 온몸을 따뜻이 어루만져주는듯 하여 응석을 부리듯 새뭇이 웃으며 꿀물사발을 마루우에 놓았다.

어머니는 그러는 순아가 마냥 사랑스러워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머금었다.

《넌 그저 윤경이밖에 모르는구나.》

순아는 닭알튀기는 고소한 기름내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어머니의 말을 새삼스럽게 들었다.

참말이지 순아와 윤경의 사이는 자별했다.

도산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는 그들은 지금까지의 길지 않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왔다. 타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언제나 다정한 어깨동무였던 순아와 윤경은 농업전문학교도 함께 졸업하고 지금은 청년분조에서 함께 일하고있었다. 그들이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농장 예술소조에서는 순아를 점찍고 기다렸으며 종합분석실에서는 육종학을 전공한 윤경의 자리를 내놓고있었다.

하지만 윤경은 청년작업반에 탄원하였고 순아도 그를 뒤따랐다. 마음도 뜻도 똑같은 그들은 청년작업반으로 배치되던 날 서로 손잡고 벼모들이 파릇파릇한 포전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운곡벌을 가꾸자고 다짐했었다.

조윤경은 전전해부터 분조장으로 일하고있다. 순아는 자기를 분조장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편제없는 분조기술원이라 자칭하며 항상 물어다닌

다. 이들의 변함없는 사이를 두고 유치원시절에 불러주었던 《쌍밤알》이란 별칭이 아직도 따라다니고있다.

순아는 윤경이가 오지 않나 담너머를 기웃해보며 살포시 토방에 주저앉았다.

꿀물사발옆에 파란색의 사출장화가 순아를 바라보듯 반짝이며 놓여있다. 오늘 문화회관에서 예선경연심사를 받을 때 갖추기로 한 처녀들의 의상소도구의 하나다. 그들은 청년작업반원들의 집체옷인 푸른색잠바옷 한벌에 사연많은 이 사출장화를 받쳐신고 출연하기로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해전 운곡협동농장을 찾으셨을 때 일이다.

현지도의 그 바쁘신 시간에 농장상점까지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매장에 쌓여있는 소비품들의 질을 료해하시고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상품보장을 잘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장화를 가져오라고 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들어보시며 사시절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무거운 장화를 신으면 힘들고 불편해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벼운 사출장화를 만들어 공급하라고 다짐하게 이르시였다.

그렇게 되어 차례진 사연깊은 사출장화였다.

날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겨안으며 장화를 쓸어만지던 순아는 다시 움쪽 일어서 길쪽을 바라보았다.

허나 윤경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에이참, 요 맹꽂이. 어딜 가서 아직도 안 오고있담.》

종알거리며 두릿거리는 순아의 시야에 동창생 장수범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순아는 꽃벽돌로 쌓은 울타리옆에서 서성대는 장수범을 발견하고 생긋이 웃으면서 물었다.

《왜 그러고 섰어?》

수범은 꾸밈꾸밈하며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함께 출연할 기타수다.

《그래 수범동무, 밤새 심장단련을 좀 했어요?》

쨍쨍한 목소리로 다우치듯 묻는 순아를 바라보며 수범은 쳇!— 하고 코웃음인지 웃음인지 아리송한 외마디소리를 내며 토방아래로 다가왔다. 순아는 방긋 웃으며 곁뿌에 꿀물을 담아 내밀었다.

순아는 번듯한 이마아래서 불만스레 번뜩이는 수범의 두눈을 똑바로 지켜보며 웃음을 가득 머금고 다시 물었다.

《오늘도 제 이름 또 잊어먹지 않겠어?》

순아의 심장단련이요, 이름 잊어먹는다는 말은 다 사연이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제일선참 끝낸 농장에서 방송야회가 진행되였다.

농장원들과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엇갈려가며 출연한 그 무대는 특색있었다. 그때 순아네 기타3병창도 출연하게 되어있었다.

방송야회의 사회자가 무대에 나선 그들에게 마이크를 가져다대며 소개를 부탁하였다.

《온 나라 협동농장들이 바짝 뒤퍼고있는 속에 경쟁바람을 힘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운곡별의 청년분조원들의 기타3병창입니다.》

순아와 윤경이 자기 소개를 한 후에 수범에게 마이크를 가까이 댔을 때였다.

기타를 들고 굳어진 자세로 서있던 수범이 엉겁결에 한마디 한다는것이 그만 온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가만, 내 이름이 뭐더라?》

그의 말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나가지 사람들의 와— 하는 웃음소리에 온 들이 후들쩍 놀라 몸을 일으키는듯 했다. 다행히 유능한 방송원의 기지있는 정황처리로 방송야회는 더욱 자연스러운 흐름새를 이어나가게 되였었다. …

《오늘에야 무대담을 키우는 식사를 든든히 했겠지요?》

순아는 소리없이 황소웃음을 짓고있는 수범을 향해 곱게 눈을 흘겼다. 그리고는 다시 길쪽에 시선을 보냈다.

《아유, 속상해. 윤경인 왜 아직 안 올가? 아침 시간에 한번 맞춰봐야 하지 않아?》

수범이도 길쪽으로 목을 빼들었다.

《순아동무, 우리 윤경동무네 집에 한번 가볼가?》

그 말에 순아는 냉큼 토방에 내려서며 신발을 껴었다. 뛰다싶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들의 등뒤에 순아 어머니의 청높은 목소리가 와부딴쳤다.

그들은 잠시후 문화회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살구동네 윤경의 집으로 들어섰다.

진보라빛줄당콩이 주렁진 넝쿨이 무성하게 울타리를 빙 둘러감고있는 터밭의 한켠에는 새빨강계독을 쓰는 고추들이 달려있고 다른켠에는 비계같이 시허연 속이 소담하게 앓기 시작한 가을배추들이 빼곡이 서있었다.

머리에 전넙은 농립모를 쓰고 목에 수건을 걸친 윤경의 할아버지가 삽에 묻은 감탕을 긁어내다 반겨맞았다.

《나도 방금 고래논에서 오는 길이다. 윤경인 거기 있어. 인츰 뒤퍼라올게다.》

《예?! 고래논에요?》

순아와 수범은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다.

고래논이란 사령강기슭에 위치하고있는 그들의 분조포전이다. 지난 세월에 장마철이면 호수처럼 고인 물이 빠지지 않아 옆집에도 합지배를 타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어 수중촌이라 불리웠다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거기에는 고래등처럼 밋밋하게 흘러내린 땅의 이곳저곳에서 물을 뿜어올리는 늪이 있었다.

윤경의 발기로 청년분조원들이 이 늪을 논으로 개간하고 벼농사를 지어오고있었다.

순아의 머리속에서는 고래늪을 개간할 때의 일이 화면처럼 흘러갔다.

...그때는 윤경이가 분조장으로 일한지 1년이 가까와오던 초겨울이었다.

순아는 작업이 끝난 후 윤경이와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작업조장들속에 함께 있던 윤경이가 보이지 않았다.

윤경을 찾아 구름만 낮게 기여다니는 텅 빈 들판을 둘러보던 그는 마음에 짝하는 곳이 있어 포전끝에 있는 고래늪으로 갔다. 째미 있을 때마다 고래늪을 빙빙 돌곤 하던 윤경이였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윤경은 고래늪의 한옆에서 무성한 장풍잎을 헤쳐보면서 생각에 골몰해있었다.

《윤경이,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순아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윤경은 머리를 가로저어보였다. 그러는 윤경의 호수같이 그윽한 눈이 이윽히 들여다보던 순아는 그의 내속을 짚어냈다.

《너 고래늪을 놓고 무슨 엄청난 계획을 짜고있는거냐? 감탕을 시약처리해서 유기질비료로 쓰려고...》

이즈음 윤경이 포전별특성을 파고들며 미량원소가 풍부한 유기질비료를 포전마다에 내려고 애쓰고있다는것을 순아도 알고있었다.

《맞지? 난 네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온것이나 같애.》

제잡담 순아는 이렇게 단언하였다. 하지만 윤경은 또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럼?...》

《순아, 난 이 고래늪이 마음에 있어그래. 개간하여 논으로 풀면 어떨까?》

《개간한다구? 논으루?...》

순아는 놀란 어조로 되물었다.

그때 윤경은 고래늪을 개간하기로 한 자기의 결심을 처음으로 순아에게 털어놓았었다.

고래늪에는 옛날 망망대해에서 떠밀려들어온 수

고래가 짝을 잃은 슬픔에 못이겨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그만 찌는 물과 더불어 굳어져버렸다는 옛이야기가 깃들어있다. 그래서인지 장마철이면 이 지대가 제일먼저 물에 잠기곤 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벌이 물에 잠기면 떡을 치고 돼지를 잡아 고래늪에 시주하고 무당을 청하여 비를 그쳐달라고, 물을 뿜아 곡식을 구원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고래늪의 감탕은 찰기가 많고 영양분이 충분하여 곡식자래우기는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한다. 배수로만 합리적으로 잘 짜주면 훌륭한 논으로 될수 있다는것이 윤경의 주장이었다.

순아는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랭습지를 개간하는 소론문을 발표한 자기가 선크를 매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내색을 앓고 반갑게 말했다.

《난 절대 찬성이야. 청춘인 우리 힘을 어디에 쓰겠니? 고래늪은 물론이고 바다도 메울수 있을거야.》

윤경은 순아의 지지를 받은것이 몹시도 기쁘지 청초한 얼굴에 함뻑 웃음을 머금고 그의 손을 잡았다.

순아는 개간공사에 한몫 하고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 참모장이 개간작전계획도를 작성하겠습니까.》

거수경례를 붙이며 깔깔 웃는 순아를 윤경은 정겹게 마주보았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작업반 선전실의 컴퓨터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이마를 맞대고 개간계획을 세웠다. 강과 표면이 비슷한 이 지대, 감탕이 침전되어 토양구조를 이룬 해하성층적지 땅속에 물이 고여있는 이 습지대를 컴퓨터화면으로 현시하고 도면에는 붉고 푸른 색원주필로 표시도 하며 상세하게 개간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계획을 완성하였을 때는 밤이 펍 깊어서였다.

밖에 나서니 초겨울의 쌀쌀한 대기가 선뜻하게 느껴져 그들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고즈넉한 정적속에 대지는 잠을 자고있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마을길에 들어섰을 때 검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별찌가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져내렸다.

《야, 별찌!》

그들은 두손을 봉긋한 가슴에 얹고 탄성을 내질렀다.

순아는 다시 윤경의 손을 더듬어쥐며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윤경아, 난 별찌가 떨어질 때 소원을 말했어. 난?...》



어둠속에서 윤경의 반짝이는 눈이 순아를 마주 보았다. 윤경은 어딘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나직이 말했다.

《난 이 고래늪을 개간해서 해마다 난알을 알알이 여물쿠어 농사를 잘 짓겠다고 했어. 해마다 우리 손으로 가꾸어낸 세상에서 제일 탐스러운 벼이삭들을 아버지장군님께 보여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싶은 소원을 말했어.》

《윤경아!》

순아는 하늘언저리만 슬쩍 건드려도 쏟아져내릴 듯싶은 도굴도굴한 별들이 가득찬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한번 별씨가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져내려도 그들의 소원은 변함없을 것이었다....

그후 윤경은 개간된 고래논에 맞는 재배방법을 연구하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고래논에서는 벼의 초기생육은 다른 포전들에 비해 앞섰다가도 수확무렵에는 천알당무게가 떨어지곤 하여 영글지 못한 벼알들이 섞이곤 했다. 하여 윤경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포전에서 살다 싶이 하였다.

그는 벼농사법에 대한 책들을 모두 탐독하였고 농업과학원과 편계를 맺고 견딜성이 센 종자를 심었다. 장마철이 오면 고래논의 벼포기들이 도열병에 빈 쪽정이를 만들가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벼포기들을 일일이 검사하며 밤샘을 했다. 탈곡이 끝난 후부터는 포전마다에서 토양시료를 뜨고 농장의 종합분석실에서 분석을 하였으며 의술이 높은 약제사처럼 진단결과에 맞게 아연성분이 많은 비료를 내곤 하였다.

윤경은 벼포기들이 이삭들을 빼물기 시작할 때부터 마치도 분조포전에 뿌리내린 하나의 푸른 벼포기와도 같았다. 때로는 논두렁에서 기타를 타며 부르는 노래를 벼포기들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이삭이 패이는 미묘한 음향이 가득차있는 푸른 공간에 메아리치는 그들의 노래.

순아는 그때마다 《어서 알차게 영글어주려마. 어서, 어서...》 하는 윤경의 마음속 속삭임을 들곤 하였었다.

순아는 움쭉 몸을 일으키며 로인을 향해 물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윤경인 어제 밤에 한잠도 자지 않고 고래논에 가있었던 말이군요.》

윤경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엿어가도 모르게 굳잠들어있던 애가 글썽 유리창에 비방울듣는 소리에는 언제 잠들었더냐 싶게 벌떡 일어나겠지. 밖으로 달려나가는 애가 마음놓이지 않아 나도 따라갔겠다. 그렇게 갔으니

다행이지 글썽 신들, 부흥들에서 쏟아져내린 물이 고래논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지 않겠니. 그래서 배수로를 더 깊이 채고 에돌아 물을 뺄수 있게 돌아가며 물웅덩이들을 파놓았구나.》

로인은 말을 하면서도 마을의 사이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순아는 자책어린 어조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난 그런줄도 모르고 어슴푸레 꿈을 꾸는가 했지요. 정신없이 쏟아떨어졌어요.》

《어제 늦게까지 회관무대에서 연습해보느라고 힘들어서 그랬을거야. 무대를 타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어디 험한 일이나. 순아야 주인공이니 부담이 더 클거다.》

순아는 가책이 큰 속에서도 전문가연하며 리해를 표시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긋 웃음을 빼물었다. 그러면서도 도톰한 입술사이로 심중에 얹혀있는 생각을 터놓지 않을수 없었다.

《할아버지, 윤경인 정말...》

《원, 애두. 그 애야 분조장이 아니냐?》

순아는 그 말에 생각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가우뚱하고 조로인을 바라보았다.

조로인은 한창 솟들에 낫을 갈고있었다.

그는 온몸의 힘을 기울여 낫을 솟들에 문대다가는 장지손가락을 시퍼렇게 날이 선 낫날에 대보다 혼자소리로 중얼중얼했다.

《이썸 땀은죽...》 하고는 또 다른 낫을 집어들었다.

《아이 할아버지, 무슨 낫을 이렇게 많이 갈아요?》

나부시 허리를 굽히며 살뜰하게 묻는 순아에게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였다.

《저 별을 내다보고 풍겨오는 난알향기를 맡아보아라. 그리고 벼이삭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예?...》

순아와 수범은 벼포기들이 논배미마다 터지도록 짹 짹 눕힐거리는 앞벌을 바라보았다. 누런 벼이삭들을 품어안듯이 논두렁마다에 무성한 콩포기들이 푸른 잎새들을 와슬렁대며 포전들을 한눈에 갈라볼수 있게 한다. 간밤에 내린 폭우에 씻겨진 벼이삭들이 해빛을 받아 살오르며 풍기는 난알향기가 감미롭게 풍겨왔다.

그 벼이삭들은 건듯 붙어예며 쓰다듬듯 애무해주는 가을바람에 어리광치듯 몸을 맡기고 통통 여물어가는 쾌감에 전율하듯 쉼- 쉼- 소리치며 신묘한 음향을 내고있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그 시절부터 윤경이와

어깨동무하며 자라온 전기간 친손녀처럼 사랑 해주며 애무해주던 윤경의 할아버지, 어릴적 그 품에 안길적마다 조로인에게서 풍겨오던 벌의 향기가 다시금 순아의 가슴속으로 찌르르 흘러드는 듯 하였다.

《할아버진 정말...》

순아는 정에 겨워 속삭이였다.

마을사람들이 입을 모아 조로인을 두고 땅의 속 내를 귀신같이 꿰뚫고있다고 하며 늘썩 혀를 차던 의미가 새롭게 깨도되였다.

운곡벌에 태를 묻고 그 땅에 정을 잇고 사는 조로인은 몇해전 운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작업반장이였었다.

그는 일생을 작업반의 포전들에서 높은 수확고를 내기 위해 아글타글했다. 그의 집 벽에는 지난 기간 농사를 잘 지어 받은 표창장과 훈장증서들이 주련이 걸려있었다.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온 오늘에도 청년작업반 윤경의 분조에 농장원으로 등록하고 농장의 휴식일인 오늘에도 영농공정들을 앞지르며 일손을 잡고있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그러다가 앓으시면 어떡하나요. 할아버지가 앓으면 운곡사람들이 다들 우리를 욕할거예요.》

《아니, 그런 말일랑 말어라. 너희들은 다 모른다.》

고개를 흔들던 로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발더듬을 하고 목을 길게 빼며 담너머를 살피보았다.

《너희들 오늘 경연날이지.》

로인은 방문을 열고 옷걸이에 걸린 잠바옷을 손짓하면서 중언부언했다.

《밤늦게까지 옷을 다리고 거울을 앞에 놓고 기타를 타며 연습해보드랬는데... 이 애가 왜 아직 못 올라? 순아야, 너희들은 먼저 회관에 가서 준비를 하려무나. 윤경인 인차 올게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먼저 가요.》

《할아버지, 윤경동무 빨리 따라서라고 해요.》

순아와 수범은 겨뭇내기로 말을 남기고 윤경의 집을 나섰다.

마을을 품어안고 솟아있는 미라산아래 둔덕길로는 명절옷처럼 차려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농장문화회관으로 향하고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순아와 수범의 결을 무심하게 지나치지 못하였다.

《운곡이 뒤지면 안되지. 전국의 협동농장들이 바짝 뒤따르며 추격전을 벌리고있는데 군중문

화에술에서도 까마득하게 앞서야 해!》

사람들의 고무와 격려를 기꺼이 받으며 순아와 수범은 종종걸음을 놓고있었다.

《야, 멋있구나!》

갑자기 귀가에서 터치는 환성에 순아와 수범은 와들썩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분조의 막내가들인 리옥이와 영금이였다.

《수범동지! 정말 멋있어요. 이번에도 시내에 들어가서 머리깎았나요?》

천진스런 그들의 물음에 수범은 어망창하니 놀라는 시늉을 하며 사위를 두릿거렸다.

《여, 분조장 들었다가는 큰일 날 소리 탕탕 하며 그래? 이 수범이가 또 욕을 먹었으면 해?》

리옥이와 영금은 자라마냥 목을 쭉 움츠러뜨렸다. 그러면서도 입은 쉬지 않는다.

《아니, 아니... 우린 그 머리가 아예 멋진 신식 머리형태가 돼서 혹시 하는거예요.》

《요것들! 아직도 이 강수범이 그렇게 다른데만 넘보는 사람 같애? 이 머리는 분명히 우리 운곡협동농장리발소에서 깎은거란 말이야. 알겠어?》

《어마나!》

처녀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순아는 한쪽옆에 서서 방그레 웃음발을 띄웠다. 처녀들이 하는 말에 다 쪼간이 있었던것이다.

...지난 이른봄에 도시의 오수정화장에 거름을 실으러 갔을 때였다.

그때 수범은 휴식시간에 기타를 수리하러 간다며 시내에 들어갔다가 리발소에 들려왔었다. 흰하고 너부죽한 수범의 얼굴이 생신하고 기백있는 머리형태로 하여 아주 미끈해보였다.

총각들과 처녀들이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며 와와 떠들어댔다.

《야, 멋있는데.》

《수범동무, 이제 보니 아주 멋진 미남자구만요. 몰라봐서 안됐습니다.》

이리쫓고 저리쫓는 분조원들의 말절구질에 수범의 얼굴이 벌겋하게 달아올랐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것이 그만 분조장 윤경에게서 뉘꼴로 돌아올줄이야.

《휴식일에 시내에 있는 선경리발소에 다들 가서 깎으라구. 우리 농장에서야 이런 머털 절대 흥내 못 내지.》

돌연히 윤경의 말이 울리였다.

《수범동무, 제집 터발을 한번 가꾸어봤어요?》

그만 수범은 얼떠름해서 대답했다.

《아니, 가꾸어보지 못했어.》

《아하, 그러니 제것에 대한 애착심이 없었군요. 우리 농장 리발소에서 머리 한번 깎아보구 그런 말 하라요.》

윤경은 차거운 표정으로 맵싸게 내쏘았다. 그리고는 수범이가 늦어진 시간만큼 연장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처녀들은 그때 일을 되살리면서 지금 수범을 시까스르고있는것이였다.

《꼭! 무조건 1등해야 해요, 알았지요?》

처녀들은 그루박아 다집하는 야무진 목소리를 남기고 팔랑팔랑 날듯이 뛰어갔다.

문화회관쪽으로 멀어져가는 그들의 뒤모습을 쫓던 순아는 수범의 놀란 목소리에 시선을 돌리었다.

《아니, 심사성원들이 아니야?》

등실한 얼굴에 함뿍 미소를 머금은 녀성관리위원장이 방송선전차에서 내려 뒤따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참이였다. 녀성관리위원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기는 나이지숙한 사람의 모습이 순아의 눈에 비쳐들었다.

《아이, 선생님이? 수범동무, 빨리!》

순아는 무작정 수범을 다그어대며 공 튀듯이 쿵 쿵 달려갔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로서 도예술단에서 부단장사업을 맡아보고있었다. 순아의 집에 무릅없이 찾아와 아버지와 창작토론도 하고 순아의 노래도 즐겨들어주곤 하던 대학동창생.

순아는 그의 자신만만하고 무게있는 인품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심사의 중임이 그에게 맡겨져있다고 확신하게 되어 막 가슴이 설레었다.

《아!》

순아의 넘쳐나는 기쁨이 걸음보다 앞서 부단장의 가슴에 물뿔기쳐갔는지 순아를 뒤돌아보던 그의 눈이 번쩍 빛을 뿜었다.

그는 달려와서 깊숙이 고개숙여 인사하는 순아의 손을 끌어당겨 일행앞에 내세워주었다.

《이곳 운곡중학교 음악교원인 정선생의 따님이요.》

그리고는 한발작 뒤로 물러서며 순아에게서 감탄어린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정말 몰라보겠는걸. 우리 순아의 모습이 막 눈이 부시는구나.》

이때 관리위원장이 끼어들었다.

《이 동무가 오늘 경연에 출연할 우리 농장의 씨꿀새랍니다.》

《아!—》 부단장이며 심사성원들이 의미있는 탄성을 지르며 다시한번 순아를 여겨보는상싶었다.

부단장은 순아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한번 잘해보거라.》

《예.》

순아는 허아래소리로 대답하며 수집게 머리를 숙였다.

관리위원장은 출연종목의 높은 심사결과가 벌써 발표되기라도 한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띄웠다.

《우리 잘해보자요.》

기대와 믿음이 어린 여러쌍의 눈길을 받고보니 순아의 마음은 긴장되고 초조해졌다. 그는 무대위에 오르면 몸둘바를 몰라하는 수범을 심사원들앞에 내세우고 인사를 시키면 배심이 든든해질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마침 떠올랐다. 그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며 수범을 불렀다.

《수범동무!》

하지만 수범은 황새처럼 목을 길게 빼들고 기웃거리며 오는 사람들이 뜸해진 앞길에 정신을 파느라 순아의 부름도 듣지 못하고있었다.

순아는 달려가 수범의 등을 팡 쳤다.

《심사원선생님들에게 인사를 시키려했는데 뭘 그러고있어요?》

심사성원들은 시간이 다 됐다면서 회관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아참, 이거 심상치 않다?》

수범은 혼자말하며 두덜거리었다.

《경연에 오지 않을셈인가?》

순아는 그러는 그에게 물었다.

《뭘 말이에요?》

《뭉किन 뭉야. 윤경동무 말이지. 아직도 오지 않으니.》

그는 쓰겁게 두덜거리었다.

《아유, 걱정두... 윤경이가 오지 않을가봐 그래요?》

수범은 순아의 말을 듣는등마는등하며 픽 돌아서더니 돌멩이 던지듯 한마디 내뱉었다.

《그 머리속에 농사밖에 더있어? 몰라서 그래?》

수범은 농사일을 놓고는 한치의 리해와 양보도 없는 윤경에게 농사밖에 모른다고 내놓고 말해오는터였다.

회관안에서는 드디어 경연이 시작되었는지 약기소리며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순아는 노래소리와 짹 짹 울리는 기세찬 박수소리를 들으며 속을 바글바글 끓였다.

그는 참을성을 잃고 몇발자국 걸어서 회관을 내려서다가 다시 되돌아섰다. 그러기를 그 몇번...

그러는 순아에게 회관안에서 혈금씨금 달려나온 수범은 부채질을 해댔다.

《우리 순서가 뒤로 밀리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구나. 우리 둘만이라도 출연해야지 않을까.》

《윤경인 꼭 와요.》

《...》

《그렇겐 못해요. 내가 갔다오겠어요.》

순아는 또다시 터져오르는 박수소리를 더 들을 수 없어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순아가 착잡한 생각에 떠밀려 윤경의 집 대문을 급히 열었을 때 마루에 놓여있던 파란 장화가 윤경을 대신하여 대답이나 하듯이 반짝 빛을 뿜었다.

《윤경인?...》

날을 세운 낫가락들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서 물기를 말리우던 조로인이 망연히 서있는 순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펄쩍 뛰었다.

《아이구, 이 애가 왜 아직...》

《예?!...》

《무슨 일이노? 데리러 가야 할걸... 이 정신 바라. 애 순아야, 여기서 좀 기다리거라.》

덤벼치며 맥락이 닿지 않게 중얼거리다 천방지축 달려가려는 로인을 보며 순아는 자신을 탓하였다.

(누굴 바랄것없이 내가 데리러 가야 했을걸...)

지금쯤 회관에서는 무대출연자들이 우렁찬 박수갈채속에 휩싸여있을것이었다. 영금이와 리옥이, 우리 분조원들, 운곡의 농장원들이 우리의 순서를 기다릴것이다. 그리고 심사석에서는...

드디어 순아는 돌아서서 고래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보라빛들국화가 무덕무덕 어우러진 둔덕길은 누런 들판색과 조화를 이루어 참말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순아는 조화로운 자연의 경치도 감상할 겨를이 없었다.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달려가던 순아는 우뚝 멎어섰다.

저앞에 강뚝을 경계로 고래논이 펼쳐진 곳에서 분조의 청년들이 벽적대며 일하고있었던것이다. 강뚝쪽으로 배수로를 치느라고 복탁소동을 일쿠고 있었다. 논에 차있는 물을 뽑고 아래쪽엔 물웅덩이를 만들며 물을 퍼내고있었다.

언제 왔는지 회관앞에서 만났던 리옥이와 영금이도 보였다. 아마 순아가 윤경의 집에 들린새에 그들은 곧장 이리로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만 순아는 맥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윤경이가 원망스러웠다. 그가 너무 고까와 눈

물이 핑 돌 지경이었다.

(윤경이, 너만, 너만 이 고래논의 농사를 책임졌데? 어쩌면 그렇게 혼자 불안고 애태울수 있어?)

뒤쪽에서 조로인의 목소리가 순아의 귀전에 울려왔다.

《애, 순아야! 이거 정말 안됐구나. 경연에 못참가해서 어떡한단 말이나? 내가 억지다짐으로라도 윤경일 끌고왔어야 하는건데... 이 늙은게 정말 안됐다.》

순아는 눈물을 씻어내며 조로인에게 막 들이댔다.

《할아버지! 윤경인 너무해요. 어쩔 저만 농사일을 책임진 사람인것처럼... 제가 분조장이라는 거예요?》

순아의 항변에 조로인은 말없이 그의 어깨만 투덕투덕 다독여주더니 신중한 어조로 말을 시작하였다.

《순아야, 내 애길 좀 들어봐라. 내 이제 억장이 무너져앉는것 같은 이야기를 너에게 하마.》

...조로인은 작업반장을 하던 가마해 가을날에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왔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반장에게 이삭당알수가 몇알인가 물으시었다. 그는 한알한알 세어 200알에 가까운 알수라는것을 대답올리었다. 그이께서는 벼알의 무게, 이삭의 무게를 손수 계산해보시고 벼이삭들이 알차게 영글면 정보당알곡수확고가 10톤이 넘을것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시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그런데 어버이장군님께 세여드렸던 그 벼이삭에서 몰알이 들었던 벼알들중에 반쪽정이가 몇알 나올줄이야...》

자책에 푹 잠긴 조로인의 말이였다.

《반쪽정이가요?》

순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듯 했다.

《글쎄 말이다. 그 벼이삭이... 그래서 다음해엔 한알도 쪽정이가 없는 벼이삭을 장군님께 보여드리자고 했는데 그만 우리 장군님께서 다시는 이 운곡땅에 오시지 못하게 될줄이야. 난 땅을 치며 통곡했다. 죄도 이런 큰 죄가 어디 있단 말이나. 그 사연을 나는 윤경에게 터놓았지. 그때부터 윤경인 달라지더구나. 더 이악을 부리며 내가 다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도... 아마 오늘도 그래서... 그래설거다.》

《...》

할아버지의 반쪽정 이야기에 순아는 가슴이 무

너저내리는것만 같았다. 어쩌면... 어쩌면...

《내가 한 말때문에 그 애가...》

할아버지는 순아에게 또 되뇌었다.

순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후두둑 뿌려졌다.

《아니예요, 할아버지. 그런게 아니예요.》

순아는 아래입술을 감빨았다. 그러다가 용수철에 튕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고래논을 향해 몇발자국 옮기다가 다시 멎어섰다.

운곡벌의 그 어디에나 어버이장군님의 발자취가 깃들지 않은 곳은 없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농장원들이 새집에서 휴식을 하던 일요일에도 찾아오시여 농장이 나갈 길을 밝혀주시고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 운곡벌에 불어에는 바람결에서조차 들려오는데 나는 장군님의 유혼판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던가.

윤경은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그 그리움을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고 알차게 벼이삭들을 키우고있는데...

순아는 가슴이 찢기듯 하였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밤에도 조로인과 윤경은 고래논의 벼이삭들이 걱정되어 뛰쳐나갔지만 나는 세상모르고 요람속에서 달콤한 꿈속에 있지 않았는가.

조로인의 말이 다시금 귀전을 울린다.

《이 운곡벌에 또다시 찾아오시는 장군님앞에 알차게 영글은 벼이삭을 내놓고 죄를 씻으려 했는데 이제 이 죄많은 백성이 어디 가서 용서를 받는단 말이냐? 그래서 윤경이 그 애는 이 할아버가 못다한 몫을 다해서 알찬 이삭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여드리겠지구...》

순아의 가슴은 하얗게 옥죄어들었다. 막 태질하며 울고싶었다.

윤경이! 친한 내 동무 윤경! 나는 지금껏 너를 제일 잘 아는 동문 나라고 생각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동무도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데...

이때였다. 누군가 살며시 순아의 어깨를 그리안았다.

《순아, 내가 늦었지? 내가 잘못했어. 그만 일에 파묻히다보니 이렇게 되였구나.》

순아는 돌아서서 울먹이며 윤경을 끌어안았다.

《분조장동무! 같이 오면 못쓴대? 왜 혼자만 이 땅을 불안고 애쓰는거야. 이 순아를 그렇게 계속 어린애처럼 어루만지니 내 가슴엔 쪽정이만 남지 않니. 그러면서도 내 동무라고, 둘도 없는 동무라고...》

순아는 막 울분을 터놓았다.

《순아, 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니? 새삼스레 분조장은 또 무슨...》

윤경은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는 《내가 늦은건 후에 비판하자꾸나.》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순아는 더는 참을수 없어 윤경을 부둥켜안았다.

《윤경아, 나를 용서해. 내가 채워야 할 빈자리를 채워주고, 동무들이 채워주고, 난 빈 쪽정이만 남았어. 그런데도 너를 고깝게 생각했던 나를...》

이들에게로 리옥이와 영금이 다가오며 말했다.

《순아동지! 안됐어요. 우리가 분조장동질 빨리 보내야 했을걸 늦었어요.》

순아는 가슴속에 일어번지는 뜨거운것을 어떻게 녹작힐지 알수 없었다.

《아니, 동무들! 나를 이해해줘. 오늘 못 부른 노래는 래일 다시 부를수 있지만 우리가 맡은 나라의 쌀독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수 없고 마음속 량심의 빈 쪽정이는 누구도 영글게 해줄수 없어요. 그걸 나는 오늘애야 깨달았어. 다시는... 다시는... 동무들!》

이때 수범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다.

《분조장동무! 순아동무!》

《수범동문 또 뭐야?》

다들 의아한 기색으로 모여들었다.

《동무들! 우리 기타3병창을 현지에서 심사해주기로 했소.》

《예?》

《야!》청년들이 짹짹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렸다.

관리위원장이 심사성원들에게 고래논이 물에 잠기면 벼이삭들에 쪽정이가 생길까봐 처녀들이 오지 못하는것 같다고 사정을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심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운곡벌처녀들의 마음이 정말 다르구만.》

《그래서 운곡벌처녀들이지요.》

관리위원장이 자랑겹게 말했다.

심사성원들은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현지심사를 해야겠구만.》

그 말을 듣고 달려온 수범이었다.

아니나다를가 저쯤 뒤에서 심사성원들이며 관리위원장과 함께 청년작업반원들이 고래논을 향해 오고있었다.

아버지의 동창생인 도예술단 부단장이 다가와 순아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우리 순아가 결만 이쁘게 자란게 아니구나.

이젠 당당한 실농군이 되었는데.

순아는 살때살때 머리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 아직 전 멀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엔 그런 실농군으로 곧바로 자랄겁니다.》

드디어 고래논둑에서는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만가을의 누런 벼이삭이 물결치는 포전을 배경으로 파아랗고 높다란 하늘의 작열하는 태양빛아래서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정다워 정다워 정다워 사랑의 그 미소  
따뜻이 따뜻이 따뜻이 비끼여 흐르네  
한없이 자애론 그 미소 가슴에 안으면  
이 마음 봄날처럼 행복에 설레이네  
아 친애하는 그이의 미소

그리움의 노래였다. 이 땅의 천만심장들에서 하얗게 샘솟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버릴수도 묻어버릴수도 없는 위대한신분에 대한 잊을수 없

는 노래, 사무치는 그리움의 노래였다.

깊은 명상에 잠겨 노래를 감상하던 청년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합치었다. 서로서로 팔을 걷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어깨는 알찬 이삭들이 일렁이듯 가볍게 물결치었다. 이보다 더 조화로운 안삼불은 없으리라. 자리에서 일어난 조로인도 말없이 그들의 곁에 다가가 팔을 끼었다.

흙모와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득찬 그들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졌다.

평양하늘가 저 멀리로!...

빛나라 빛나라 빛나라 태양의 그 미소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모시고 따르네  
열정에 불타는 그 미소 강산에 넘치여  
희망의 밝은 미래 찬란히 안겨오네  
아 친애하는 그이의 미소

황금나락 물결치는 드넓은 들에 백학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있었다.

## 마음이 이끌어

박 정 애

비내리는 산기슭 길을 따라  
나는 집으로 가네  
누가 내 걸음 멈춰세웠느냐  
폭우에 무너진 웅벽의 막돌 몇개...

우산을 두드리며 퍼붓는 비...  
나의 집 불빛은 나를 부르건만  
선뜻 걸음 옮길수 없네  
무너진 웅벽이 나를 붙들어

내 만약  
그냥 지난다면  
저 웅벽우에 받들린 과원은  
그 과원에 무르익은 과일들은...

비는 내려 옷섶은 적셔도  
나는 웅벽의 석축을 다시 쌓았네  
천년 내 집의 주춧돌을 고여놓듯  
만년 내 조국의 주춧돌이 흔들리지 않게!

## 상 식

### 폐기된 건전지에 의한 환경오염

자료에 의하면 땅속에서 한개의 손가락형 건전지가 부식될 때 그로 인한 후과는 1㎡의 토양이 그 리용가치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것과 비교할수 있다. 한개의 단추형 건전지는 600t의 물을 오염시킬수 있는데 이것은 한명의 사람이 일생동안에 마시는 물의 량과 맞먹는다.

건전지속에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은, 연, 카드미움, 망간 등과 같은 여러종의 원소들이 포함되어있다. 다 쓴 낡은 건전지를 생활오물과 섞어서 같이 매몰하거나 버리면 거기에서 새어나오는 수은과 중금속물질들이 토양과 땅속물에 스며들어가 농작물과 물고기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인류의 생존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에 간접적으로 위협을 주게 된다.

폐기된 건전지에 의한 환경오염과 그 처리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그러므로 다 쓴 낡은 건전지는 다른 생활오물과 분리하여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 환상

리창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고 리상이였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하루빨리 이 땅 위에 일떠세우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에서 타오르고있는 거세찬 애국의 불길이다.

이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고무추동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의 임무가 자못 중요하다.

그러자면 새 세기 산업혁명, 최첨단돌파전의 기수가 되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시대의 전형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과 함께 과학환상문학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과학환상문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탐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환상적수법을 통하여 보여주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과학환상문학은 인간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자연의 비밀이 밝혀지며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은 최첨단기술수단들이 개발될 미래의 생활을 묘사한다.

과학환상문학을 적극 창작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지식을 배워주는 동시에 과학에 대한 탐구심, 자연을 정복하려는 의욕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과학기술의 힘에 의하여 더욱 휘황해질 미래에 대한 동경과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과학환상문학창작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최근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드물게 발표되고있는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과학환상문학창작에 낮은 적게 돌리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작가들은 사람들을 새로운 과학기술탐구에 적극 고무추동하는 과학환상문학을 적극 창작함으로써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환상을 필수적요구로 제기한다. 환상을 떠나서는 과학환상문학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이다.

환상은 직접 체험해본적이 없는 사물현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것을 말한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인간의 힘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비상이 발전할 미래를 환상적수법으로 그려낸다는데 과학환상문학이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과학환상문학에서는 미래의 생활을 반영하는 환상에서 무엇보다도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상소설에서 환상은 허황한 공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환상소설에서 환상은 력사와 과학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생활의 진실에 발을 붙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환상은 허황한 공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과학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에 대한 환상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여야만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힘을 안겨줄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상은 아직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로 지향하는 상상과정이다. 환상에는 사람들이 바라고 념원하는것이 담겨지게 된다.

과학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한 창조적환상은 유익한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래일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준다.

미래에 대한 환상에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과학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진실에 토대

하여 자기가 녀원하고 바라는것, 실현가능하며 앞으로 꼭 실현되어야 하는것을 그려낸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환상의 과학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과학기술교재에서처럼 빈틈없는 논리에 맞게 취급할것을 요구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과학환상단편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신승구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100(2011)년 7호〕의 주인공인 공업대학 박사원생 김철민은 국제발명전시회에서 두번씩이나 1등을 한 유능한 과학자이다. 그는 동해의 어장에 물고기떼가 옥실거리게 할 원대한 포부를 안고 인공광선을 얻기 위해 가속기실험을 하다가 생을 마친 김해동연구사의 아들이다.

그는 바다의 물고기떼를 회오리수송관을 통하여 직접 화물역의 무개화차에 싣기 위한 실험에 성공한다. 작품에서는 그가 해저병원 랭동치료실에서 5년동안 잠들어있는 생활이며 회오리관을 타고 날아오르는 생활, 그의 아버지가 바다물에 산소를 주입하여 마름류들이 무성하게 자라 많은 물고기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생활 등 아직 우리 현실생활에서는 볼수 없는 이야기가 환상적수법으로 펼쳐져있다.

이것을 두고 아직은 그 현실성을 담보할수 없는 생활이라고 하여 과학성이 없다고, 동화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만약 독자들이 이 소설을 보고 아직까지 동해어장들에서 마름류들이나 떠살이식물들을 인공적으로 왕성하게 키워 많은 물고기들이 정착되어 살도록 하지 못한다고, 또 회오리수송관으로 물고기들을 바다에서 빨아올려 화물역 무개화차에 직접 싣는 방법으로, 즉 배도 그물도 없이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느냐 하면서 그의 과학성여부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과학환상작품에서 환상의 세계를 무시하는것으로 된다.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으며 잡은 물고기를 부리우고 운반하는데 품이 많이 들고있지만 미래에 가서 작가가 상상하는것처럼 회오리수송관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지 누가 알랴!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와 타당성에 기초한, 앞으로 물고기를 더 쉽게, 더 많이 잡으려는 유익한 작가의 환상인것이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취급된 환상적인 내용들이 꼭 사실로 될수 있는가고, 더우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할수는 없다. 증명된 가설이 가설로 될수 없는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상은 환상

이 아니기때문이다.

문제는 그 환상이 현실발전의 요구와 과학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러한 환상은 대담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과학환상단편소설 《퇴성이 울린 후》〔리금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8(2009)년 6호〕를 보기로 하자.

작품에서 언급된 생물공학연구소 연구사 심정아가 연구해낸 인체대뇌의 생물전기파를 증폭하여 보내는 일종의 먼거리송신기를 비롯하여 선체둘레를 둘러막은 방위마당, 《붉은 번개》로 불리우는 특수한 빛줄기무기—이 모든것은 다 작가가 환상으로 꾸며낸것이다. 하지만 이 환상들은 다 일정한 과학적논리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결코 허황하게 안겨오지 않으며 대담하고 통쾌한 환상세계로 안겨오는것이다.

과학환상문학은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을 대담하게 펼쳐 사람들을 과학탐구의 세계로 이끌며 그들로 하여금 과학탐구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야 한다.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을 반영한 과학환상문학은 독자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열렬한 탐구심을 키워 줄뿐아니라 그러한 과학적환상들을 자신이 직접 실현하려는 열망과 투쟁정신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과학적세계관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작가의 환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 과학적환상으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식 환상을 적극 펼치는 것이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우리 식 환상이란 현실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환상으로서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이지만 아직 탐구되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한 가설에 기초한 작가의 환상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성과 혁명성을 띤 구체적인 환상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식 환상은 아무런 인식교양적의의도 없는 공허하고 막연한 환상, 미래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줄 대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희롱하고 최신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허무와 공포를 자아내는 부르쵸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과학환상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우리 식 환상은 그 어떤 신화적환상이나 중세기



# 청춘시절의 랑만

변혜영

비가 내린다  
농촌길에 논과 밭에  
청년분조처녀들이 사는  
아담한 집 마당가에 프락프락적재함에

이런 날이면  
떠올라라  
그들과 함께 일하던 여름철  
현지체험의 갖가지 생활의 추억들

읍에서 수십리  
작업반에서도 떨어진 곳  
분조장도 처녀 기술원도 처녀  
비오는 날이면 애들처럼 좋아하던 모습

너도나도 비웃을 떨쳐입고  
온종일 산판에서 풀베기를 하였지  
경쟁도표의 높이는 풀더미의 높이  
경쟁열에 더 높아지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흐르는 땀 비물이 씻어주니 좀 좋아  
온종일 낫질해도  
몸달지 않으니 좀 좋아  
낫가락은 또 얼마나 말 잘 듣고

또 한단 잼싸게 묶어던지며 깔깔  
헤덤비며 풀단 묶는 나를 보며 깔깔  
풀베기노래를 지으면  
저희들이 선참 부르겠다네

비가 세찰수록  
일손엔 불이 더욱 일어  
청춘과 비는 걸맞는 동무  
고운 비웃 이때에 입어보고 뽐내야지

곳은 날이면  
별스레 극성인 청년분조처녀들  
산골마을 크지 않은 땅에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 넘쳐한 그들

이런 수수한 처녀들  
그러나 나라위한 마음은 수수하지 않은 처녀들  
비오는 날이면  
눈앞에 떠오르는 그들의 랑만찬 모습

아, 순간이라도 안일과 태만이 있을세라  
고운 마음 더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며  
애국의 마음 대순처럼 키워가는  
비오는 날의 생각이여!

-----

적환상과도 질적으로 구별된다.

우리 식 환상을 펼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의 현실에 철저히 발을 붙이는것이다.

과학적환상을 대담하게 펼친다고 하여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 그것은 허공중에 뜬 환상, 우리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허망한 환상으로 되고만다.

과학적환상은 결코 아득히 먼 별나라의 세계나 그 어떤 추상적인 세계에 대한 기발한 환상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환상을 하나 펼쳐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혁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상, 우리의 현실이 절실

하게 해결을 기다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환상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라야만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이 우리 주체혁명위업과 주체문학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참신하고 독창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우리 식 환상을 대담하게 펼친 과학환상문학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에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작가들이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 하여야 할것이다.



로 정 법

나는 유년시절을 외할머니의 슬하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군대로 나갔고 1년후에 어머니도 요근에 설립된 애육원으로 떠나갔다. 그때 내 나이는 일곱살이었다.

우리 집엔 식구가 많았다. 나보다 두살 아래인 누이동생 정옥이와 나보다 두살, 네살 우인 고모 사촌형들, 나와 내 누이동생또래의 이모사촌형제들인 광현이와 광옥이가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광현의 아버지는 군대로 나가 전사하였고 어머니는 폭격에 돌아갔었다. 비둘기처럼 외로이 남은 오누이를 할머니가 데려왔었다. 형들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전쟁은 앞으로도 꽤 오래 갈것이라고들 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상처는 깊었으니 공장과 농촌의 파괴상보다 사람들의 가슴에 패인 상처가 더욱 깊고 참혹하였다. 식량은 발랐고 땀 것도 넉넉치 못하였다. 사정없는 겨울의 추위가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그렇다고 껌 입을 변변한 웃도 없었다.

장거리입구 전재민구호위원회에서는 쌀이 없는 사람들에게 식구수를 꼭꼭 따져가며 크지 않은 그릇으로 쌀을 되여주었다. 불타는 창고에서 끄집어낸, 그래서 저절로 고소하게 닦아진 강냉이나 콩, 좁쌀과 수수를 내주었다. 그때 우리는 할머니에게 닦은 콩을 타러 가자고 조르곤 하였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번도 그리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 어머니 직장에서 우리앞으로 보내오는 국가식량공급표에 의해 보름에 한번씩 쌀 절반, 잡곡 절반씩의 식량을 공급받고있었으니 우리가 조르는 그 닦은 콩은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주는것임을 알리 없었다.

두 형은 학교로 가고 할머니마저 다리복구장으로 간 뒤 우리 네형제는 놀다놀다 심심하여 닦은 콩주는 곳으로 가곤 하였다. 그러면 쌀을 되여주던 키가 크고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웃마을할머니네 애들이로구나.》하면서 잘 닦아진 콩을 골라 우리들의 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워주곤 하였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는 우리들을 모아 앉혀놓고 누가 먼저 가자고 했는가고 엄하게 따졌다.

장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잘 알고있었다. 혹 모르는 사람들도 옆의 어느 사람이 웃마을할머니네 아이들이라고 하면 인차 머리를 끄덕이며 《너희들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겠구나.》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쌀을 내주는 키 큰 아저씨도 거기에 오구구 모여선 아이들을 보고는 껍뻑 고향치며 쫓다가도 우리들을 보고는 인차 반갑게 웃어보이고 아이들 몰래 눈을 꾀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머리를 기웃거리곤 하였다.

《왜 그럴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다 반가와하지.》 하고...

《깍쟁이로친》이라고 소문난 장거리 떡장수 할머니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반개씩 먹으라고 떡두개를 집어주곤 하였다. 《왜 그럴가.》 우리는 그 영문을 할머니에게 묻곤 하였다. 그러면 할머니는 대답을 피하고 그저 《그런데로 자꾸 가지 말아.》 하는것이였다.

전재민구호위원회에서는 옷가지도 내주곤 하였는데 맞는것이 별반 없었다.

사람들은 작은것은 바꾸어가고 큰것은 군말없이 그저 타가곤 하였다.

어느날 우리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키 큰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다. 《너희 집 식구가 몇이지?》 하고 묻더니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와 형님들까지 모두 일곱이로구나.》 하고는 어른들의 큰 옷저고리 일곱개를 내주었다. 그리고는 쌓인 옷가지를 이리뒤척저리뒤척하더니 거기서 고리에 붉은별이 새겨진 띠 두개와 펑 클사한 솜신 두 켤레를 골라 나와 광현에게, 목도리 두개를 골라 내 동생 정옥이와 광옥에게 주었다. 우리는 너무 기뻐 《야.》 하고 소리치며 집으로 달음질쳐왔다. 할머니는 또 어디로 일을 가고 없었다.

우리는 발아래까지 폭 내리쬐우는 옷을 입고 어른이 다되었다고 기뻐하였다. 일갔다 돌아온 할머니가 이번에도 준절하게 꾸짖었는데 나중에는 혼자소리로 《원 쫓쫓, 우리보다 없는이도 많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광술불아래 둘러앉아 가져온 옷을 몸에 맞게 썩둑썩둑 잘라내어 바느질을 하는 할머니에게 어서 자기것부터 지어내라고 졸랐었다. 신발은 형이 꼭 맞게 고쳐주었는데 그것은 펑 간단한 일이어서 우리는 그후에도 큰 신발이 생기면 우리 손으로 앞코에 솜뭉치를 박고 신바닥에는 두툼한 깔개를 깔아 신었다.

어디선가 멀지 않은 곳에서 폭격이 심한 이튿날 아침이면 우리 집 앞길로는 기관단총을 멘 내무원 아저씨가 고삐를 잡고 끌고가는 소달구지우에 슬픔이 어린 아이들이 두툼하게 누빈 군대솜저고리 속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엄마가 있는 표군쪽으로 흘러간 길을 따라가곤 하였다.

나는 그들이 어느때나 그리운 나의 엄마가 있는 곳, 표군쪽을 향하여 간다는것으로 하여 부러움과 쓸쓸한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보곤 하였다.

그 길은 미루나무가 두줄로 총총하게 늘어선 동쪽길이었다. 나의 엄마는 그 길을 따라 떠나갔었다. 언제고 갑자기 엄마생각이 나면 쓸쓸한 마음으로 나와보곤 하던 길이었고 외롭고 그리움에 잠 못드는 손녀를 달래주고 할머니도 자주 나오곤 하던 그 길이었다.

저 멀리 오른손에 연자주빛보꾸레미를 들고 흰 버선에 흰 고무신을 신고오는 사람이 엄마가 아닐까, 그 사람이 어서 가까와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가 엄마가 아니란것을 알아보고는 그냥 머리를 숙이고 기여다니는 개미를 할일없이 꼭꼭 밟아주던 내 동생 정옥이가 자주 나오던 그 길이었다.

엄마는 저 앞길로 오겠는데 뒤쪽으로 꼭 엄마와 같은 흰 저고리에 까만 당목치마를 입고 엄마와 비슷한 걸음새로 올 때면 지름길로 온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나오는것이냐 아닌지 하고 호드득 뛰는 가슴을 안고 돌아섰다가는 울상이 되어버리던 그 길로 지금 애들을 태운 달구지가 굴러가고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자욱 뚜렷하고 뽀얗게 먼지낀 얼굴과 몹시 놀란 눈동자에서 그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애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그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려 우리들 몰래 코언저리를 훑치곤 하던 할머니의 몸가짐에서, 그러다가는 갑자기 생각난듯 집으로 달려들어가 쥔 감자와 같은 싸서 건사하기 쉬운 음식을 종이에 뭉그러가지고 달구지를 쫓아가던 할머니의 행동에서 그 애들이 바로 나의 이모사촌형제들인 광현이와 광옥이, 나의 형들과 같은 애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광현이와 광옥에게는 나의 엄마인 자기들의 이모가 있고 욱도 자주 하고 어떤 때는 아프게 매를 들지만 배고플세라 끼니마다 무엇인가 더운 음식을 꼭꼭 끓여주고 서럽고 외로울세라 가슴에 살들히 부둥켜안아 잠재워주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곤 하였다.

《할머니, 저 애들은 할머니도 없나부지?》

광현이도 물었었다.

《할머니, 저 애들은 이모두 없나?》

그러면 할머니는 눈굽을 찢고나서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목메여 말했었다.

《아니란다. 있구말구, 아버지도 있구 엄마도 있단다.》

《집도 있나?》

《집도 있단다.》

《방공호겠지...》

《아니란다. 해빛밝구 따뜻하구 포근한 잠자리도 있는 집이란다. 거기에는 옛말 잘하는 선생님도 있단다. 풍금도 있구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동생들도 있단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애들은 아버지도 없구 엄마도 없구 집도 없거덩. 할머니가 울었지, 난 다 알거덩...》

그랬다. 그때는 몰랐었다. 습기차고 곰팡내나는 어둡시근한 방공호가 아니라 할머니의 말대로 밝고 정갈하고 적비행기도 못 오는 안전하고 아늑

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바 없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 **김일성**장군님의 넓은 품이 그들을 기다리고있다는 것을 알리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를 무서워하였다.

할머니는 우리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성나면 찌리가지로 꼭꼭 석대씩 종아리를 아프게 때렸다. 첫 대에는 울었고 두번째 대에는 잘못을 빌었다. 세번째만엔 울음을 툇 그쳐야 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할머니를 몹시 따랐다. 저녁밥을 먹고 할머니의 옛말도 끝나버릴 즈음 자려고 이불을 펼 때면 우리는 저저마다 할머니곁에 누우려고 싱갱이질을 하였다. 것처럼 할머니는 우리 여섯형제가 의탁하던 우리 집의 기둥이었다. 내 동생 정옥이나 광옥이가 잠결에 엄마를 부르며 호드득 느끼다가도 조글조글한 할머니의 가슴우에 자기의 손이 미처지면 또다시 마음 폭 놓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으니 그 품은 정녕 사랑의 품이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일을 배웠다.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 아이들이라고 그저 놀아서는 안된다.》 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두 형은 숙제를 끝내면 발구나 혹은 지계를 지고 뒤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곤 하였다. 발구에 짐을 가득 싣고 돌아올 때쯤하여 할머니는 우리 네 남매를 데리고 마중나가곤 하였다. 우리는 뒤에서 발구를 밀었다. 할머니, 두 형, 우리 네 동생이 모두 힘을 쓰면 발구는 훑갈린 길도 썩썩 지나갔다. 내리막길에서는 형들이 우리 네 동생을 발구에 태워주었다.

우리는 썩썩 내리달리는 발구우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고 정옥이와 광옥이는 무섭다고 울었다. 뒤따라 내려오던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웃다가 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또 웃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겨울에도 땀나무걱정을 모르고 살았다. 오히려 형들이 공부하는 학교라든가 아들, 며느리를 군대로 보내고 혼자 사는 금덕이 할머니네 집으로 할머니가 자주 나무단을 이고 찾아가곤 하였다.

봄이면 우리는 나물을 켜다. 가을이면 이삭을 주어들였다.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개미네 형제라고 하였다. 농사철이면 할머니를 도와 거름도 나르고 풀도 뽑았다. 아침이면 나와 광현이는

물도 길었고 형들은 장작을 패고 정옥이와 광옥이는 방을 쓸었다.

저녁이면 모두 달라붙어 망질을 하였다. 망돌은 컸다. 우리 집에서 제일 힘이 센 할머니도 스무바퀴만 돌리면 힘들어하였다. 그래 형이 망돌손잡이를 온 식구가 다 잡을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다. 모두 합지주위에 둘러앉아 올망졸망 망돌을 돌리면 망돌은 썩썩 돌았다. 그럴 때면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두 동생은 노래를 받으며 망돌주둥이에 콩이나 강냉이를 먹였다. 망돌은 드르럭드르럭 반주를 하고 합지는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춤을 추었다. 힘들면 우리는 한바퀴, 두바퀴 하고 소리를 내어 썩을 썩었다. 그러면 힘들지 않은것 같았다. 그러다가는 《이백, 삼백, 오백바퀴만 돌리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돌리었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 할머니앞으로는 서마지기의 땅이 있었다. 아니, 남정들이 군대로 가고 녀인들만 남았던 그 시절에는 네 땅, 내 땅이라고 가를수 없는 조국의 귀중한 땅덩어리—결코 한치도 목여서는 안되는 조국의 전야가 우리모두에게 차례져있었으니 할머니는 이 악하게 일하였다. 농사차비, 다리복구, 식량운반, 게다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우리 여섯형제가 할머니의 어깨우에 얹혀져있었다.

할머니는 품앗이나 로력동원에 나갔다 돌아오면 짬나는대로 최독이나 돌각담주위를 돌아가며 강냉이, 콩, 호박, 당콩씨를 박았고 감자를 묻었다. 또 우리들의 군입질을 녀려하여 도마도며 참외, 오이도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때에도 철따라 도마도며 참외를 먹을수가 있었다. 겨울이면 할머니가 걷어들이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삭을 주어들인 고구마나 감자를 화로에 자주 묻을수가 있었다.

할머니에게 차례진 일감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우리 집에는 우리모두가 의논해서 이름지은 《검둥이》라는 개도 있었고 알 잘 낳는 까만 어미닭 《꿀꿀이》도 있었다. 그외에도 병아리가 열마리씩이나 있었다. 이것도 모두 할머니의 손이 가야 하였다. 할머니는 길을 오고가도 거저 지나다니는 법이 없었다.

벌써 심하게 굶어들기 시작한 허리우에 뒤짐을 지듯 가져간 오른손에는 언제 보아도 길가에서 주어진 콩가지며 버이삭, 파편조박 등속이 매달려있었다. 이렇게 모아진 쇠붙이는 형들이 조금씩조금씩 학교로 날라갔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한임씩

모아이고 형들의 학교로 찾아가곤 하였는데 그때면 할머니는 붉은 줄이 쪽쪽 올라간 대문짝같은 게시판앞에 오래도록 서있곤 하였다. 《두 손 주의 이름이 어느바루에나 씌여있노.》 하듯이 손에 들고있던 무슨 풀대를 툇툇 꺾어 입안에 넣고 흐물흐물 씹으며 서있을 때면 주름발이 굵은 할머니의 랑미간은 흐뭇함에 흠뻑흠뻑 펴곤 하였다. 할머니는 우리 집의 어미닭과도 같았다. 나와 광현은 늘 의가 좋지 않았으니 크고 맛있는것이 생기면 나는 내 동생 정옥이를 주려 하였고 광현은 광현이대로 광옥이를 주려 했다. 내가에서 봉어를 잡다가도, 최뜰에서 달래를 캐다가도 그런것때문에 다두고 심술을 부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에 왜 왔니.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해서 광현이와 광옥이를 서럽게 울렸다. 그런 날이면 나는 레외없이 종아리를 걷어올려야 하였고 벌써 두번째 때에는 잘못을 깨끗이 빌고 세번째 때에는 울음을 툇 그쳐야 했다.

어느날 나와 정옥이가 어디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방에서 광현이와 광옥이가 무엇인가 낱낱 맛있게 먹고있었다. 나는 섭섭했다.

(왜 우린 안 주고 광현이네만 준담.)

나는 서러워 울고싶었다. 정옥은 벌써 꼴짝꼴짝 울고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전에도 그런것만 같았다. 꾸지람을 해도 광현이보다 나에게 더 하는것 같고 매를 맞아도 아니, 이제 생각해보니 광현이가 매맞는 일이란 한번도 없었다. 저녁잠자리도 언제나 광옥이한테만 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가 차례였으니 정옥이와 광옥이가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랑옆에 눕는다 하여도 할머니는 분명 광옥이편으로 많이 돌아누웠었다.

나는 이 눈물겨운 차별대우에 대하여 학교에서 돌아온 두 형에게 알렸다. 비록 친형은 아니었지만 형들은 우리 동생들에게 언제나 공정하였다. 작은형은 무슨 영문인지 아무래도 알수 없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렸고 큰형은 광현이가 들을세라 나에게 귀속말로 《그 애들이야 엄마, 아빠가 없지 않니. 그래서 그런거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애들은 배가 좀 고파도 서럽지 않은 법이란다.》라고 타일렸다.

《형도 없지 않나?》

《우리야 다 큰 애들이니까.》...

그때 열한살이던 큰형이 바로 자기는 다 큰 애들이라고 단언했으니 평화로운 시기라면 엄마치마 꼬리를 부여잡고 어리광을 부릴 나이의 내 형

들은 준엄하던 그 시절에는 정말로 다 큰 애들이었다.

큰형은 집에서 아버지구실을 하였다.

엄마에게서 한달에 한번씩 꼭꼭 보내오는 돈을 몇푼 쓰자 해도 할머니는 형들과 꼭꼭 의논하고야 썼다. 할머니는 돈을 조금씩 썼다. 장거리에 나가면 당장 급하게 소용되는 물건도 몇번씩 또는 며칠씩 재다가 사곤 하였는데 우리는 할머니가 제일 눅고 많이 주는것으로만 산다고 늘 쌍 불평이었다. 차별대우에 대한 서러움은 어머니가 휴가차로 집에 올 때에 가서야 다 풀렸다.

어머니가 온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저녁을 먹자고 둘러앉았던 우리 일곱식구는 손가락을 뺨개치고 동쪽길로 달려나갔다. 저앞에서 달려오며 손짓하는 녀인이 꿈결에도 그리던 엄마라는것을 알아보자 우리 여섯형제는 모두 울먹울먹해져서 야— 하고 달려갔다. 맨앞에서 달리던 형들이 우리에게 우정 저주느라고 뒤떨어지자 나와 광현이가 맨앞에서 승벽내기로 달렸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정옥이와 광옥이가 그 자리에 앉아 발버둥쳤다.

우리는 할수없이 그 애들에게 첫자리를 양보하기로 하였다. 둘은 쌍둥이처럼 엄마를 향하여 달렸다. 그 모양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할머니는 눈가에 손을 가져갔다.

두 아이를 한품에 안을듯 마음이 더 급해 달려오던 어머니가 광옥이를 먼저 닮은 안아올리고 볼에 입맞춰주었을 때 나의 동생 정옥이는 새침해서 돌아서버리고 광옥이는 너무 좋아 엄마의 볼에 자기 볼을 가져다대고 손바닥으로는 엄마의 얼굴을 도닥도닥 두드리며 《작은엄마, 작은엄마.》하고 어쩔줄 몰라했다.

정옥이도 한번 안아올려 광옥이처럼 볼에 쪽 소리가 나게 입맞추어주고나서 다시 광옥이를 안고 정옥이를 걸리운채 우리앞으로 걸어올 때 광현은 《자, 바라. 작은엄마가 우리 광옥이를 더 고와하지.》 하는듯 빠기는 눈으로 나를 보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나는 언젠가 형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애들은 배가 좀 고파도 서럽지 않은 법이란다.》고 하던 말의 뜻을 알아챘다. 그러자 바로 지금의 정옥이마음이 되여 섭섭했던 조금전의 일이 씻은듯 내려가고 그다음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새침해서 따라오는 내 동생 정옥이를 닮은 듯 쳐업었다. 광옥이는 엄마품에 안겨오면서 계속 조잘거렸다.

《작은엄마, 내가 더 곱지?》

《응, 그래. 곱기는 광옥이가 제일 곱구 중하긴  
는 큰오빠가 제일 중하지. …》

《중한게 뭐나?…》

그때부터 나는 그아무리 차별대우가 크게 나타나도 너그럽게 리해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장하게 느꼈다. 눈물이 가랑가랑해지곤 하던 정옥이를 형들처럼 타일러도 주었다. 《우리야 엄마도 있구 아버지도 있지 않니. 그래서 그런거란다.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애들은 배고파 운다 해도 눈물이 아니란다. 추워서 울어도 그건 슬픔이 아니란다.》라고…

그다음부터는 큰 봉어를 잡아도, 왕달래를 캐어도 광옥이에게 먼저 주었다.

그런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곤 하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우리 몰래 치마폭을 코언저리로 가져가곤 했었다. 일여덟살 철부지들사이에 오고가는 그 가룩한 행동의 밑바닥에 흐르고있는 눈물겨운 세계를 할머니는 력력히 읽고있었으니 세찬 걱정뒤 끝에 오는 가슴아픔으로 하여 할머니는 울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매를 맞지 않았다.

매맞을 하등의 리유가 없어졌기때문이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매도 광현이를 울렸기때문에 맞았었다. 매보다 더 자주 차례지곤 하던 칭찬도 광옥이를 잘 데리고 놀았기때문이었다. 할머니가 우리들 몰래 씻어내리곤 하던 그 빛나는 눈물방울도 결국은 일여덟살 철부지들의 행동이라고 볼수 없는 그 기특한 양보심에서였다.

도마도나 참외가 익을 칠이면 할머니는 제일 달게 생긴것으로 골라 나와 정옥이에게 한바구니, 광현이와 광옥이에게 한바구니씩을 들려주어 우리를 재너머에 있는 인민군후방병원으로 보내주곤 하였다. 우리는 거기에 가기를 무척 즐겨하였다.

거기에 있는 부상병아저씨들은 모두 나의 아버지를 잘 알고있었다. 광현이 아버지도, 나의 형들의 아버지도 그들은 모두 잘 알고있었다. 어떤 아저씨는 나의 아버지가 미국놈을 감쪽같이 잡아 자루에 넣어가지고 오는 정찰병이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아저씨는 나의 아버지가 용감한 땅크병이라고도 하였다. 말하는 아저씨들마다 서로 다른데 대하여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나의 아버지가 누구보다 용감하다는 그것으로 하여 그 말들을 모두 믿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왜 편지가 없을까요?》하고 걱정하는 광현이에게는 편지를 안하다가 너희들앞에 불쑥 나타나 더 기쁘게 해주려고

우정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날이면 광현이나 광옥은 너무 기뻐 할머니품으로 뛰어들며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정 편지를 안한대.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려다나. …》 하고 웨치는 것이였다.

《그래그래, 그렇구말구. … 나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꼭 맞았구나. …》 하며 할머니도 덩달아 기뻐하였다. 그럴 때는 할머니도 우리들앞에 구태여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녕 기쁨의 눈물이었던지 아니면 엄연한 사실을 놓고서도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써보는 할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대답의 눈물이었던지 나는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알수 없었다.

내 아버지에게서는 편지가 자주 왔다. 형들의 아버지인 고모부한테서도 편지는 두간두간 오고있었으나 정말로 홀로 남은 오누이를 더 기쁘게 해주렴인지 광현이 아버지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편지는 한달에 한번, 어떤 때는 두석달씩 우리의 마음을 태우다가 한번에 석장씩 올 때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동생 정옥이의 입에서 아버지가 보고싶다든가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는 등의 아버지란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날 아니면 그 이튿날엔 편지가 오곤 하였다. 어느 하루인가는 아침에 그렇게 해서 편지를 받아들고 기뻐했는데 저녁잠자리에 누워서 정옥이가 또 불쑥 《아버지한테 도마도 가져다주자.》고 졸랐었다. 그때 할머니와 형들이 마주보며 웃는 말이 《저녁에 또 편지가 오려나부다.》 했는데 정말 그날 밤 마실왔던 금덕이 할머니가 편지 한장을 전해주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기다리는 애태우는 한달 또 한달이 흐를 때면 정옥이의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튀어나오길 은근히 기다렸었고 그래도 말이 안 오면 내가 우정 《정옥아, 아버지 안 보구프니?》하고 억지로 아버지말을 꼬집어내곤 했었다.

편지가 오는 날—그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였다.

그날이면 할머니는 우리들에게 꼭꼭 쌀밥을 지어주었다. 무엇인가 맛있고 귀중한것이 생기면 편지오는 날 먹자고 저장해놓곤 하였다. 그중에도 제일 맛있고 좋은 음식은 광현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오는 날에 먹는다고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전사하라고 맡겨놓은것이였다.

그처럼 편지가 오는 날은 우리 집의 명절이였으니 그 어려운 세월 하루에도 그 몇번씩 죽음의 경

계를 넘나들며 원쑤와 싸우는 가장 귀중한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소식이 우리를 그토록 기쁘게 했던것이다. 더우거나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가 자기들을 찾아줄 때를 애오라지 기다리며 살아가고있는 불쌍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몹성히 잘 싸운다는 소식이 할머니를 그토록 기쁘게 해주었을것이였다.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오면 즉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거기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같이 넣어 보내곤 하였다. 형이 자리에 엎드려 편지를 쓸 때에는 할머니가 내내 그옆에 지켜앉아서 편지내용을 불러주고 마지막에는 안경을 끼고 형이 쓴 편지를 한자한자 읽어보는것이였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도 할머니는 이런 모양으로 보곤 하였다. 물기어린 안경알을 그 몇번이고 닦으며 불빛가까이 편지를 가져다대고 보고 또 보는것이였다.

어떤 때는 어머니한테서 할머니가 잠간 다녀갔으면 하는 편지가 오곤 하였다. 엄마가 할머니더러 왔다가라고 할 때에는 엄마가 있는 애육원의 어느 아이중에 몹시 앓는다든가 몸이 약해져서 농촌에서 구할수 있는 몸보할 그 어떤것을 구해해주었으면 하는것임을 우리는 알고있었다.

《남진이가 어디 앓나?...》

할머니는 걱정하며 우리 형제들을 둘러보는것이였다. 남진이는 어머니가 말아키우는 애육원에서 몸이 그중 약한 아이였다. 우리는 남진이를 잘 알고있었다. 어머니는 휴가를 올 때에도 남진이를 업고왔다. 편지에는 꼭꼭 남진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형님도 편지를 쓰면 그 애의 안부를 묻곤 하였다.

우리 여섯형제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남진에게 무엇을 가져갈것인가를 의논하였다.

《이번에는 우리 셋째가 한번 내알가부다.》

할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이였다. 그것은 내가 말아 키우는 닭중에서 어느 한마리를 내라는 뜻이었으나 나는 이번에도 또 제일 알 잘 낳고 살이 썩 암닭을 잡게 되고야말리라는 생각에 몹시 섭섭했다.

《우리 셋째가 주인이니까 우리 셋째의 승인을 얻어야지. ...》

그래서 나는 할수없이 내 입으로 《골골이.》하고 까만 닭의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는 몹시 대견해하였다.

《용타, 그래야지. 그런 애들일수록 위해야 하

느니라. 그래야 그 애들의 아버지두 전선에서 마음을 놓구 싸움을 잘한다. 닭을 곱해가지구 찾아가보자. 셋째가 났으니 이번에는 셋째도 같이 가자. ...》

나는 눈물이 나도록 기뻐다.

엄마는 이번에도 나에게 새 동무들을 많이 소개하여주었다. 우리는 어른들처럼 어깨를 마주잡으며 한동무로 될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해저무는 줄 모르고 놀았다. 나는 우리가 가져간 밤, 고구마, 당콩 등을 그 아이들에게 주었고 그 애들은 나에게 빵크, 비행기, 권총 등 공장에서 만든 멋있는 장난감들과 입안에 넣으면 넣자바람으로 살살 녹아버리는 사탕이며 과자를 주었다. 나는 거기서 사탕가루와 우유를 넣고 끓인 찹쌀죽과 기름에 튀긴 가재미도 맛볼수 있었다. 거기는 장난감도 많았고 먹을것도 많았다. 옷도 하나같이 고운것을 입고있었다.

그 애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것이라고 하였다. 그 애들이 사는 집은 할머니의 말대로 불 밝고 아늑한 벽돌집이였다.

방마다에는 폭신평신했던 침대가 있고 눈부시게 희디흰 침대요, 두툼한 솜이불이 매 아이에게 하나씩 고루 차려지고있었다.

거기에는 큰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도 있었다.

풍금도 있었고 노래를 잘 배워주는 선생님도 있었다. 거기 애들은 노래도 잘 불렀고 춤도 잘 추었는데 저녁이면 유희실로 나를 데리고가 자기들의 연예공연을 보여주었다. 나는 거기서 영화도 보았다. 거기는 미국놈의 비행기가 못 오는 곳이였다. 뒤산으로 올라가면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고사포병아저씨들이 포를 쏙 걸어놓고있어 미국놈의 비행기는 근방에 얼씬 못한다고 하였다. 그 애들은 자랑이 많았다.

그 애들은 하나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잘 알고있었다. 그 애들은 모두 **김일성**장군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나는 몹시도 부러웠다. 나도 저 애들처럼 **김일성**장군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고... 그때는 미처 헤아릴수 없었다.

장군님의 따사로운 햇빛이 우리 여섯형제에게도 밝게 비치고있음을... 그리하여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김일성**장군님의 행복한 아들들을 ...

우리는 엄마를 만나자 남진의 소식부터 물었다.

대답을 피하듯 닭을 곱한 양채기를 받아드는 어

머니의 얼굴에 감격의 눈물이 어리고있었다. 어머니와 같이 왔던 원장선생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진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고 알려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남진이를 몸가까이로 데려가신것이였다.

오랜만에 엄마의 사랑을 혼자서 차지하였던 잊을수 없는 그날 밤에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무릎에 베워 잠재워주며 할머니와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었다. 그날 밤의 이야기—그것은 울고있던 이 나라의 아이들을 포근히 안아 부럼없이 키워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온 강토가 불바다속에 휩싸였는데 이런 속에서 부모를 잃은 술한 아이들을 모두 하나같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한점의 그늘과 슬픔도 없이 안전하게 키운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한치의 땅을 놓고서도 하루에도 몇차례씩 공방전을 벌리던 결전의 시기였다.

적기는 직방 학교를 목표로 하고 날아왔었고 적 십자기발이 날리는 병원지붕우에 돈을 헤아리는 폭탄을 던졌었다. 어디 가나 재더미고 폐허였다. 눈에 걸리는것은 폭탄구멍이요, 거기에 생겨난 얼음판우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는 아이들이였다. 이 철없는 아이들의 머리우에,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미제는 세균탄을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렸다.

세계는 분노하였다. 미제를 규탄하는 노한 목소리가 대륙과 대륙으로 번져가고있는 속에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싸우는 이 나라로 자기들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기자, 법률가, 학자, 부인, 농민과 교원들로 무어진 그 사람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원호를 보내고싶어하는 그네들의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조선을 알기 위하여, 100여년을 내려오며 굳어져버렸던 미제에 대한 《강대성》의 신화가 어떻게 부서져나가는가를 직접 보기 위하여 왔다.

어느 한 나라에서 온 녀성대표단이 표군애육원을 찾은것은 해질녘 산그림자가 한치한치 마당앞으로 접어들던 저녁무렵이였다. 그들은 재더미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기 위해 마중나온 애육원의 몇몇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아이들의 침실로 향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은 아이들을 놀래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치마꼬리를 짹 감쳐잡으며 점점 더 울음소리를 높이

고있는 어린 원아를 달래며 보육원은 울고있었다.

《공연히 놀란거지... 누가 너희들을 보낸다더냐. 이 엄마들이 너희 보내면 어떻게 산다더냐. 울지 말아.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원장선생이랑 우리 엄마들을 꾸중하실제다. 어서들 나가 마음놓고 놀아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고 왔단다. 나가서 떳떳하게 자랑들을 하려무나. 식당에도 데리고가서 자, 우리는 이렇게 먹습니다 하구 음식두 권하구 유희실에 데리고가서 연예공연도 보이려무나. 간식들을 탔을테니 그것두 좀 권해보구.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눈이 켜해질제다. 전쟁을 하는 나라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살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거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할 땐 술한 아이들이 굶어죽고 얼어죽고 총에 맞아 죽었다누나. 요행 살아남은 아이들은 먹을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불량배로 되었다더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냐. 너희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있지.》

그리하여 흠뻑 젖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깜찍하게 생긴 어느 소녀가 하얀 앞치마를 산뜻하게 두르고서 접시에 담긴 자기들 먹던 그대로의 음식들을 가득가득 담아 손님들에게 날라가고, 주전자를 든 남자아이가 손님수를 세어가며 김이 피어오르는 따끈한 우유를 고뿌에 일일이 따르고있었다. 유희실에서는 보육원의 치마꼬리를 쥐고 울던 소녀가 현란한 무용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의 규칙적인 박수에 맞추어 무대우에서 땡이처럼 돌아가고있었다. 손님들이 앉은 책상앞에는 아이들이 타들고 와서 놓고간 꽃파자며 꽃사탕, 향기로운 사과가 수북이 놓여있었다. 아이들과 더불어 시간가는줄 모르고 앉았던 손님들이 돌아갈무렵에는 유희실 정면벽에 모신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리러 몇번이고 몇번이고 인사를 하며 수건으로 눈굽을 닦았다.

이런 속에서도 보육원들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세 아이에 대한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있었다. 아이들은 밤이 깊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세그릇의 밥과 국그릇이 벌써 몇번째로 가마에 들어갔다가는 부뚜막에 놓이고 금방이라도 문이 벌컥 열리며 《엄마, 나 밥.》 하는 살뜰한 목소리가 들릴것 같아 다시 밥그릇을 가마에 넣고서 아궁이앞에 앉아있는 취사원어머니의 눈엔 어느덧 원망의 눈물이 어리고있었다. 그밤은 참 불안한 밤이였다.



눈가루를 몰아오는 칼바람이 문창호지를 사정없이 들이칠 때면 모든것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럴 때면 보육원도 원장도 몸을 웅송그렸다.

《나때문에 이 아이들을 얼켜죽이나부다. 제발 죽지만 말아라.… 어서들 돌아오려무나, 돌아와서 이 에미들을 욱하려무나.…》

밤인적에 놀라 등지를 차버리고 날아난 새새끼들처럼 종적없이 잃어져버린 아이들을 걱정하며 눈물로 지새운 그밤은 지루하기도 하였다. 뜬눈으로 새운 한밤이 지나고 주먹밥을 해들고서 천방지축 헤매이며 《춘희야.》, 《칠성아.》 하고 목메여 부르던 그 한낮도 다 간 저녁무렵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한 일군이 춘희와 칠성이, 현일이의 소식을 가지고 애육원마당으로 급히 들어섰다. 그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모여든 아이들과 보육원들앞에서 장군님의 말씀 전달하는 그 일군의 음성은 저이기 같았다.

《…나한테 찾아오길 잘했다. 마음들을 놓아라. 우리 함께 있자.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과 같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은 몹시 좋지 않단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내세워주련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모두 만세를 불렀다. 목메여 만세를 불렀다.

《**김일성장군** 만세!》

《아버지 **김일성장군**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그리웠던 시절이었다. 그리움이 뼈속에 사무쳤던 그밤들이었다. 엄마의 사랑이, 정겨운 그 시선,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 품…

이 사랑—세상에 그 어떤 진하디진한 자양분으로써도 결코 대신할수 없는 어머니만이 가진 그 자애의 은정을 아버지장군님께서 주시고계셨으니 아이들은 그들을 가지고 밝게 웃었다. 보육원은 배개잇을 흠뻑 적시며 흐느껴울었다.

《아, 고마우신 장군님이시여! 장군님을 위하여 한줌의 흙이 된다 하온들 이 은정 어이 갇으리까. 홀로 남긴 아이들생각에 눈감지 못했던 불쌍한 어머니들도 이제는 마음놓고 눈을 감으리니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 함께 살자. 죽이면 죽, 풀죽이면 풀죽을 먹고서라도 참고 견디고 기어코 이기자.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여도 제 나라 사람들의 입김만 못하다. 초원의 향기로

운 장미냄새보다 불타고있는 자기 조국땅의 흙냄새를 맡으며 크는것이 더 좋다. 우리 영원히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떠나지 말자.…

그때부터 이 나라의 가정들에는 식구가 불었다.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나라에 부담만 지우랴. 한 아이면 한 아이, 둘이면 둘, 우리모두 맡아 키우자.… 열한형제의 어머니도 있었다. 일곱손자를 둔 할머니도 있었다. 그무렵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애육원들에서는 실로 눈물없이 볼수 없는 감격적인 광경이 매일처럼 벌어지고있었다. 제 엄마가 아니라고 보육원의 가슴을 밀어젖히고 이불 한귀때기에 물러나 꼬부리고 누워서 온밤 잠들지 못하고 킁킁킁 서럽게 느끼던 어린것들이 죽었다 고만 생각했던 자기의 친엄마를 찾게 된것이였다.

《영희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걸 모르고 엄마는 여직껏 찾았구나. 엄마가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밥을 날라주러 갔다가 오니 네가 없더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

《영철이도 왔나?》

《그럼.…》

그럴 때면 그들이 덮였던 아이의 얼굴이 꿈이런듯 활짝 펴지며 《엄마.》 하고 그 품에 안겨 들어서는 새새끼처럼 파르르 몸을 떠는것이였다.

그리고는 껍 하고 흐느꼈다.

아이는 자기를 찾아온 녀인이 정말로 자기의 친엄마임을 의심치 않는것이였고 아이를 찾아온 그 녀인 역시 영희라는 그 애와 이제 필연코 또 데려와야 할 그 애의 오랍동생인듯싶은 영철이라는 애가 자기가 난 친자식들임을 눈물겹게 믿는것이였다. 그래 모두 울었다. 죽었다던 엄마를 찾는 아이도 울었고 잃었던 아이를 찾는 엄마도 울었다. 왜 친엄마로 되어주지 못했는가고 보육원은 자책속에 울었다.

…떠나오면서 할머니는 내내 말이 없었다. 이따금 내 머리를 쓰다듬어줄뿐이였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잠없이 일하였다. 하루낮을 꼬박 바쁘게 보내고서도 밤이면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짰다.

그해에 우리는 리에서 맨 선참으로 현물세를 나라에 바쳤다. 최죽과 비탈밭에 박아놓았던 콩을 털고 우리가 이삭을 주어들인것까지 합하니 두말콩이 잘되였다. 우리는 그것을 애육원원호미로 바쳤다. 누구 하나 말한이가 없어도 우리는 그때부터 밤이면 벌려놓던 콩담기와 감자굼기질을 그만 두었다. 망질도 우리 손으로 하였다. 금덕이 할머니네 집에도 우리 손으로 나무를 날라갔다. 파철

도 우리 손으로 학교로 가져갔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식구는 아홉으로 불었다. 내 동생이 둘씩이나 생긴것이였다.

다섯살난 춘식이나 갓난애기 춘희였다.

폭격이 심했던 어느날 밤 식량을 달구지에 싣고 전선으로 떠났던 할머니가 새벽녘에야 돌아왔는데 춘식이는 업고 춘희는 포대기에 싸안고 들어왔었다.

《네 외사촌동생들이다.》

내가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말했었다.

《할머니, 우린 사촌도 많네. 형님들은 고모사촌, 광현이는 이모사촌, 춘희는 외사촌...》 하며 나는 웃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사촌간은 친형제나 같은 살밭은 혈육이란다.》고 했을뿐이였다.

광현이와 광옥이를 집안에서 제일 우대하던 우리 집의 질서는 바뀌었다. 좋고 맛있는것이 생기면 그것은 리유없이 춘희와 춘식이것이였다. 광옥이가 썰쭉해질 때면 광현이가 칠들은 소리로 타이르곤 했다. 춘희를 데려온 며칠동안은 할머니가 늘 춘희를 업고 젓동냥을 다녔다.

나는 지팽이처럼 그런 할머니옆에 붙어다녔다.

젓을 얻으러 갈 때면 할머니는 점심으로 남겼던 밥을 그릇채로 보자기에 꾸렸었다. 젓을 얻어먹인 뒤면 할머니는 애기엄마앞에 밥보자기를 풀어놓고 어서 들라고 손에 수저를 쥐여주기까지 했다.

《애에미한테는 밥이 젓이라우. 따끈한 국이라도 한술 있었으면 좋겠지만 맨밥이라두 한술 뜨시우. 그래야 이다음에 또 찾아오기두 좋지 않겠수. ...》

점심을 모르고 살던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 가지고 간 밥이 할머니의 점심이 아니라 저녁끼니였음을 알리 없었다. 그럴 때면 애기어머니는 늣더라도 좀 앉았다 가라면서 젓이 다시 고이기 바쁘게 정히 짜서 병에 넣어주곤 하였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놓고서 애기어머니를 청해들었다.

그무렵 우리는 춘희를 위하여 염소를 사오자고 한푼두푼, 실로 눈먼 새가 벌레 모으듯 이악하게 저축하고있었으니 미역을 사올 때마다 염소를 사지 못하게 되거나 않겠는지 내가 더 안타까웠었다. 옥이 엄마를 알게 된것도 그무렵이였다. 옥이 엄마는 매일처럼 집으로 찾아와 젓을 먹여주었다.

그후부터 우리는 옥이 엄마를 작은엄마라고 불렀다. 사람마다 우리를 동정하였다. 전재민구호위

원회의 키큰 아저씨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꾸려가지고서 우리 집을 자주 찾아주었다.

그전에 우리가 가면 둘이서 절반씩 나누어먹으라고 떡 두개를 집어주곤 하던 떡장수할머니도 춘식이가 온 다음부터는 매 아이에게 하나씩 닝큼닝큼 손이 크게 집어주기도 할머니에게 가져다드리라고 몇개씩 싸주기까지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고생하는것을 가슴아파하며 늙은 나이에 애쓰지 말고 그 애들을 애육원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때는 우리가 자주 찾아가던 채너머 인민군 후방병원옆에 새로운 애육원이 일어서고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동정을 제일 싫어하였다.

어떤 때는 성까지 내었다.

할머니는 이런 내용으로 말하곤 했었다.

치마두른 백성이 동네에 가득 있어가지구 아이하나 건사하지 못하여 나라에 신세만 지겠는가, 그것은 전쟁을 겪는 나라의 백성된 도리가 아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런 애들을 몸소 몸가까이로 부르시여 키우고계시지 않는가, 듣자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남진을 손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침마다 세면까지 시켜주시면서 그 애들을 위하여 자신께서는 매끼 조밥을 드신다고 한다. ...

그 애들을 자기에게로 데려다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어머니에게 답장을 쓸 때 형님은 할머니의 이런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다음 어머니에게서는 다른 편지가 없었다. 춘희는 밤마다 뻥뻥 울었다. 애기때문에 잠을 못 자서였던지 아니면 애기와 같이 밤새 울어서였는지 철없이 자고 깨나서 대하게 되는 할머니의 부석부석하고 곱이 낀 눈시울을 보기관 어린 마음에도 눈물겨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에게는 일감이 하나 늘었으니 우리는 모두 할머니를 재우기 위하여 머리를 썼다. 형이 가르쳐준 방법이 제일 좋았다.

내가 춘희를 업고 나가면 광옥이는 할머니더러 옛말을 해달라고 칭얼칭얼 졸랐다.

《대낮에 옛말은 무슨 옛말이나?》

하고 일손을 잡으면 광옥은 울려고 입을 비죽거렸다. 광옥은 배우처럼 쉽게 울줄 알았다. 할수없이 할머니는 광옥이를 앉혀놓고 옛말을 시작했다.

《옛날도 옛날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할머니는 늘쌍 시작하는데로 이렇게 허두를 떼고 몇마디 못하고서 끄덕끄덕 졸았다. 베개를 준비하고있던 내 동생 정옥이가 《할머니,

배개. …》하고 할머니를 눕히면 《응, 정옥이가 용쿠나.》 하며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곧드라졌다. 그다음 내 동생들은 문을 방싯 열고 나와 마당가에서 놀며 보초를 섰다. 그러면서 가만가만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온 기쁜 날 아침 우리 집엔 경사가 났다. 우리 집 앞마당에 풀로 위장한 자동차가 와서 멎고 한줄에 별 세개를 단 인민군관판이 내렸다.

군관은 내리자마자 할머니를 찾았다. 자동차 적재함에는 보기에든 젖통이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염소 한마리가 불통한 눈을 데굴거리며 새 주인들을 보며 매— 하고 웅글은 소리로 인사를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할머니에게 이 염소를 가져다드리라고 우리를 보내 주시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술한 아이들을 맡겨놓고 한 번 가본다가본다 하면서도 못 가보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할머니와 같은 훌륭한분들이 계시기에 나는 마음을 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시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할머니에게 업혀 꿀꿀 잠자던 춘희도 갑자기 《웅아—》 하고 울음을 터쳤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그때로부터 춘희는 동냥젖을 먹지 않고 자랐다.

하루가 다르게 보동보동 살이 오르는 춘희를 달래며 할머니는 《에미가 있으면 예서 더하겠나?》 하고 목메여하였다. 그때부터 우리 역시 하루에 한번씩 꼭꼭 맛있는 사탕과 과자를 먹을수 있었다. 또 엄마가 있는 애육원아이들과 똑같은 고운 웃도 철따라 갈아입었다.

마을에서는 모두 달라붙어 우리 집을 새로 꾸려주고 해빛밝은 벽에다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셔주었다. 명절날이면 꼭꼭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빨락종이에 쓴 꽃사탕, 꽃과자를 선찬으로 보내주시었다. 꽃과자를 한곽씩 나누어안고 우리 여덟형제는 장군님의 초상화앞에 나란히 서서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드렸다. 춘희를 안고 우리뒤에 서있던 할머니가 춘희얼굴에 볼을 비비며 세차게 흐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애육원 아이들을 보며 **김일성**장군님의 아들딸이라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그 애들을 만나면 우리도 **김일성**장군님의 아들딸이라고 자랑하리라 마음 먹었으니 정녕 고르로이 비쳐진 은혜로운 사랑의

빛발속에 사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 같이 행복한 장군님의 아들딸들이었다.

우리는 조국이 포화속에 잠겼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집 떠난 아버지의 안녕에 대한 근심도 하였고 돌아가신 엄마생각으로 서러움도 일찌기 알았으나 어려서부터 서로 위안하는 법도 배웠다. 때로는 간혹 울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고 슬픔이 아니었다. 오늘도 나는 그 시기 나의 형이 타이르던 그 말을 기억한다.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 애들은 배고파 운다 해도 그건 눈물이 아니란다. 그건 슬픔이 아니란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머니들이 가진 그 모든 은정과 아버지들의 웅심깊은 사랑의 마음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를 한몸에 안아 씩씩하게 자래워주신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의 품이 있었으니 그때 우리의 눈물은 어리광이었다.

힘난한 그 시절에도 우리는 어리광을 부리며 자랐으니 그 어리광을 사랑에 겨운 눈매로 너그럽게 받아주는 부모의 품이 있었다. 우리는 사촌남매간이 아니었다. 그때는 고모사촌으로 알았던 나의 형들도, 이모사촌이라던 광현이와 광옥이도, 외사촌이라던 춘희와 춘식이기도…

《사촌은 친형제와 같은 살밭은 혈육이란다.》고 말끝마다 일러주던 할머니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무렵 우리는 할머니를 원망하였다. 우리가 왜 남인가고… 사실 우리는 사촌형제간도 아니었다.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사랑의 품이 젖줄기처럼 귀중한 유년기를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보낸 우리여서 어버이의 품이 그토록 귀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김일성**장군님을 우리러모시고 천만년 번영할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인사를 드린다.

주체65(1976).

# 어머니로 사는 기쁨

전 이 련

평양산원의 정문앞에는 꽃다발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로 붐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퇴원하는 산모들을 맞이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얼굴마다에는 한껏 기쁨이 어  
렷다. 내가 몇해전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고 어머  
니가 되어 이 사랑의 궁전을 나서던 일이 어제만  
같은데 오늘은 엇그제만도 처녀교양원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어머니로 불리우던 나의 동생이 어머니  
가 되어 산원을 나선다.

《수고했구나. 어디 좀 볼까.》

이렇게 말을 하며 애기를 뉘름 받아안은 나의  
어머니가 입가에 감출줄 모르는 웃음을 머금고 애  
기 아버지에게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 자넨 아버지란 사람이 왜 그러고 서있  
나? 어서 꽃다발을 안겨줘야지. ... 우리 막내가 정  
말 좋은 세월에 아이를 낳았구나. 어머니로 사는  
기쁨이 한껏 차넘치는 이 좋은 세월에 말이다.》

어머니로 사는 기쁨이 차넘치는 좋은 세월...

어딘가 폭넓은 표현같으면서도 진심어린 어머니  
의 마지막 이 말이 왜선지 나의 뇌리에 쟁쟁하게  
새겨진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이를 낳았어도 감싸안을 변변한 포단 하나 없  
었고 키우면서도 어머니된 행복을 느끼기는커녕  
저주로운 세상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던 해방전 그 세월에 대한 할머니의 가슴아픈 이  
야기가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다.

그 수난의 세월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뿌렸으랴.

하지만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로동당세월속에  
선군시대의 복받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로  
사는 행복과 긍지에 넘쳐있다.

문득 나의 눈앞에는 얼마전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와 무도를 찾으시였  
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  
려왔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장재도와  
무도에 대한 전선시찰소식은 전세계를 큰 충격속  
에 뚫게 했고 우리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가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곳이 어디라고 그 위험한 곳엘 자그마한 목선  
을 타시고 찾아가신단 말인가.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한몸에 지니시고 날바다  
를 헤치시며 섬초소로 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

지시찰도 놀라왔지만 태어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이를 안으시고 군인가족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그 영상은 이 나라의  
수천만 사람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을 더욱 흐느  
껴울게 했다.

그때 어린애의 어머니도 경애하는 원수님곁에서  
행복에 겨워 계속 눈물을 흘렸다.

아마 그 녀인도 불과 몇달전 새 생명을 꼭 안고  
어머니가 된 기쁨을 느꼈으리라. 그런데 오늘은  
그때로부터 6개월이 되어 세상이 다 아는 아기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한참이나 어린이를 안아주시며 볼도 다독이시고  
머리도 쓰다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앞에 적들은 공포속에 전율했고 우리 어머니  
들은 행복과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지금도 친어버이사랑으로 설명절날에 만  
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볼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며 식성  
도 다정히 물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근하신  
영상을 잊지 못한다.

어디 이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상유치원에 찾아오시  
여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  
실 때 그 모습은 꼭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  
이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자식들  
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관람하는것  
이 너무도 믿어지질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또 보  
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고마움에 울고  
격정에 넘쳐 눈물을 흘린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리라.

정녕 우리 어머니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  
머니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친정어머니도 아직 와보지 못한 창건거리 새집  
에 선참으로 들리시여 축하도 해주시고 앞으로 아  
이가 태어나면 그때 꼭 다시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남기시고 또 한 로동자가정에 들리시여서  
는 자식들의 앞날의 희망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어머니들이다.

무릇 여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머니가  
된 모습이라고 하고 어머니들의 가장 아름다운 감  
정은 뜨거운 모성애라고들 한다.

어머니가 되긴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하긴 어렵

#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노래

—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

김 재 원

언제나 내 어머니를 추억할 때면  
어쩐지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더라  
어린시절 어머니가 하루만 집을 비워도  
불이 꺼진 집안인듯 온기가 없어지던 일이

그래서 자라며  
내 자주 생각했던가  
어머니없는 가정 생각할수 없듯  
어머니들이 없는 조국도 생각할수 없을거라고

장구한 세월 우리 어머니들이  
몸과 정을 다바쳐 생활의 보금자리 더웁혀왔고  
그 보금자리들이 모여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세상 어느 명인재사도 그 보금자리에서  
어머니젖을 먹으며 생의 첫 자옥 떼였고  
어떤 위인 명장도 그 보금자리에서  
어머니 지어준 밥을 먹으며 세상길 나섰나니

력사의 어느 갈피에 있었느냐  
어머니를 존대하지 않은 영웅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애국자

그대 진정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그대 가슴에 빛나는 훈장과 명예  
어머니의 가슴에 빛나야 할  
훈장과 명예임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 수령님도 한평생 《사향가》를 부르시며  
어머님을 못내 못 잊어하시었고  
우리 장군님도 어머님을 뜨거이 추억하시며  
빨찌산식강행군길 이어가시었나니  
대원수님들 그 사랑 이으시여  
온 나라 어머니들  
세상 제일로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

오오, 어머니를 떠올리면  
고향집추억이 떠오르고  
향토와 더불어 조국이 떠오르나니  
어머니는 사랑이던가 고향이던가  
우리 펼쳐가는 이 세계이던가 조국이던가

행복하시라  
자식들을 투사 영웅으로 키워 조국을 빛내인  
그 사랑 그 정 다함이 없는  
내 나라의 보배로운 어머니들이여  
행복하시라

다는 말이 있듯이 한 가정의 어머니도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 품을 들이며 마음쓴다.

이런집대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피시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선 얼마나 마음도 많이 쓰시랴. 새 생명의 어머니가 될 창전거리의 그 영웅방직공이 하던 말이 생각난다.

《...노래에도 있듯이 저는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그 품은 어머니당의 품이라고 세상에 소리높이 말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 저는 자식들을 꼭 이 사랑에 보답하는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한 녀인의 결의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이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은 강성국가건설전투장 마다에서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일하고있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끝끝하게 키워 최대의 애국의 길인 조국보위초소에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오직 돈밖에 모르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자본

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고 있을수도 없는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미풍이 우리 나라에서만 꽃피어나고있다.

이런 어머니들을 사회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 세워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금 온 나라 어머니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자식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를 더욱 깊이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훌륭한 계승자들로 키우기 위해 온갖 열정을 다 바쳐간다. ...

이때 달리는 차안에서 나에게 아까부터 뭘 깊이 생각하는가고 하는 동생의 물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자기가 얼마나 좋은 세월에 태어났는지 아직은 다 모를 아기를 꼭 안은 동생의 모습에서 나는 더욱 휘황한 앞날에 자식들을 키우며 어머니로 사는 기쁨을 마음껏 느낄 이 나라 어머니들의 밝은 모습을 오래도록 그려보았다.



안 홍 윤

그날 저녁 나는 방안에 앉아서 연신 줄담배를 갈아대고있었다. 낮에 있던 일로 어지간히 기분이 잡치였던것이다.

내가 또다시 새 담배가치에 불을 옮기는데 사이문이 불쑥 열리면서 저녁을 짓던 로친네가 나를 찾았다.

《령감, 글썄 이걸 좀 보시우!》

로친네는 느닷없이 칼도마를 쳐들어보인다.

《뭘 보란 말이야? 똥판지같이.》

《아니, 이게 안 보이시우? 이게?》

로친네는 칼도마를 자기의 얼굴앞에 바투 세워댔다. 순간 칼도마의 복판에 펴 뚫어진 구멍으로 그의 한눈이 어이없는듯 나를 내다보고있었다.

언제부터 칼도마복판에 난 웅이가 미타하다고 하면서 새것을 사오겠다더니 그에 홀령 빠져달아난것이다.

《거참 보기 좋구려!》

나는 허거프게 웃으며 덧붙였다.

《이왕이면 구멍을 좀더 크게 내구려. 당신의 예쁜 얼굴이 다 보이게.》

로친네는 혼연히 맞장구를 쳤다.

《아따, 그럼시다레. 령감이 예쁘다는데 이까짓 칼도마 하나쯤 대수겠수?》

《허허허...》

《호호호...》

누가 들으면 늙은 내외가 체신머리없다고 할만큼 우리는 크게 웃었다.

날씨가 별로 따가우면 소나기가 뒤따르는 법이다. 우리내외의 분수에 넘친 웃음소리는 곧 소나기를 불러왔다.

《아무튼 좋시다. 늘그막에 령감한테서 예쁘다는 소릴 들으니.》

로친네는 웃느라고 눈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

로 짖어내며 푸념조로 뒤를 이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당신이 이젠 늙긴 늙었수다. 칼도마 하나 제껴 못 자르는걸 보니.》

《뭘가 어-째?》

나는 저도 모르게 버럭 언성이 높아졌다. 로친네는 화뜰 놀라 하마트면 칼도마를 땀굴번 하였다.

《아니, 령감 왜 그러슈?》

《왜가 뭐야, 왜가!...》 나는 더욱 언성을 높이며 허공에 샷대질을 했다.

《칼도마란게 작다구 간단한 물건인줄 알아?—베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루 차리랬다구 판자를 밀구 깎구 자르구, 게다가 굳은 나무면 칼날이 무디겠구 또 무른 나무면 인차 닳을게구 혹시 독이나 없는 나무인지도 알아봐야겠지?— 이래저래 간단칠 않길래 선뜻 손을 못 대고있느라니까 이견 그저...》

《?!...》

로친네는 급류처럼 쏟아지는 내 말에 깜짝 놀란듯 입을 하-벌리었다.

하긴 나 역시 스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열결에 주어대기는 하였지만 고작 반메터내외의 판자토막에 것처럼 복잡한 공정과 까다로운 요구가 담겨져있다는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칼도마란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건만 잠시후에 로친네의 입은 비죽해졌다.

《그렇게 만들기 힘든 물건인줄 알면서도 일전에 내가 새 칼도마를 사러갈 땐 왜 말렸수? 집안에 혼한게 판자라고 흰소리칠 땐 언제구요?》

나는 더욱 화가 동했지만 이렇다하게 트집잡을것은 없어서 강짜로 한마디 더 욱박질렀다.

《보자보자하니까 이견 나살이나 건사해가지구두 이따금 생억지를 쓴단 말야!》

한구들이나 되던 아이들이 다 자라서 군대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흩어져가고보니 간혹 내외간에 언짢은 일이 생길라치면 썰렁한 기운이 인차 가서지지 않는 우리 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생의 고락을 같이해온 늙은 내외답지 않게 마치 앵돌아진 젊은 부부마냥 멀찌감치 돌아누워서 새날을 맞았다....

독자는 혹시 나를 만나면 핀잔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날 저녁 도대체 그게 무슨 망동이냐고 말이다.

그런데 사실 내가 로친네에게 얼토당토않게 큰소리를 친것은 네거리에서 뺨 맞고 이불속에서 주먹질을 하는 격이라고 할가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때문이었었던것이다.

그날 낮에 나는 도수산관리국에 올라갔었다. (간단히 소개하면 나는 중바다가양식사업소 지배인이다.)

사업소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관리국에 올라간 나는 직방 관리국장 고봉수를 찾아들어갔다. 고봉수로 말하면 정전직후 나와 한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였다. 그는 선장이였고 나는 어로공이였다. 하기에 세월의 흐름속에서 그는 도수산관리국장으로, 나는 한 사업소의 지배인으로 위치가 달라졌지만 공식적인 자리외에는 별로 간격이 없었다.

나는 근 한시간이나 고봉수에게 장황하다고 할만치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 사업소는 바다가시습에 새로 다시마건조장을 건설하였는데 문제는 당장 다섯대의 기중기를 설치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우선 부두나 잔교를 건설해야 하였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줄잡아도 반년이상은 걸려야 하였다. 게다가 막대한 량의 특수세멘트를 해결한다는것은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자, 난 국장동무만 믿수다. 어찌겠수, 좀 도와주시우. 허허허...》

말을 마친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고봉수를 잘 납득시키느라고 일장력설을 했더니 이마에 땀까지 질펀히 내뿜었던것이다.

《음—》

고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이나 나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두눈을 약간 쪼프린 그의 눈길은 동정이랄가, 아니면 질책이랄가 가늠키 어려웠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내 기대와는 너무도 엄청난것이였다.

《여보게 택현이, 자네가 이젠 늙었구만! 응?》

《?...》

나는 어안이 빙빙하여 고봉수를 멀뚱멀뚱 마주 보았다.

《그썸한 일을 가지고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가. 사람두 참!》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요?》

나는 실망보다도 분노가 솟아올랐다.

했으나 고봉수는 내 기분에 개의치 않고 더욱 화를 돋구었다.

《이보라구, 난 도와줄 힘도 없네만 우선 그렇게 징징 우는 사람과는 마주앉고싶지 않네.》

《?...》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였다.

물론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애쓰다보니 자연히 말이 길어진것은 사실이며 또 우는 소리가 나간것도 사실이였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고봉수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쯤 되고보니 나도 그냥 빌붙기만 할수는 없었다.

《고견을 많이 줘서 고맙수다. 하지만 국장동무, 방조를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시비는 무슨 시비요?... 예?》

《허허허, 그럼 내 좀 지나쳤나?》

고봉수는 껄껄 웃었다. 그렇다고 위안을 가질것은 없었다.

《아무튼 방도를 잘 찾아보라구. 문제는 어떻게 혁명적으로 달라붙는가에 달려있네.》

그런 말이나 듣자고 내가 고봉수를 찾아왔던가?

나는 분연히 일어섰다. 패썹하게도 고봉수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서 가게 하려는듯 천연히 따라일어섰다.

나는 더욱 화가 동하여 한마디 비꼬았다.

《난 늙었지만 국장동무 갱소년해서 좋겠수다. 오래오래 젊어계슈!》

《허허허... 고맙네.》

고봉수는 껄껄 웃고나서 한마디 덧붙였다.

《내 곧 내려가보겠네. 아무튼 술 석잔은 잘 준비해두라구. 나야 임자네 백년가약을 맺게 해준 사람이 아닌가.》

나는 대답대신 코방귀를 불며 《갱생》에 올라앉았다.

(넌장, 제가 뭘 했대구 만날 때마다 술 석잔소리야... 고작해야 우리 둘이 눈을 다 맞추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방조를 좀 받았더니 머리가 희여가는 오늘까지 우려먹는단 말이야!)

하긴 고봉수의 공적이 작은것은 아니다. 우리

가시어머니가 부모형제 하나 없는 나에게 외동딸을 못 주겠노라는 바람에 능구렁이같은 고봉수가 얼렁뚱땅 업어넘기고 벼락같이 잔치를 치르도록 수를 썼던것이다. 하기에 나는 고봉수가 감지덕지하여 그의 술 석잔소리에 혼연히 맞장구를 치는것이 상례였었다. 하건만 오늘은 고봉수가 그저 밍기만 하여 그의 일거일동에도 오만가지 트집을 잡으며 집으로 내려왔다.

생각할수록 고봉수가 꽤 씹하여 속이 두부장꿍듯 하는데 로친네까지 나를 보고 늠없다니 그야말로 불붙는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이쯤한 사정을 알고보면 독자는 그날 저녁 나의 망동을 너그럽게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

다음날 아침 나는 기증기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파장이상급 협의회를 열었다. 했으나 역시 론의만 분분할뿐 보람이 없었다.

나는 하도 답답하여 또다시 차고에서 《갱생》을 끌어냈다. 군에라도 가볼 생각에서였다.

내가 승용차의 발판에 막 한발을 올려놓았을 때였다.

《지배인동지!...》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음, 3직장 장기봉동무던가?》

《아닙니다. 5직장 황봉기입니다.》

《아, 그렇지. 내 또 실수했군!》

사업소에 온지 반년이 넘었건만 이름과 생김새까지 어스뵈스한 두 제대군인을 나는 통 분간할수가 없었다.

《지배인동지, 한가지 제기하랍니까?》

《제기라?...》

(보나마나 집을 달라는 소리겠지. 그런즉 색시감을 끌랐는가? 그러나 언제 살림집건설까지 벌려놓을 경황이 있어야지. 그것 참!)

한순간에 이런 난처한 생각이 나의 머리속을 지나갔다. 젊은이에게 실정을 리해시키자면 또 세월없이 말주머니끈을 끌러야 될가보다.

나는 사정조로 입을 열었다.

《량해하우, 내 지금 몹시 급한데 출장갔다와서 동물 부르겠소.》

군에 올라간 나는 동서남북이 좁다하게 뛰어다녔다. 우리 사업소와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는 기관들은 빠짐없이 다 찾아다니며 호소를 하고 구구히 사정을 하였다. 하건만 보람은 없었다.

저녁무렵이 되어 사업소로 돌아오니 뜻밖의 손익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아침에 내가 사업소로 떠난 뒤 고봉수국장이 내려왔다는것이다.

그는 내려오는 길로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담화도 하고 합숙에도 가보고나서 방금전에 우리 집으로 갔다는것이였다.

황황히 집으로 달려간 나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고봉수가 뚱뚱한 몸집을 구불거리며 무슨 대패질을 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별스러운것이다. 어제만 하여도 두번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서슬이 시퍼래서 그와 헤어진 나였다. 하건만 오늘 우리 집에서 제집처럼 스스럼이 없는 그를 보니 그전날 한배를 타고 고락을 같이하던 정이 솟구쳐올라 얼싸안고싶도록 반가왔다.

나는 슬금슬금 그의 등뒤로 다가가서 짐짓 발을 탕! 굴렀다.

《도대체 누가 주인행세를 하는거요? 남의 집에서, 응?》

비로소 나를 돌아본 고봉수는 빙긋 웃으며 력직으로 마루우를 가리켰다.

《술 석잔 받으러 왔더니 케가 굴렀네. 내 그때자네 소개를 과히 잘못했거던.》

나는 그제야 마루우에 놓인 그 구멍난 칼도마를 알아보았다. 알고보니 고봉수는 지금 새 칼도마를 만드는중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 로친이 하도 답답하여 제 손으로 칼도마를 만들어보자고 일감을 벌려놓았는데 공교롭게도 고봉수가 들어섰던것이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소털같이 많은 날에 하필이문...》

고봉수는 나의 말허리를 꺾으며 톱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기는 대신 판자를 든든히 눌러잡았다. 그러니 나보고 톱으로 판자를 자르라는 소리였다.

《자, 그러지 말구 들어가자구요. 내 차차 만들테니.》

《글쎄 자르라니까!》

《정 이러기요?》

《어서!》

《원, 고집두 이렇게 세다구야...》

나는 또다시 뺨이 불끈 솟았다.

《아니, 우리 집에 와서까지 국장행세요?》

《이건 형님별되는 사람으로서 요구하는거야!》

《좌우간 내 두손 바싹 들었수다. 에-에참!》

나는 하는수없이 톱을 쥐고 허리를 굽혔다.

고봉수가 판자를 잡아주었다.



하여 한 도의 수산관리국장과 한 사업소 지배인의 협동하에 칼도마제작이 시작되었다.

기력이 쇠진해지자면 아직 멀었건만 나는 판자 한토막 자르기가 그닥 수월치 않았다. 숨을 몰아쉬며 판자를 동강내었을 때에는 이마에 땀이 내배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침내 두손을 털고 허리를 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우리뒤에는 그 제대군인 황봉기가 서있었다. 순간 나는 아침에 그와 한 약속이 생각났다.

《아, 뭔가 제기할것이 있다고 했지? 집문제 말이요?》

《아닙니다. 국장동지를 줌… 국장동지! 설계가 끝났습니다.》

《뭐라구? 벌써!》

고봉수는 두눈을 크게 떴다.

더욱 놀란것은 나였다. 도대체 무슨 설계가 끝났단 말인가?

《어서 지배인동무에게 설명해주우.》

황봉기는 들고온 도면을 마루우에 펴놓고 새 칼도마로 한귀를 지질러놓았다. 무엇인가 둥글둥글한것을 삼각으로 편결한, 너무도 간단한 도면이었다.

《기중기의 기초입니다.》

황봉기는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다. 《이 둥근것들은 5톤이상짜리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들을 땅속에 삼각으로 묻어놓고 그 중심들에 착암기로 구멍을 뚫습니다. 다음 그 구멍들에 볼트축을 해박고 산형강으로 편결합니다. 결국 세 바위가 한덩어리로 되는데 그만하면 기중기의 기초로 녀웁니다. 이렇게 해서 부두나 잔교를 다 견어치우고 바다기슭에 바로 기중기를 설치하자는겁니다.》

《!…》

설계도면이라고 할것이 없었다. 설명 역시 너무도 간단하였다. 하지만 리치와 기술적타산은 명확하고도 남았다.

믿기 힘든 사실앞에 얼퍼름해진 나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런 질문이었다.

《장기봉… 아니 저 황봉기동무, 군대나가기 전에 대학에 다니지 않았소?》

《아닙니다. 군사복무때 서해갑문건설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봉수가 물었다.

《얼마면 다 끝낼것 같소?》

《기초 하나에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 게다가 세멘트 한톤, 막돌 한립방도 필요 없단 말이지. 이게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나는 요지경속에 빠진 사람마냥 멍청히 서있었다. 머리속에는 도어로, 군으로 뛰어나니며 구차한 사정과 우는소리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끝없이 반복되던 지루하면서도 보람 없던 협의회도 생각났다. 그 모든것들이야말로 얼마나 허무맹랑한 놀음이었는가!…

《여보게, 담배나 한대 주게.》

고봉수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황봉기는 언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마루에 걸터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문득 고봉수가 말을 꺼냈다.

《택현이, 생각나나? 자네가 신혼살림을 할 때 찬장을 만들던 일 말일세.》

《에-에?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시우? 그게 언제적 일이라구.》

…그게 아마 정전직후의 일이었던가?

내가 고봉수와 한배를 타면서 신혼살림을 뒀을 때의 일이었다.

살림살이라고는 안해가 가지고온 이부자리와 웅배기술, 국, 밥사발이 각각 두개, 거기에 고봉수네가 보내준 쟁개비 하나가 전부였다. 원썬들에게 랑부모를 다 잃은 나는 집에서 부지깽이 하나 보탬받을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것이 만족하기만 하였다. 사람들은 나보고 처가집말뚝에까지 절을 할 사람이라고 놀려주었다.

나는 그만큼 안해를 사랑하면서도 한가지만은 못마땅한것이 있었다.

안해는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속에 고이 자란 딸이어서 무슨 애로가 생기면 친절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나는 그것이 질색이었으나 연약한 녀자들에게서 십분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기고 일에만 몰두하였다.

당시 사업소의 배들은 거의다 돛배들이었다. 우리 배도 마찬가지였다. 하여 돛을 달고 바람을 맞받아 갈지자로 항해할 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굴리끝에 마사진 자동차기관으로 배를 동력화할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모두 코웃음쳤지만 고봉수만은 적극 지지해나섰다.

나는 기를 쓰고 달라붙었다. 기계에 들어서는 통 무식쟁이였던 내가 그것을 실현하기까지에는 실로 미국놈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결사전을 하던 것만큼이나 악을 써야 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돛을 내리고 바다를 종횡무진으로 달리게 되었으며 그 덕에 두배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안해는 또 친절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아버지에게 찬장을 만들 어달라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널판자 석장을 붙여서 그우에 그릇 들을 올려놓았는데 불품도 없거니와 불편하기 짝 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 집의 형편만이 아니었다. 전쟁의 상처가 사람들의 생활에 그대로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하물며 처가권이라고 무엇이 넉넉 하겠는가.

《여보, 웬간한건 좀 참소.》하고 나는 안해를 나무랐다.

《다 자라가지고도 부모님들께 그냥 근심만 끼 치면 되겠소?》

안해는 뽀로통해졌다. 자연히 우리사이에는 짐 차 곱지 않은 소리가 오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보! 그럴바엔 짐을 다 싸가지고 아주 가오, 아주! 엉?》

《가라면 가잖구요. 못 갈줄 아세요?》

대답은 그렇게 하였으나 역시 녀자의 약한 마음이라 안해는 돌아앉아 눈물을 쪽쪽 짜기 시작하였다.

《원 저런, 땡땡이라구야!》

나는 처음으로 안해를 탓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넌장! 찬장 하나 못 만들어서 너편네가 울고불고 하게 하다니!)

밖으로 나간 나는 헛간의 나무가지들을 죄다 부엌으로 끌어들었다.

거개 다 바다에서 전저넌것들이어서 널쭈각과 합판쭈각, 각재토막과 통나무토막, 굵고 가늘고 넓고 좁고 길고 짧고... 찬장재료라기보다 잡동사니였다. 그래도 공구에 비하면 재료는 너무도 훌륭한 편이었다. 공구라고는 손도끼 하나뿐이어서 하다못해 끌조차 없어 배못을 넘적하게 두드려 써야 하였다.

이제는 찬장의 원형을 좀 보아야 했다.

나는 고봉수의 집으로 슬금슬금 내려갔다. 밤이 깊었는지라 모두 잠자리에 든듯 집안은 조용하였다. 한밤중에 고봉수를 깨울수는 없어서 문밖으로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불을 꺼놓아서 희미한 달빛에 비친 찬장의 형태는 좀처럼 가려보기 힘들었다. 이쪽저쪽 문틈을 찾아 열심히 부엌을 들여다보던 나는 갑자기 이마가 지끈하면서 두눈에서 불이 번쩍 일어났다.

고봉수의 아들녀석이 피춤을 부어잡고 다급히

뛰어나오면서 문밖을 걷어차는 바람에 미처 어쩔 사이가 없이 문밖에 이마를 짓찧었던 것이다.

《아이쿠!》

고봉수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다.

《아니, 이밤중에 어떻게 왔나?》

《넌장!... 거 담배나 한대 주시우.》

나는 얼얼한 이마에 손이 올라가는것을 겨우 참으며 통명스레 내뱉었다. 화김이라 사실대로 말이 안 나갔던 것이다.

고봉수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마라초를 한줌 꺼내다주었다.

(까짓거, 내 생각대로 만들고말아야지.)

이마의 혹을 어루쓸며 돌아온 나는 손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깎기 시작하였다. 내가 한동안 정신이 없을 때였다.

문득 머리우에서 《사내자식이 쑥스럽긴, 사실대로 말할것이지.》하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드니 언제 왔는지 고봉수가 창승처럼 버리고서서 찌프린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담배 한대 얻자고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왔었다는것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어쨌든 화가 복으로 된다더니 혹값치고는 꽤나 후한걸. 또 가서 혹을 두어개 더 붙여볼가 부다.)

나는 사기가 올라 퐁-퐁 소리를 내며 대패질을 했다. 그러던 나는 너무 덤벼치다가 그만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쳤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순간 방문이 필쩍 열리면서 안해가 달려나왔다. 그런즉 그는 문밖으로 나의 일거일동을 빠끔히 내다보고있은것이 틀림없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안해는 내 손가락을 감싸쥐고 흐느껴울었다.

《내 다시는... 다시는 그런 일로 친절에 안 가겠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네?》

안해는 눈물 고인 두눈에 자신에 대한 자책과 나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기대와 애원을 담고 울려다보았다.

아, 그때의 안해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답던지!... 했으나 내 결심을 굽힐수는 없었다.

이레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찬장의 마지막조립이 끝났다. 나무가 각이하다보니 문양도 각각이였고 색깔도 색색이었다. 곱게 다스리지 못하여 윤택도 없었다. 사개가 잘 맞지 않아 어설픈데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못녀인들의 부러움을 살만치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는 신혼살림에서 일약 사업소적으로 몇세대 안되는 찬장을 가진 세대로 경총 도약하게 되었던것이다.

아무리 하찮은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피땀과 류다른 사연이 깃든것은 별로 소중한 법이다.

우리 로친네는 그 알량한 찬장이 가보라도 되는 듯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버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세탁기요, 랭동기요 으리으리한 세간들이 이 부엌을 가득 채웠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맨손으로 기계 배를 만들고 손도끼로 찬장을 만들자고 접어들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눈앞의 예비도 못 찾고 판자 한토막도 제때에 못 자르게 되었으니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문득 고봉수가 침묵을 깨뜨렸다.

《택현이, 자네 병집의 근원은 저 구멍난 칼도마에 다 썩여져있는것 같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덧붙였다.

《명심하라구, 사람이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생활도 혁명사업도 제대로 할수가 없어!》

그는 뒤집을 지고 마당을 거닐었다.

(내가 정말 안일해졌단 말인가?)

그것만은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뛰어다니고 목청을 돋군 내가 아니었던가.

했으나 깊이 따져보면 내가 한 일이란 사업소의 구내만 벗어나면 의례히 승용차를 불러대는것이었고 옆방의 과장도 전화로 찾는것이였다. 결국 내 대신 승용차가 바쁘게 뛰어다니고 전화기가 요란스레 떠들었을뿐 나 자신은 언제나 편히 의자에 앉아있었던것이다.

(망할놈의 칼도마같으니! 그저...)

마당을 거닐던 고봉수가 내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보게 주인어른, 인사불성도 정도가 있어야 할게 아닌가? 그래, 손님을 그냥 밖에 세워둘 작정인가?》

나는 어쭙게 웃으며 응수했다.

《그럼 손님이 주인을 그렇게 조겨대는건 도대체 무슨 인사법이요. 아예 마당밖으로 쫓아내지 않는것만도 다행인줄 아시우.》

《허 이것봐라! 이 사람이...》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손님대접준비에 바빠 돌아가던 우리 로친네가 나왔다. 칼도마가 필요한듯 그는 새 칼도마를 집어들고는 좋아서 떠들었다.

《에이구, 이젠 마음놓고 칼질을 해도 되겠구만! 뭘 좀 썰라면 도무지...》

《여보...》

나는 듣다못하여 큰소리로 그의 말허리를 켜었다.

《황아장수망신은 고불통이 다 시킨다더니 이젠 나살이나 먹은게 주책없이... 에-에 참!》

《원,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시다...》

로친네는 제편에서 오히려 눈을 흘기고는 고봉수에게 말머리를 돌리었다.

《아주버니, 이담부턴 처녀한테 총각소개를 하실라문 좀 잘하시우다. 글썄 칼도마 하나두 제때에 못 만드는 량반을 나한테 소개하실건 뭐예요?》

고봉수는 기꺼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잖아도 후회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내 술석잔을 바라구 백리길을 왔다가 그냥 갈수야 없지 않소.》

우리 로친네의 대답도 걸작이였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정해진 레의범절이야 어찌겠나요. 소개를 잘못하셨으니 아예 바라지 마시우다.》

《핫하하하...》

고봉수는 물론 나도 유쾌하게 웃었다.

로친네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어 부엌으로부터 야무진 칼장단소리가 가락맞게 들려나왔다. 딱딱딱 푹푹푹딱 푹딱딱.

일생 들어온 소리였다. 오늘따라 그 소리는 류다르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칼도마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시라. 그리고 하루일과를 되새겨보시라.

혹시 아침에 마당쓸기가 싫어서 그만두지나 않았는지 아니면 세면물을 놓아주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일은 없는지...

혁명은 곧 투쟁이며 투쟁은 곧 생활이다. 그 생활은 아침에 마당을 쓸고 세면을 하는 등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된다.

작고 사소한것, 바로 그속에 그 사람의 정신상태와 투쟁의욕과 기백이 반영되는것이여늘, 아침에 마당쓸기가 싫어지면 낮에 일에서도 몸을 아끼게 되며 나중에는 간고한 혁명의 행군길을 걸어가기가 싫어지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칼도마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그 소리는 반드시 의미심장하게 들릴것이다.

주체76(1987).

시 초

## 내 한생의 수업종소리

—인민대학습당에서 부른 노래—

최 향 실

### 내 한생의 수업종소리

종소리 울린다

철없던 시절

필갑소리내며 학교로 가던 길에

나비 잠자리잡이에 여념없는 소녀를

교실로 부르던 그날처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 울린다

배우고 또 배워

나라의 역군이 되라고

중학교교정으로 대학교정으로 나를 부르던

그날의 그 수업종소리처럼

이제는 그 교정을 떠난지 십여년

몸도 마음도 다 자란 이 딸에게

배움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음을

오늘도 깨우쳐주며 어서 오라 부르는

인민대학습당의 정다운 종소리

내 때로

인민대학습당으로 가지 못하던 그날에도

배움의 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종소리만은

비오나 눈이 오나 나를 불렀거니

오라

어서 오라 배움의 전당으로

정지는 퇴보 나아가면 승리자!

말없이 나를 부르며

나를 기다려 반겨맞으며

정답게 이 딸을 부르는 저 종소리

내 깃을 가다듬으며

기어이 날아올라야 할 그 봉우리

하루빨리 세계를 딛고

조국이 올라야 할 최첨단봉우리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부르는 종소리

종소리 울린다

종소리 울린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떨치라고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

**김정은**동지의 전우들을 부르며

아, 낮에도 밤에도 울리는

내 한생의 영원한 수업종소리여!

### 우리가 만나는 곳

내 여기서 오늘 또 만났구나

언제 봐도 책상에 조용히 앉아

햇눈 한번 팔지 않는 저 처녀

약속이나 한듯 창가에 앉아

깊은 사색이 빛나는 눈빛으로

조용히 책장을 번져가는 저 청년

저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직업은 내 몰라도

복도에서 열람실에서

자주 만나는 저들의 모습

내 어이 모르랴

나는 안다 저 처녀를

그가 만약 과수원처녀이라면

드넓은 과원에

더욱 향기롭고 큰 열매들이 주렁지리라는것을

저 처녀가 만약 양어공처녀라면

양어못마다엔 물고기떼 더욱 넘쳐나리라는것을

그렇다

저 청년이 비료연구사라면

주체비료가 쉬임없이 쏟아지리

저 청년이 기대앞에 책 나서면

《돌파하라 최첨단을》 노래속에

로동은 기쁨과 즐거움에 흥겨우리

그러니 내 어이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랴  
자기 땅에 밭을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내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가는 청년들

우리 서로 일터는 달라도  
최첨단을 돌파해야 할  
세대의 의무는 하나이기에

여기서 만나고 또 만나자  
그러면 내 조국은  
날마다 세계를 딛고 더 높이 솟구치리  
더욱 부강하고 역세여지리

우리 아직 서로서로 통성은 없었어도  
인민대학습당 여기서 만나고 또 만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기쁨드린 그날  
우리 서로 만나 통성을 하자  
아, 최첨단을 돌파한 세대의 자랑안고!

## 시 간 표

오늘도  
텔레비존에서는  
인민대학습당의 강의제목들을 알려준다

기다리는 날 저녁이면  
새 기술 강의제목들을 알려주는  
방송원의 저 목소리 무심히 들을수 없구나

철없던 학창시절처럼  
오늘도 나에게 배움의 시간표를 짜주는  
고마운 조국의 목소리

그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무료로 11년제의무교육을 주고  
대학을 졸업시켜주고도

한생토록 배우라고 나를 부르는  
아,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이어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품이어

정녕 고마워라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행군의 그 나날  
언제나 배움의大門만은 더 활짝 열어주던 집

그 나날에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내 현장기사가 되었나니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랴

맞추리라  
조국의 저 시간표에  
분분초초 내 인생의 발걸음을 맞추며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울  
보답의 맹세로 심장의 피 끓이며  
조국의 참된 딸로 한생을 빛내리라

## 조국이어 이제는 내가 대답할 때다

오늘은 무슨 물음을 안고왔는가  
문답실선생님 환히 웃으며 반겨맞을 때면  
그앞에서 내 선뜻 대답 못함은  
가슴가득 차오르는 생각때문이어라

내 여기 문답실에서  
지금껏 물은것은 얼마이며  
부끄러움없이  
물어서 깨달은 지식 그 얼마이던가

단발머리학창시절부터  
여기서 스스럼없이 묻고 배우며  
기사로 발명가로...  
인생의 키는 자라

오늘은 최첨단돌파전에 나선 이 몸

한해 두해 나이가 들수록  
문답실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게 묻는 말이 있으니  
—너는 언제까지 묻기만 하겠는가?

아, 가슴치는 생각이어  
내 어이 아직까지  
어린 소녀처럼 묻기만 하랴  
어머니조국이어  
이제는 내가 대답할 때다  
이제는 내가 조국의 물음에 대답을 할 때다!

## 력사물주제소설에서 예술적환상과 허구의 리용

김 선 일

모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력사물주제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의 창조적상상,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필수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적사실에 기초한다고 하여 허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예술은 현실에 기초하면서도 어떤 사실과 현상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는것이 아니라 그가운데서 본질적의의가 있는것만 돋구어내면서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도 그와 연관된 생활에 대한 폭넓은 표상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환상,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뚜렷한 지향을 가진 환상은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문학작품은 현실생활의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반영이 아니라 작가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창작활동의 산물이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현실에 있는 인간과 생활사실들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는것이 아니라 그가운데서 비본질적인것, 우연적인것을 추려내고 본질적인것, 합법칙적인것을 골라잡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다.

인간성격과 생활사실에 대한 이러한 예술적전형화는 작가의 환상과 상상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예술적환상과 허구를 옹계 적용하는것은 작품에서 생활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도 그러하지만 력사물주제작품창작에서도 예술적환상과 허구를 옹계 리용하여야 당대 력사와 인간을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할수 있으며 력사적사실을 예술적진실로 전환시킬수 있다.

력사물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무엇보다도 력사적인물의 운명선과 내면세계를 적극적으로 묘사하는데서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력사물주제의 소설에서 기본묘사대상은 어디

까지나 력사에 실재한 인물이다. 력사적인물의 자료에 기초하여 그의 진실하고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소설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형상과제이다.

그런데 력사에 전해져내려오는 력사적인물의 자료는 극히 단편적인것이 적지 않으며 풍부한 자료인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인간의 생동한 자료는 아니다. 이로부터 실재한 력사적인물을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들은 그의 운명선과 내면심리세계를 환히 볼수 있는 창조적상상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장편소설 《망이》(김정민 작)는 1176-1177년 서남지방농민군투쟁중에서 망이농민군의 투쟁을 취급하고있다.

력사기록에는 공주성점령이후의 망이농민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있지만 그 전단계는 그저 간단히 언급되었을뿐이다.

작품은 당대 력사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펼쳐 봉건제도에 대한 항거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는 주인공 망이의 성격발전과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력사적인물의 운명선에서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에서 해당 인물의 심리정서적움직임을 묘사하는데서 활발히 적용된다.

사실 력사적인물에 대한 자료가 력사기록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보는 산인간의 모습처럼 생동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작가는 인물의 운명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쥐고있다고 해도 그 형상에서는 예술적환상과 허구를 적극적으로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여 우리의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정호가 종당에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력사적사실이다.

장편소설 《김정호》(강학태 작)에서 작가는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인공이 최후에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는것을 풍부한 환상력으로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이러한 실례는 장편소설 《개화의 러명을 불러》(박태민 작)에서 김옥균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을 때 겪는 심리적체험에 대한 묘사, 장편소설 《불우한 열사》(림종상 작)에서 주인공 장인환이 최후의 순간에 겪는 심리 세계에 대한 묘사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력사물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다음으로 허구적인물의 설정으로 력사적사건과 사변의 본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 형상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리용된다.

어느 시대, 어떤 력사적운동에서나 그 주체는 인민대중이었다. 그러나 력사기록과 문헌들에는 인민대중의 활동과 업적이 거의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봉건통치자들은 저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기록하여 남겨놓으면서도 인민대중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거나 전하는 경우에도 심히 외곡하거나 극히 단편적인 자료들만 남겨놓았다. 따라서 력사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자면 어차피 인민출신의 인물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형상을 깊이있게 하는데 창작적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력사의 본질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박태원 작)은 19세기말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주인공 오상민의 성격발전과정속에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우리는 흔히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을 말할 때 흔히 이 전쟁의 주도적인물이었던 전봉준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작가는 갑오농민전쟁이 단순히 동학란이 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피압박인민대중의 대중적투쟁이었으며 따라서 이 력사적인 화폭의 중심에 농민출신의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당대 억압받고 천대받는 근로인민대중의 전형으로 될수 있는 오상민을 내세우고 길보, 칠성, 씨둥, 김침지 등 다양한 인물들을 설정하고있다.

이렇게 형상적화폭의 중심에 근로인민을 내세우고 갑오농민전쟁의 지휘자인 전봉준, 활빈당 행수 정한순 등과 대원군, 민비, 민영준, 조병갑 등 실재한 인물들과의 직접적 및 간접적인 련계를 맺어주면서 형상을 심화시키고있다. 하여 19세기말의 모든 력사적사변들과 사실들은 결코 몇몇 선각자나 출중한 인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련결되어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의 전진운동이 마련되었다는것을 설득력있게 예술적형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허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력사적사건과 사변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는 실례는 장편소설 《19년의 보통문》(림종상 작)에서 옥동기, 《임오풍운》(박춘명 작)에서 복석이, 《군바바》(김혜성 작)에서 남상덕, 《강화처녀》(류춘화 작)에서 심초현, 《푸른 갑옷》(상하, 송봉렬 작)에서 황바위, 중편소설 《부루나의 밤》(림종상 작)에서 해우 등 여러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허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데서 예술적탐구의 흔적은 전설적자료들에서 인물성격을 발견하고 형상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노쇠 [장편소설 《늙새바람》(홍석중 작)], 리랑과 성부 [중편소설 《아리랑》(박종철 작)]의 형상은 바로 늙새바람전설과 아리랑전설에 기초하여 창작되었다.

창작경험은 전설적자료들에 기초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면 형상의 사실주의적진실성을 보장하고 민족성을 살리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허구적인물을 설정하는데서는 둘째로 력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부차적인물을 허구적으로 설정하고 형상을 심화시켜 력사의 본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력사물주제의 소설에서는 실재한 력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것이 일반적이다. 한것은 력사물주제소설의 성격을 살리고 지나간 력사를 정확히 그리기 위한 요구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력사적인물들만 그러서는 력사의 본질을 일반화할수 없으며 력사기록주의적인 경향에 빠질수 있다.

실제로 력사적인물이 이룩한 공적은 그의 남다른 기질이나 비범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대의 다양한 인물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이루어진만큼 부차적인물들을 허구적으로 형상하는것은 예술적형상의 사실주의적전형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장편소설 《리순신장군》(김현구 작)에서 풍덕골어민들과 장쇠와 돌만, 서분녀 등의 설정으로 리순신장군이 임진조국전쟁시기 해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비결을 진실하게 밝

히고있다.

장편소설 《울릉도》(리성덕 작)에서 리생원의 설정은 매우 경험적이다. 허구적인물로 설정된 리생원은 높은 학식을 가졌으나 서자출신인 탓으로 벼슬을 하지 못하는 량반아닌 량반이다. 하여 그는 나름대로 봉건통치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있다.

작가는 이러한 리생원을 실재한 역사적인물인 주인공 안룡복과 편결시키고 그의 시점에서 주인공을 형상하면서 작품의 지성도도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주인공의 성격적면모가 보다 다각적으로 그려지고있으며 당대 사회의 면모를 예리하게 파헤칠수 있었다.

허구적인물을 설정하는데서는 셋째로 주인공의 애정관계를 허구적으로 설정하고 그의 성격과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려내면서 작품의 예술적정서를 보장하는것이다.

애정관계는 역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경우나 허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경우나 다 설정되고있다.

애정관계를 설정하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다면적으로 폭넓게 그리고 당대 역사의 본질을 밝혀내는데서 효과적이다.

장편소설 《개화의 려명을 불러》에서는 실재한 역사적인물인 김옥균을 형상함에 있어서 허구적인물인 조옥화와의 애정관계를 설정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풍부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에서 조옥화는 김옥균과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있으면서도 전반적인 인간관계조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작가는 조옥화의 인물선을 탐구함으로써 전반적인 인물관계조직의 편판을 보장하고있으며 더우기는 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보이고있다. 다시말하여 그들의 애정선을 통하여 김옥균의 다정다감한 성격과 높은 이상, 포부 등을 풍부하게 정서적으로 그리고있으며 애인을 궁녀로 빼앗긴 뒤에 겪게 되는 주인공의 비애와 분노, 그 모든것을 개화의 밑거름으로 삼는 생활들을 통하여 그의 강의한 의지 등을 비교적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 그려진바와 같이 김옥균을 개화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게 만든 생활적절박감은 바로 눈물에 젖어 구원을 기다리는 조옥화의 애처로운 모습이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김옥균의 성

격적특질과 개성적면모들이 많은 경우 조옥화의 형상과 결부되어 창조되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력사소설에서 애정관계의 설정은 이외에도 장편소설 《울릉도》에서 안룡복과 박어순의 관계, 장편소설 《불우한 려사》에서 장인환과 리수련의 관계, 장편소설 《홍경래》(리유근 작)에서 홍경래와 송이와의 관계 등 여러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 애정선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설정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성격과 생활을 그려내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며 작품의 예술적품위를 높여주고있다.

력사물주제의 소설에서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다음으로 이야기줄거리의 굴곡을 보장하고 극적으로 심화시키며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그리기 위해 리용된다.

아무리 의의있고 감동깊은 력사라고 해도 실재한 력사자료를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문학이 되는것이 아니며 또 전해오는 력사적사실자료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력사의 진실을 완전하게 파악할수 없다. 이로부터 작가는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면서도 거기에 여러가지 굴곡을 조성하면서 사건을 극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예술적탐구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럴 때라야 력사를 진실하고 폭넓게, 흥미있게 보여줄수 있다.

장편소설 《성벽에 비낀 불길》(박태민 작)에서 선우돌소년의 희생장면은 미국침략선 《서먼》호를 물리치기 위한 평양성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준 극적사건으로 묘사되고있다.

작품에서 선우돌은 박춘권과 중군, 리현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심화시키고 이야기줄거리를 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안고있는 인물이다.

장차 나라를 지킬 장수가 될 푸른 꿈을 안고있는 15살소년, 류달리 의협심이 강하고 패기가 넘쳐나는 평양석전패의 대장, 그러한 그에게 남다른 고민이 있었다.

그는 서양오랑캐들의 속심을 가려보지 못하고 성교(그리스도교)를 믿고있는 어머니때문에 남몰래 속을 썩이고있었다. 성교를 믿던 어머니가 그만 판비로 잡혀가자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어디다 하소할길 없어 남몰래 울고 또 운 소년이였다. 그러던 그는 미국침략선이 대동강에 기여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을어른들과 함께 소년들을



이끌고 싸움에 나선다.

순진하고 똑똑하던 어머니를 아편쟁이처럼 열떠름하게 만들어놓고 관비로 잡혀가게 한 성교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안고 오랑캐놈들을 기어이 죽쳐버리리라 마음다진 소년이였다. 침략선이 대동강을 오르내리며 어지럽게 총을 쏘아대지만 겁도 없이 돌팔매질로 맞서 용감히 싸우던 선우들은 그만 미국오랑캐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만다.

선우돌소년의 희생, 그것은 그의 가족친척만이 아니라 온 평양성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낸다. 드디어 미국침략선을 쳐물리치기 위한 싸움은 거세찬 증오와 복수의 불길로 타버린다.

물론 선우돌소년의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가는 당대의 역사적사건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선우돌소년의 희생이라는 극적사건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을 깊이있게 밝혀내고 이야기줄거리의 극적전인력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장편소설 《장검에 비긴 백발》(박종철 작)에서는 리성계가 리인임일당을 소탕하는 사건이 그려져있다.

력사기록에는 최영이 리성계와 함께 리인임일당을 처형하였다는 자료만 남아있다. 작가는 이 자료에 기초하여 창작적사색을 심화시킴으로써 최영이 어떻게 항상 의심하던 리성계에게 그토록 중대한 일을 맡길수 있었는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력사와 인물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충분히 그럴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찾아냄으로써 생동한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실재한 사건과 사실에 모순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대 력사를 보다 뚜렷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예술적환상과 허구의 위력은 이렇다.

작품에서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는데서도 예술적 환상과 허구는 적극적으로 리용된다.

특히 생활세부를 탐구, 형상하는데서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매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는것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장편소설 《불우한 렬사》에는 비바람치고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소리 요란한 자연계의 도전을 맞아 울부짖는 호랑이를 그린 《맹호도》세부가 있다. 오랜 량반가문인 정학의 안해가 시집을 때 가져온 이 그림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다.

그런데 정학은 역적 리완용에게 속아 미국고문 스티븐스에게 족자를 선물한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해줄 구세주로 믿고... 하지만 그토록 믿던 미국이, 외교고문이라고 자처하는 스티븐스가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한 악한일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사무친 원수 왜놈과 한짝이 되어 날뛰는 스티븐스의 겉과 속이 다른 정체를 너무도 늦게야 깨달은 주인공 장인환과 그의 애인 수련, 수련의 아버지 리정학의 분노는 이룰데 없었다. 것처럼 순진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무서운 증오와 복수심이 자리잡는다. 그 증오, 그 복수를 예감이라도 했는지 늘 만족스럽기만 했던 《맹호도》작자가 까닭없는 불안과 공포를 스티븐스에게 안겨준다.

작품에서는 남의 나라를 강탈하고 무고한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을 강요하는데 이골이 난 악한 운명은 달리 될수 없음을 《맹호도》세부를 통해 예리하게 보여주고있다. 물론 이 세부묘사는 작가의 환상에 기초하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현대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예술적환상과 허구를 적극 활용하는것은 력사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펼쳐보임으로써 력사물주제소설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작가들은 앞으로도 력사소설창작에서 예술적 환상과 허구를 옹계 리용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알고 우리 민족의 력사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힘써야 할것이다.

## 시인 손승태와 시 《나에게는 병사시절의 배낭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이며 시인이며 교육자였던 손승태는 병사시절체험에 기초하여 수많은 전쟁물 주제의 훌륭한 시들을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주체문학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은 어떤 시기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게 되어야 하며 거기서 사람들이 신심과 용기를 얻고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되어야 한다.》

주체22(1933)년 황해북도 송림시에서 출생한 손승태는 일제식민지통치아래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며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것인가를 직접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신것은 손승태의 운명에서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그는 배우고싶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다.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이 행복을 지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체험한 손승태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용약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그는 중대장관락병으로 복무하면서 대전해방전투와 락동강도하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였으며 그 나날에 귀중한 체험을 하였다. 이 체험에 기초하여 그는 짹짹 시를 써서 전선신문에 투고하곤 하였다.

전후에 제대되어 황해제철소(당시)에서 용해공으로 일하던 손승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정속에 작가학원(당시)에서 공부하면서 자기의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었다.

손승태는 주체52(1963)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당시) 교원, 강좌장으로 사임하면서 우리 주체시문단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시인들을 키워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주체의 그의 작품들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송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는 투쟁의 길동무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시 《나에게는 병사시절의 배낭이 있다》〔주체52(1963)년〕는 시인 손승태의 시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은 포연탄우를 헤쳐온 병사시절의 배낭을 소중히 간직하고 언제나 화선병사의 자세로 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의지를 생활적인 화폭속에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지금은 색깔은 군복  
그 앞췌에 달려있는 몇개의 훈장과 함께  
나에게는 아직도  
병사시절의 배낭이 있다

가렬한 전화의 그날 포연탄우를 헤쳐온 병사시절의 배낭, 그 배낭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가.

바늘자리 또렷한 탄알자국마다  
상기도 화약내 풍겨오는듯  
나와 함께 수만리 전선길을 달려온  
포연에 그을고 땀에 절은 배낭에는  
지금도 숨막히는 1211고지 뜨거운 흙이 배  
여있다

밤나무 우거진 언덕길  
고향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한사코 따라서며 손을 흔들던 누나와 동생들  
아직도 배낭에는 그들의 불타는 념원이 스  
며있다

서정적주인공의 병사시절 배낭에는 고향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불타는 념원을 안고 포연탄우속을 헤쳐온 빛나는 위훈의 자욱들이 깃들어있다.

다시한번 느껴와라 그 배낭을 등에 지고  
눈내리는 설악산 험한 령을 넘나들며  
미제놈들의 이마뺨에 날창을 처박을 때  
너만이 아니였구나, 등에 진것은  
전사들의 온 재산이며 힘을 주던 배낭이여!

하기에 그 길이  
한목숨 바쳐야만 했어도  
어깨를 누르는 무거움에 가슴 울렁이며  
심장의 대답은 한마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시의 구절구절은 조국을 위하여 원썩적멸의 준엄한 길을 헤쳐온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병사시절의 배낭에 담아 소박한 시적언어로 펼쳐보이고있다.

시에서는 미제를 때려부신 우리 영웅전사들이 전후에 걸어진 위훈의 길에 대해서도 병사시절 배낭과 더불어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은 우리 영웅적인민군전사들이 전후복구건설에서도 빛나는 세기적위훈을 세웠다는것을 간결하면서도 감명깊은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아, 싸움의 간고한 불속을 3년…  
보람찬 병사시절에 그러했듯  
이 모든 전선의 불길과 사랑과 념원과  
끓어번지는 증오가 깃들어있는  
이 배낭 하나 거뜬히 등에 지고  
송남 지하의 싸움터로  
눈보라 회오리치는 강계 청춘의 보람찬 화  
선으로…  
조국땅 넓은 천지 그 어텐들 가지 않은 곳 있  
으랴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걸어진 위훈의 력사를 병사시절 배낭에 담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부름이라면 언제든지 병사시절 배낭을 메고 조국수호의 길에 나서리라는 서정적주인공의 결사의 각오를 노래하고있다.

…  
그대 부름이라면 조국이어!  
백번 다시 웃으며 총을 잡으리라  
—나에게는 아직도  
병사시절의 배낭이 있다!

이와 같이 시 《나에게는 병사시절의 배낭이 있다》는 창작된지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조국수호정신, 영웅적투쟁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싸우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한생토록 병사시절의 배낭을 마음속에 안고산

시인 손승태.

손승태는 이밖에도 《첫 병사시절에》, 《이 기발과 함께》, 《명령》, 《그는 끝까지 기발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싸워이겼다!》, 《영웅의 어머니》, 《영웅의 토스레웃이여》 등 많은 시작품들에서 1950년대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과 애국주의정신,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총을 잡고 싸운 병사시절 체험에 기초하여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손승태의 조국해방전쟁주제 시작품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애로 불타는 필승의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

그러기에 너는 피눈물로 찌든 토스레를  
너의 몸에서 벗겨준 조국—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혜에 목이 메어  
세상 처음 제땅 흙 한줌 움켜쥐고  
사래긴 밭고랑에 엎드려 눈물로 땅을 걸구  
었지

조국, 조국이 없이는  
너의 삶 너의 행복 너의 희망도 없음을  
차라리 조국땅 한줌의 흙으로 묻힐지언정  
다시는 후대에게 토스레를 물리지 않을것을

…

(시 《영웅의 토스레웃이여》 중에서)

시인은 이처럼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 애국주의정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주고있다.

손승태의 조국해방전쟁주제 시작품들은 또한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언제나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전투적기백으로 넘쳐있다.

시인은 우리결을 떠나갔어도 그가 남긴 시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시인 손승태의 조국해방전쟁주제 시작품들은 높은 시대정신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영웅적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오 철 학

## 검은머리 백발이 된 오늘에도

김 경 남

### 불 빛

복도에 불이 밝아도  
이른새벽 출근길 나설 때나  
늦은 저녁 집에 들어설 때나  
나들문 열어 불빛 비쳐주는 어머니

복도의 불빛이라  
남의 집 불빛이라

빛이 어찌 다르랴만  
굳이 이 아들을 비쳐주는 어머니  
  
해빛밝은 길을 가도  
달도 별도 없는 길을 가도  
앞길을 비쳐주는 불빛  
빛에도 사랑과 정이 있는줄 내 알았네

### 신 발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증손자까지 거느리셨건만  
이 아들 출근길 출장길 나설 때면  
문앞에 신발을 놓아주시는 어머니  
  
내 하는 일 어떤 일인지  
내 가는 출장길 그 어디인지 다 몰라도

그 길에 한자국 헛디딤 있을세라  
내앞에 곧바로 놓아주시는 어머니  
  
어릴적엔 벗겨지지 말라  
신들메까지 매여주시더니  
다 큰 오늘엔 헛디딤 있을세라  
삶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어머니

### 걱 정

어릴적 수학여행 떠날 때면  
간식배낭이 아무리 커도  
어머니의 눈엔 작게만 보여  
걱정에 밤잠도 잊으시던 어머니  
  
이제는 나라의 아들이 되어  
먼곳에 출장길 나설 때면

작은 가방도 큰 일감으로 보여  
맡은 일 걱정에 잠 못드시는 어머니  
  
생각나네 어릴적 집에 들어서면  
배꼽지를 앓았느냐고 먼저 물으시더니  
지금은 갔던 일 다 잘되었느냐고  
일감부터 먼저 물으시는 어머니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11호 (루계 제781호)

#### 편집위원회

|   |     |                     |
|---|-----|---------------------|
| 낸 | 곳   |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 인 | 쇄 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 인 | 쇄   | 주체101(2012)년 11월 1일 |
| 발 | 행   | 주체101(2012)년 11월 5일 |

7-2655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